

石廬善紀念民俗博物館

開館二十周年紀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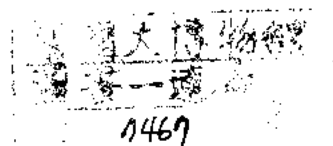
定期研究發表誌

# 韓國服飾

第十九號

2001年 5月

檀國大學校 石廬善紀念博物館





## ■ 제19회 학술세미나

## ■ 제20회 특별전(출토복식)

### • 학술세미나

2001. 5. 2(수) 10:00~13:00 / 단국대학교 난파기념음악관 소연주실

### • 토론회

2001. 5. 2(수) 14:00~16:00 /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세미나실

### • 출토복식 특별전

2001. 5. 2(수) ~ 5. 17(목) /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대청



## 머 리 말

제20회 학술 발표회는 모두 중요한 연구들로 주제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1. 우리 나라의 사(紗), 라(羅)에 대한 문헌, 실물을 통한 분석과 갈피를 잡는 연구, 2. 우리 나라에서는 생소한 요(遼)나라의 견직물 포(袍)의 도안과 재단에 대한 연구, 3. 1999년 12월 전주 이씨 정간(靖簡) 익정(益正 1699-1782)공의 유택에서 찾아진 복식의 보존 복원을 다루는 세 연구가 주제입니다.

첫째 주제는 지금까지 문헌이나 실물에 대한 직조방법을 과학방법으로 시대와 직물의 길질=직조방법의 분류를 밝히는 연구로 매우 중요한 발표입니다. 국민대학교 심 연옥 교수의 종합된 연구로 그림도 원색으로 넣어서 여러분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성을 드린 연구입니다.

둘째 주제는 요나라의 유택에서 찾아진 문화재를 바탕으로 하는 분석을 도안=의장=디자인면과 실제로 만드는 기본이 되는 재단 측면을 밝혀내는 연구입니다. 우리나라 복식과 비교할 수 있는 귀한 연구입니다. 중국의 사주(絲綢)박물관 부관장 자오 평(趙豐)박사의 발표가 되겠습니다.

셋째 주제는 1999년 12월 전주 이씨 정간(靖簡) 익정(益正 1699-1782)공의 유택에서 찾아진 복식의 보존 복원 연구입니다. 이 산소에서 찾아진 복식 문화재는 서울시 상암동에 국제경기장이 세워지게 되어 이장하는 과정에서 찾아진 것입니다. 서울 방송공사 김광현 기자의 도움이 계기가 되어 본 박물관에서 수습하고 보존 처리하는 중요한 작업을 맡아서 하게 되었습니다. 고부자 박사가 주관하여 보존 복원을 거쳐 연구 발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번 학술회의에 참석하여 알찬 발표를 해주시는 학자들에게 깊은 감사의 뜻을 표하고자 합니다. 정간공의 유품을 회사하여 주신 후손이신 이 안용 님을 비롯한 여러분께서 문화재와 전승과 교육 연구자료로 쓰일 수 있도록 우리 박물관에 회사하여 주신데 대해 고마운 뜻을 드립니다.

2001년 4월 25일

단국대학교 석주선 기념박물관장 손 보기



# 목 차

## ●인 사 말

## ●제19회 학술세미나 ..... 3

• 사(紗), 라(羅)직물의 제직기술에 관한 연구 ..... 심연옥 ..... 5

• 遼代絲織袍服的圖案裁剪 ..... 자오 평 ..... 47

※ 번역 : 遼代 전직물 袍의 圖案과 裁斷 ..... 심연옥 ..... 49

• 상암동 출토全州李氏 益烜(1699~1782)유물연구 ..... 고부자 ..... 83

1) 유물 도해 및 해설

2) 출토현장 자료

## ●開館紀念行事 해적이 ..... 147

## ●博物館 利用案内



# 학 술 세 미 나

- 사(紗), 라(羅)직물의 제직기술에 관한 연구 ..... 심연옥
- 遼代絲織袍服的圖案裁剪 ..... 자오 평  
※ 번역: 遼代 견직물 袍의 圖案과 裁斷 ..... 심연옥
- 상암동 출토 全州李氏 益烜(1699~1782)유물연구 ..... 고부자



# 사(紗), 라(羅)직물의 제직기술에 관한 연구

심 연 옥



# 사(紗), 라(羅)직물의 제직 기술에 관한 연구

심 연 옥(국민대학교 겸임교수)

## 1. 서 론

사(紗), 라(羅)는 익조직(杼組織, 경사 꼬임조직)으로 제직된 얇고 비쳐 보이는 익직물(杼織物)을 말한다.

사, 라직물은 우리 민족이 가장 애호한 직물품종의 하나로 고대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수 없이 다양한 품종이 제직되고 사용되었다.

이는 사, 라직물의 특성이 곱고 섬세하며 반투명하여 한복의 특성에 잘 어울렸고, 섬세함과 단아함을 선호한 우리 민족의 정서에 적합하였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사, 라직물은 대부분 견직물로 제직 되었으나 마직물을 유난히 즐긴 우리민족은 마섬유로 제직된 사, 라직물도 고대로부터 사용해 왔다.

한국, 중국, 일본 동양 삼국의 사, 라직물은 각국의 문화적인 특성에 따라 조금씩 변모되기는 하였으나 그 구조적인 특성은 거의 같으며 상호 기술교류 속에 변화, 발전되어 왔다.

사, 라직물에 대한 선행연구는 문헌고찰과 유물조사의 방법으로 몇 연구자에 의해 시도되어 왔다. 하지만 일부 연구자료에는 사, 라의 조직이 혼돈되어 있고, 전통 사, 라직물의 제직 기술에 대해서는 거의 연구되어 있지 않다.

그리하여 필자는 우리 나라 전통 사, 라직물의 계통적 연구를 위하여 문헌적 고찰을 통한 사, 라직물의 역사와 품종을 조사, 정리하고, 유물조사를 통해 사, 라직물 조직의 계통적 분류와 명명을 하였다. 조직에 관계되는 용어는 현대 직물조직학에서 상용되는 용어를 선택하여 사용하였고, 현대에는 이미 절멸된 품종에 대해서는 임의로 조직명을 설정하여 명명하였다.

또한 사, 라직물제직에 관해 주변국의 자료와 복원과정을 통하여 우리 나라 전통 사, 라직물의 제직에 관해 유추해 보았다.

## 2. 사, 라직물의 역사와 종류

### 1) 라(羅)의 역사와 종류

우리 나라에서 라의 사용이 문헌에 기록된 것은 삼국시대부터이다.

『舊唐書』에는 고구려에서 백라(白羅), 청라(靑羅), 비라(緋羅)가 관(冠)에 사용되었다고 한다. 『魏書』에도 고구려에서 자라(紫羅)가 관에 사용된 기록이 있다.

『唐書』에는 백제의 왕은 오라관(烏羅冠)을 쓴다고 하였다.

『三國史記』 복식금제에 의하면 라는 육두품과 오두품의 복두(幘頭)에만 허용되었으며, 라(羅), 세라(總羅), 월라(越羅), 포방라(布紡羅), 야초라(野草羅) 등은 잔골대등에서 사두품에 이르기까지 각종 복식에 모두 금지되고 있다. 삼국시대의 라는 주로 관의 용도로 쓰이던 귀한 직물이었음을 알 수 있다.

고려시대 라는 종류도 다양해지고 의복뿐만 아니라 교역품으로도 많이 사용

된 당시의 대표적인 직물이라 할 수 있다.

『高麗圖經』에는 자라(紫羅), 청라(靑羅), 강라(絳羅), 백라(白羅) 등 각색라와 자문라(紫文羅), 문라(文羅), 홍문라(紅文羅) 등 무늬 있는 문라가 사용되었음이 나타난다.

왕의 복식뿐만 아니라 백관의 제복(祭服), 공복(公服) 등이 대부분 라로 만들어졌으며, 군인의 복식인 장위복(仗衛服)에도 라가 많이 사용되어졌음을 알 수 있다.

또한 『高麗圖經』에 고려의 두건(頭巾)은 문라(文羅)로 된 것을 중히 여긴다고 하였다.

『高麗史』에는 채라(彩羅), 황라(黃羅) 등이 번(幘)에 사용되고, 금라(金羅)가 가사(袈裟)에 사용된 기록이 있다. 금라는 금사를 넣어 짠 직금라(織金羅)로 본다.

『高麗圖經』에는 문라의 힐막(纈幕)이 사용되고, 흥위좌우친위군(興威左右親衛軍)은 홍문라포(紅紋羅袍)를 입었는데, 오채(五采) 단화(團花)의 점힐(點纈)로 장식하였다고 한다. 라직물에 힐염으로 문양염색한 라직물을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高麗圖經』에는 홍라수막(紅羅繡幕)을 사용한 기록도 있다.

그 외에도 라는 배게 장식, 부채(扇), 덮개(蓋)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었다.

『高麗史』에 당시 고려에서 송나라로 보낸 직물류 중에는 수를 놓은 홍라(紅羅繡), 매화무늬의 홍색라(紅梅花羅), 금박을 한 홍색라(銷金紅羅), 금박을 한 홍색의 매화무늬 라(銷金紅梅花羅), 색라(色羅), 생라(生羅) 등 라직물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어 당시 고려에서의 라직물생산의 우수성과 규모를 짐작케 한다.

송나라에서도 명황(明黃), 남황(藍黃), 천분홍(淺粉紅), 심분홍(深粉紅),

행황(杏黃), 치황(梔黃), 천색(淺色), 매홍(梅紅), 자(紫), 운벽(雲碧) 등의 색화라(色花羅)를 회사품으로 보내온 기록이 있다.

『高麗圖經』에는 고려에서는 국히 좋은 문라(紋羅)가 기교있게 직조된다고 하여 고려에서 라를 짜는 기술이 매우 발달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고려시대에는 중앙의 제직 기관인 액정국에 라장(羅匠)을 설치하여 전문적으로 라를 직조하였으며, 지방에서도 라의 제직은 많이 이루어졌는데 최자의 『三都賦』에는 세림과 영가지방 즉 지금의 경주와 안동에서는 누에를 차 실을 자아 불면 날 듯 연기와 함께같은 고운 라(羅)를 짠다고 하였다

조선시대 라의 종류에는 라(羅, 白, 紫的, 藍, 紫, 紺), 직금라(織金羅), 직금라(織錦羅), 평라(平羅), 주항라(紬亢羅), 항라(亢羅), 생항라(生亢羅), 숙항라(熟亢羅), 저항라(苧亢羅), 세저항라(細苧亢羅), 삼족세저항라포(三足細苧亢羅布), 무문항라(無紋亢羅), 유문항라(有紋亢羅), 당항라(唐亢羅), 왜항라(倭亢羅), 서양항라(西洋亢羅), 은라(銀羅), 숙라, 추라(秋羅), 윤주라(潤洲羅), 모라(冒羅), 모라(毛羅) 등의 라직물이 사용된 기록이 있다.

조선시대에 새로이 보이는 라의 종류는 항라이다.

항라가 많이 사용된 것은 우리나라에서는 조선시대 후기이고 중국에서는 청대에 와서이지만 항라조직의 직물은 이미 중국의 전국시대와 동한대의 묘에서 견사로 제직한 3족항라와 모사로 제직한 3족항라가 출토되어 그 역사가 오래 되었음을 알 수 있다.

항라는 고려시대까지의 라직물과는 다른 조직의 직물로 2경익경 사직과 평직이 조합되어 위사 방향으로 일정하게 줄이 난 익직물이다.

징련의 유무에 따라 숙항라, 생항라로 구분되며, 사용한 원료섬유에 따라 견사로 제직한 주항라, 모사로 제직한 저항라, 세저항라, 3족세저항라포 등이 있다. 모사로 제직한 항라는 근세까지도 많이 사용되었는데, 1930년 조선총독부 중앙시험소에서 보고한 보고서에는 마항라샘들과 함께 마항라 제직법이 상세히

기재되어 있다.

모라는 모사로 제직된 향라가 아닌가 생각된다. 모사로 제직된 향라는 중국의 동한시대 신강 민풍 니아유적에서 모사로 제직된 3족향라가 출토되었다.

무늬의 유무에 따라 문향라, 유문향라로 구분된다. 은라, 숙라, 추라 등은 중국 청대말기의 향라 품종으로 중국에서 유입된 것이다.

## 2) 사(紗)의 역사와 종류

『삼국사기』의 기록에 사(紗)는 사두품(四頭品)의 복두(幘頭)에 허용되었으며, 진골(眞骨)이 타는 우교차(牛轎車)의 앞뒤에 치는 휘장에 소문능(小文綾), 시(縑)등과 함께 쓰였으며 그 색은 심청벽(深靑碧), 자자분(紫紫粉)으로 했다고 한다.

고려시대에 사는 송나라로 보낸 사(紗), 복두사(幘頭紗), 모자사(帽子紗)가 있으며, 『高麗圖經』에는 왕의 상복(常服)에 쓰는 관모는 오사(烏紗)로 하고, 백관의 공복 착용시에도 모두 사(紗)로 만든 복두를 쓴다고 하였다.

자사오자(紫紗襖子)가 원에 보내졌으며, 다구를 덮는 상보로 홍사(紅紗)를 사용했음도 나타난다.

현재의 사직물은 경사 2올이 익경되면서 짜여진 익직물이다. 이러한 2경익경의 직물이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고려시대부터 이다.

원래 사(紗)는 고대문헌을 통하여 볼 때 가볍고 얇으며 성글게 짜여진 직물을 의미하는 것으로 고대의 출토 직물중 비치도록 성글게 짜여진 방공(方孔)의 평직물은 사로 분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중국에서는 2경익경의사와의 혼돈을 피하기 위하여 평직의 사직물을 평사(平紗), 가사(假紗)라고 부르기도 한다.

고려시대 2경익경의 익직물이 짜여지기 시작하면서 두공율이 높아 특히 비쳐 보이는 익직물이 평직의사와 혼용되어 명명되어졌다고 본다.

고려 문종 34년에 송나라에서 보내온 직물중에는 각색의 화사(花紗)가 500필이 들어 있다. 이는 무늬있는 사로 평직의 사가 아닌 무늬있는 2경의 경의 사직물임을 알 수 있다.

『高麗史』정종(靖宗) 4년에 사저포(紗紵布)가 거란에 보내진 기록이 있다. 이는 사조직으로 짜여진 저포로 본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조선시대에 모시로 짠 익직물인 향라가 사용된 기록으로 보아, 모시의 제직이 특히 뛰어나 화문저포(花紋苧布)까지 제직된 고려시대에 사조직으로 된 저마직물의 제직은 충분히 가능했을 것으로 유추된다.

조선시대에는 라의 사용은 감소되고 사의 사용이 증가되는데 조선시대 문헌 중에 나타나는 사는 직물의 품종중 가장 많아 조선시대 사직물이 얼마나 많이 사용되었는가를 짐작케 한다. 사의 명명은 품종, 색, 문양, 정련의 유무, 산지 등에 따라 수 없이 많은 종류가 나타나 있다.

『朝鮮王朝實錄』, 『國婚定例』, 『尙方定例』, 『度支準折』, 『宮中撥記』 등에 수록된 사의 종류에는 사(紗), 소사(素紗), 소저사(素苧紗), 운문사(雲紋紗), 대사(大紗), 무문사(無紋紗), 유문사(有紋紗), 주사(走紗), 은조사(銀條紗), 문사(紋紗), 갑사(甲紗), 생수갑사(生水甲紗), 길상사(吉祥紗), 고길상사(庫吉祥紗), 서양사(西洋紗), 저우사(苧藕紗, 더우사), 광사(廣紗), 직금광사(織金廣紗), 광수사(廣水紗), 숙고사(熟庫紗), 생고사(生庫紗), 공사(貢紗), 화사(禾紗), 화선사(花縮紗), 추사(皺紗), 왜사(倭紗), 별문사, 국사(菊.局紗), 관사(官紗), 색동관사, 진주사(眞珠紗), 한경사(漢京紗), 수사(水紗), 공사, 춘사, 천사, 공양사, 즈우사, 숙사, 당사, 비단사, 나사, 도뉴사, 도리사, 여의사, 고사, 진사, 양사, 양문관사, 슈사, 생슈사, 생사, 단사, 팔길사, 진사, 고사 등이 있다.

무늬가 함께 기재되어 있는 사는 각종문사, 갑사(甲紗), 주사(走紗), 생수갑사, 저우사(苧藕紗), 숙고사, 생고사, 공사, 생사, 도뉴사, 나사, 별문사, 숙

사, 관사, 단사, 즈우사, 고사 등이다. 문양은 운문(雲紋), 운학문, 린문(鱗紋), 운학용봉문(雲鶴龍鳳紋), 도류(桃榴), 별문(別紋), 넉점문, 점문(호점문), 화문(花紋), 매란(梅蘭), 칠보문, 화학문, 쌍희자, 복문, 쌍희자점문, 칠보초롱문, 백복문, 미란문, 구운문(九雲紋), 여의, 진주문 등이 사용되었다.

중국에서 회사(回賜), 무역 등에 의해 유입된 사직물중 우리 나라 사직물명에 없는 종류는 직금사(織金紗), 골타운암화사(骨朶雲暗花紗), 팔보골타운암화사(八寶骨朶雲暗花紗), 세화사(細花紗), 구장견자사(九章絹地紗), 대홍직금홍배골타운기린홍배사(織金胸背骨朶雲麒麟胸背紗), 보상화사(寶相花紗), 방사(方紗), 융사(絨紗), 팔운문공사(八雲紋貢紗), 천사(川紗), 부용사(芙蓉紗), 팔길사(八吉紗), 별문추사(別紋縐紗) 등의 종류가 있다.

조선시대 사의 종류중 오늘날까지 제직되고 있는 것은 숙고사, 생고사, 은조사, 국사, 순인, 갑사, 진주사, 관사 정도이다.

위의 사종류 대부분은 경사2올이 익직된 익직물이지만 추사(皺紗)는 실에 꼬임을 많이 주어 평직으로 제직한 축면직물을 말한다. 왜사(倭紗)는 섬세한 실로 제직된 평직의 생견(生絹)을 말한다. 조선시대에도 익경직물과 소량의 평직물이 서로 혼용되어 명명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조선시대 문헌중의 생초(生綃), 라방초(羅紡綃)등은 초라고 명명하였으나 익직물을 말하는 것이다.

### 3. 유품을 통한 사, 라의 조직적 분류

사, 라직물은 익조직(杼組織)으로 제직된 직물이다.

보통의 직물은 경사가 평행으로 배열되면서 위사와 짜여지나, 익조직은 경사가 서로 교차되어 꼬이면서 위사와 짜여진다. 경사에는 평행으로 배열되어 움

직이지 않는 지경사(地經絲)와 지경사의 좌측 또는 우측으로 이동하며 상하운동을 하여 위사와 짜여지는 익경사(捰經絲)가 있다.(그림 1)

경사가 꼬이면서 짜여지므로 공간이 많이 생겨 반투명한 직물을 얻을 수 있으나 봄, 여름, 가을 한복감으로 많이 사용되어 왔다.

우리 나라에서 조사된 익직물 유품을 분류하면 크게 4경익경, 3경익경, 2경익경, 이중직의 익조직 등으로 나눌 수 있다.

4경익경은 삼국시대와 고려시대 많이 사용되었으며, 3경익경은 고려시대에도 주로 사용된 익조직이다. 4경익경은 현재 직물제직에는 사용되지 않으며, 3경익경은 현대직물제직에는 남아 있으나 전통직물제직에는 사용되지 않는다. 2경익경조직은 고려시대에 사용되기 시작하여 조선시대에는 대단히 많은 품종이 사용되었으며 그 중 일부의 품종들이 오늘날까지 제직되고 있다.

4경익경의 조직은 현대직물조직학에는 적합한 용어가 없으므로 본 고에서는 라조직으로 가칭한다. 3경익경 조직은 현대 직물조직학에서는 변화사조직으로 분류되며, 2경익경조직은 사직, 여직, 변화 또는 혼합사조직 등으로 분류된다.

고대직물을 분류하여 명명할 때 4경익경의 익직물은 라(羅)로 분류되고, 2경이 익경된 단순익직물은 사(紗)로 분류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경사 3올이 익경된 익직물은 제직기술면에서는 2경이 익경된 사조직과 같지만 사보다 투공율이 적어 덜 비쳐 보이므로 직물명으로는 라(羅)로 분류되는 경우가 많다. 본 장에서는 라(羅)로 분류하여 명명한다.

#### 1) 4경익경 라조직(complex gauze)

우리 나라에서 지금까지 보고된 4경익경 라의 유품으로 가장 이른 연대의 것은 평양근교에서 발견된 2~3세기의 능문라가 있다. 일인들은 이 직물을 낙랑시대 한(漢)의 유물로 보고하였다.

부여 능산리 백제시대의 고분에서도 관(冠)의 용도로 사용된 문라(文羅)잔

편이 발견되었으며(사진-1), 경주 불국사 석가탑에서 통일신라시대의 아주 섬세한 라직물 잔편이 수 점 조사되었다.(사진-2) 통일신라 말기에서 고려 시대 초의 월정사 9층 석탑에서는 라에 니금사로 자수를 한 주머니가 발견되었다.

고려시대의 유품은 불복장 유물로 소라(素羅), 각색의 문라(紋羅), 소금홍라(銷金紅羅) 등 다수가 발견되어 수덕사, 온양민속박물관, 국립박물관 등에 소장되어 있다.

조선시대의 라직물은 석주선민속박물관과 개인소장 불복장유물 중에서 소량 조사되어 있다.

4경익경 라직물 사용의 전성기는 삼국시대와 고려시대까지 이다.

중국에서도 라는 전국시대와 서 한대에 사용되기 시작하여 당대에는 라에 염색을 하고 자수를 한 화려한 라직물을 사용하였으며 송, 원대에는 남녀의 의복에 모두 얹고 섬세한 라직물이 크게 유행하여 출토 직물 중에서도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4경이 익경된 라는 익경사 한 올 지경사 한 올씩이 1:1로 번갈아 정경된다.

라조직의 기본조직은 익경사가 좌측의 지경과 한 번, 우측의 지경과 한 번씩 번갈아 꼬이면서 위사와 짜여져 그물망과 같이 좌우로 연이어져 있는 망상(網狀)의 조직이다.

이 조직만으로 라직물이 제직되지는 않으며 4경익경을 만들기 위한 기본조직으로 문라제직시에 무늬부분에 짜여지며 또한 라직물의 식서부분에 짜여진다. 실제 직물에서는 망상의 조직이 좌우로 밀착되면서 마치 평직과 같은 외관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다.

이 망상의 라조직에서 일정부분 규칙적으로 익경사가 지경사와 꼬이지 않게 되면 지경 2올과 익경 2올이 함께 꼬여지면서 경사 4올이 익경된다. 따라서 이 조직을 4경익경 라조직이라고 부른다. 중국에서는 사경교라(四經交羅)라고 하며, 일본에서는 농여(籠紵)라고 한다. 4경익경 라조직은 경사 4올이 함께

꼬였으므로 직물의 투공율이 높아 투명하게 비쳐 보인다.

우리 나라 유품중에 조사된 라의 품종에는 크게 무늬가 없는 소라(素羅)와 무늬를 넣어 짠 문라(紋羅)가 있다.

소라는 4경익경 라조직만으로 제직된 무늬 없는 직물을 말한다. 고려시대의 유품 중에는 각 색의 소라가 남아 있는데, 제직을 아주 성글게 하여 많이 비쳐 보이는 것과 치밀하게 제직하여 거의 투공되지 않는 라 등 다양한 소라가 제직되어 사용되었다. (사진-3)은 생사로 아주 성글게 제직된 고려시대의 황색 소라이며, (사진-4)는 자주색의 숙견사로 치밀하게 제직된 고려시대 소라이다.

문라는 4경익경과 망상의 라조직이 배합되어 제직되는데 투공율이 커서 투명해 보이는 4경익경이 바닥이 되고 투공율이 적은 망상의 라조직은 무늬를 만든다. (그림-2)

(사진-5)는 수덕사에 소장된 문수사 금동여래좌상 불복장의 문라직물이다. (사진-6)은 온양민속박물관에 소장된 아미타불 복장유물로 주홍색 문라로 만들어진 주머니이다.

라는 제직하는 종광장치에 의해 경사 4줄이 꼬여있는 부분에서 경사 한 줄이 위로 올라 올 수도 있고 3줄이 위로 올라 올 수도 있어, 전면과 이면의 구분이 정확하지 않으나 4경익경 라직물에 금사를 사용하여 무늬를 덧 짠 직금라(織金羅)의 전면이 대부분 한 줄이 올라온 쪽인 것으로 미루어 이를 전면으로 사용한 것으로 본다.

## 2) 3경익경 변화사조직(uneven simple gauze)

3줄의 경사가 꼬이며 짜여진 익직물은 고려시대에 많이 사용되었다. 온양민속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 수덕사 등에 소장된 불복장 유물중에 다 수가 남아 있다. 중국에서도 고려와 같은 시기의 송대에 많이 사용되었으며 복주 황송묘, 절강 란계, 강서 덕안 등의 송묘에서 많은 양이 출토되고 있다.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3경익경 직물은 조직적으로는 사조직에 가까운 변화 사조직이지만 직물을 명명할 때는 대부분의 연구자들이 라(羅)로 분류한다.

3경익경의 직물은 4경익경의 라직물과는 조직과 제직기법이 전혀 다른 조직의 형태이다. 조직으로는 2경익경의 사조직과 같으며, 2경익경 사조직에 지경이 한 올 더 첨가된 것으로 두 올의 지경과 1올의 익경이 한 조가 되어 일렬로 익경되면서 짜여진다.

우리 나라 고려시대 유물에서 조사된 3경익경 조직의 유형은 두 가지가 있다.

첫째, 지경 2올 익경 1올이 한 조로 짜이는데 지경 2올은 평직으로 짜이며 동시에 익경에 의해 꼬이면서 짜여진다. 위사 두 번 제직에 반 꼬임 두 번으로 일완전 꼬임이 만들어 진다.

이 조직은 불완전 평직과 혼합되어 무늬를 나타낸다.(그림-3) 즉 3올의 경사가 서로 꼬이며 짜여져 바닥이 되고 무늬 부분에서는 풀어져 평직으로 문양을 짠다.

둘째는 첫 번째 조직과 같으나 꼬임과 꼬임 사이에 위사를 한번 더 직입하여 짜서 위사 3올에 반 꼬임 두 번으로 일 완전 조직을 만든다. 위사가 세 올씩 모여서 짜여짐으로 직물전면에는 위사 방향으로 규칙적인 꼴이 생긴다.

이 조직은 1/2 불완전 능조직과 혼합되어 무늬직물을 짠다. 즉 3올의 경사가 꼬이며 짜여져 바닥이 되고 꼬였던 세 올이 풀어지면서 1/2 능조직으로 문양이 짜여진다.(그림-4)

고려시대 3경익경 라직물은 대부분 두 번째 유형으로 짜여졌다.

(사진-7)은 둘째 유형의 3경익경으로 짜여진 고려시대의 포도봉황문타이다.

3경익경의 변화사조직 직물은 전통직물제작에서는 고려시대 이후 사용되지 않으나 현대직물에서 커튼감이나 기타의 용도로 제직되어 여전히 사용되고 있

는 익조직이다.

### 3) 2경익경 단순익조직(simple gauze)

2경익경의 사직물은 경사 2올 즉 익경 1올, 지경 1올이 한 조가 되어 짜여지는 단순 익직물이다.

2경익경 사직물의 유품은 고려시대 불복장 유물중에 수 점 조사되었으며 조선시대에는 다양한 종류가 출토되거나 전해져 내려온다.

사직물은 무늬가 없는 소사(素紗), 사직(紗織)에 평직 또는 부문을 혼합하여 제작한 문사, 여직(縵織)으로 제작된 항라, 종려, 혼합조직의 감사, 은조사 등으로 구분된다.

### 소사(plain gauze)

2경익경 사조직으로만 직물 전체가 제작되어 무늬가 없는 사직물을 우리 나라에서는 소사(素紗), 은조사(銀條紗) 등으로 명명한다.

### 문사(紋紗)(patterned simple gauze)

문사는 2경익경 사조직과 평직 또는 부문을 혼합하여 무늬를 낸 직물이다.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의 유품으로 조사된 문사 중 가장 일반적인 것은 2경익경 평사(平紗)를 바탕으로 하고 무늬부분에서는 평직으로 무늬를 나타내는 것이다.(그림-5)

(사진-8)은 아미타불 불복장유물의 문사이다.

(사진-9)는 화계사 지장보살불복장유물의 문사이다. (사진-10)은 그 확대 사진이다.

고려시대의 문사에는 특이한 조직이 보이는데 2경익경의 문사의 꼬임과 꼬임 사이에 위사를 한번 더 짜서 3올의 위사에 두 번 꼬임으로 일 완전조직이 짜

여진다. 이렇게 꼬인 2경익경이 바닥이 되고 무늬부분에서는 풀어져 능직으로 짜여진다.(그림-6)

고려시대 3경익경의 라에서 2경익경의 조직으로 가는 과도기적인 조직의 형태로 보인다. 이 조직에서 가운데 끼워진 위사는 고정되지 않고 위, 아래로 움직이며 늘어서 직물표면은 요철(凹凸)의 효과가 난다.

(사진-11)은 이와 같은 조직으로 짜여진 고려시대의 문사이다. (사진-12)는 그 확대 사진이다.

조선시대 중기 이후에는 2경익경과 평직의 혼합비율과 방법에 따라 새로운 문사의 종류가 다양하게 사용되었다.

(사진-13)은 온양민속박물관에 소장된 도류불수사(桃榴佛手紋紗)로 바닥은 2경익경 사직이며 무늬는 평조직이고 무늬의 경계선은 격 올의 위사를 부분으로 길게 띄워 제작하여 문양을 더욱 선명하게 하였다.

위사에 꼬임이 없는 용사를 사용하여 무늬의 경계부분이 특히 돌출되어 보인다. 어떤 경우에는 일부러 위로 잡아 올린 느낌이 날 정도로 부분된 부분의 실이 풀어져 있다. 이와 같은 조직의 사는 조선시대 중기이후에 상당히 많이 사용되었다.

사직물 중에는 바닥과 무늬 모두 평직으로 제작되며 무늬의 가장자리 부분에서 한 줄은 부분으로 한 줄은 사직으로 제작된다. 직물전체에서 사직의 부분이 극히 적다. 이러한 사직물을 자미사등으로 부른다.

(사진-14)는 수자호로문 숙고사(壽字胡虜紋熟庫紗)이다. 문사의 조직은 일반적으로 바닥이 사직이고 무늬의 부분이 평직이지만, 숙고사는 바닥은 평직이고 무늬의 부분은 사직으로 제작된 것이다. 평직과 사직의 비율이 거의 같다.

관사도 바닥을 평직 무늬 부분을 사직으로 제작한 것이다.

## 여직(縐織)(ribbed gauze)

2경익경의 직물중에는 위향으로 소로가 나있는 향라의 종류가 있고 또 종향으로 소로가 나있는 종려(縱縐)의 품종도 있다. 모두 2경익경 사직과 평직을 규칙적으로 혼합 제작하여 줄무늬의 효과를 낸 것이다.

향라는 수 올의 위사를 평직으로 제작하고 나서 경사 2올씩을 익경하여 제작하고 다시 평직으로 제작하여 위사방향으로 규칙적으로 줄무늬가 나타난다. 평직으로 제작되는 위사의 올 수는 3올, 혹은 5올, 7올 등 기수의 단위로 짜여져 3족향라, 5족향라 등으로 명명된다.

향라의 제작에는 (그림-7)과 같이 두 가지 방법이 있다. 경사가 반 꼬임으로 교차만 되는 것과 반 꼬임후 위사를 넣어 짜고 다시 반 꼬임을 하여 완전 꼬임으로 짜는 방법이 있다. 후자의 경우는 위향으로 가는 소로가 두 줄씩 난다.

향라에는 무늬가 없이 짜는 무문향라(민향라)와 무늬를 넣어 짜는 유문향라(문향라)가 있다.

온양민속관에 소장된 안동김씨 수의의 직물중에는 종향으로 줄무늬가 있는 익직물이 있다.(사진-15) 위사방향으로 경사 11올을 평직으로 제작하고 경사 2올씩을 두 번 익직하고, 다시 평직으로 제작하여, 익직된 부분이 투공하여 경사방향으로 줄무늬가 생긴다.(그림-8)

현대의 직물조직학에서는 종려라고 한다. 조선시대에는 무엇이라고 명명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안동김씨 수의에 관련된 문서 중에 '을라(乙羅)'라고 하는 기록이 있어 이 직물을 지칭하는 것이 아닌가 추측해 본다.

## 혼합 사조직

갑사(甲紗): 갑사의 바닥은 지경과 익경이 3단위 혹은 4단위로 제작된 평직과 사직을 상하좌우로 규칙적으로 배열하여 직물전체에 벌집과 같은 작은 무늬를 놓은 것이다.(그림-9) 이와 같이 벌집무늬로만 제작된 것을 순인(純仁)이

라 한다. 갑사는 순인(純仁) 바닥에 다시 사조직과 평직을 혼합하여 무늬를 놓은 것을 말한다.

조선시대 갑사의 종류는 사직물중 가장 많다. 갑사에는 정련의 유무에 따라서 숙갑사와 생수갑사가 있다. 또한 색과 무늬에 따라 수 없이 많은 종류가 문헌기록에 나타난다.

진주사(眞珠紗): 사조직을 선으로 연결하여 육각형무늬를 만들어 직물전체에 배열하였으며, 그 위에 드문드문 소형의 문자, 초화, 나비문 등을 놓았다. 육각형 가운데는 부분으로 작은 능문을 만들었다.

이와 같은 사직물은 무늬가 구슬을 늘어 놓은 것과 같다 하여 진주사(眞珠紗)라고 한다. 근년까지도 각색으로 제직되어 한복감으로 사용되고 있다.

#### 4) 봉취직 사(simple gauze, brocaded)

고려시대의 유품중에는 사조직의 바닥에 문위사를 봉취직으로 제직하여 무늬를 덧 짠 사직물이 있다. 봉취직은 위사가 식서에서 식서로 연속되지 않고 문양이 필요한 부분에서만 작은 북을 사용하여 문위사를 돌아가며 직입하여 부분적으로만 중조직으로 짜여지는 기법을 말한다. 이와 같은 조직을 중국에서는 '장화'라 한다.

국립중앙박물관과 온양민속박물관에 소장된 고려시대 불복장직물중에 4점이 조사되었다.

문위사에는 편금사를 사용한 것과 색사를 사용한 것이 있다. 문위사의 조직은 일정한 규칙이 없이 부분으로 제직되었다.

(사진-16)은 온양민속박물관에 소장된 아미타불 불복장물의 금사(金紗)이다. (그림-10)은 조직모형도이다.

## 4. 사, 라직물의 제직

원시적인 사, 라직물의 제직은 특별한 도구없이 수공에 의한 편직의 형태로 이루어졌다고 본다. 현재에도 페루 등지에서 제직되는 라는 가장 간단한 도구로 짜여진다.

그러나 수요의 증가와 제직 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라를 제직하는 전문직기가 사용되었을 것이다.

사, 라직물의 제직에는 보통직물 제직과는 달리 경사를 좌, 우로 이동시키며 상하운동을 하는 특수한 익종광(捰綜統) 장치가 필요하다. 우리 나라의 기록에는 사, 라를 제직하였다는 기록은 남아 있으나 사, 라를 짜는 제직기술에 대한 자료는 거의 남아있지 않다.

본 고에서는 우리 나라 전통 사, 라직물의 제직기술을 알아보기 위하여 중국에 남아 있는 사, 라제직에 관한 자료와 현재 일본과 중국에서 복원하고 있는 사, 라직물의 기술적 자료를 통하여 전통 사, 라직물의 제직기술에 대하여 알아보려고 한다.

### 1) 4경익경 라의 제직

4경익경 라의 제직에 관한 기록은 중국에서도 아주 후대에 와서야 보이는데 원대의 문헌에 단편적으로 기재되어 있다.

원대 벽경석(薛景石)이 쓴 『재인유제(梓人遺製)』에 '라기자(羅機子)'도 즉 라를 짜는 직기도가 묘사되어 있다. 간단한 보통직기의 구조이며, 바디 대신 위사를 타워하는 타워도가 그려져 있고, 범선춘자(泛扇椿子)라는 익종광 장치가 묘사되어 있으나 자세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조작 원리는 알 수 없다.

중국과 일본에서는 오래 전부터 라직기의 복원이 시도되어 왔다. 중국에서는

아직 4경익경 라직물의 복원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일본에서는 라를 복원하여 제직하고 있다. 라의 제직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제직될 수 있으나 본 고에서는 그 중 몇가지 방법만을 제시하여 라의 제직에 관하여 논해 보고자 한다.

라제직의 가장 큰 특징은 두 종류의 익종광이 사용된다는 것이다. 즉 익경사가 우측의 지경사와 꼬이게 하는 우익종광과 좌측 지경사와 꼬이게 하는 좌익종광이다.

익경사는 우익종광에 끼워지고, 동시에 좌익종광에도 끼워진다. 지경사는 익종광에 끼워지지 않는다.

망상의 라조직을 제직 할때는 좌익종광 한 번, 우익종광 한 번을 번갈아 들어올려 제직한다. 제직후에는 정연하게 그물방처럼 연이어진다.(그림-11)

4경익경 라조직은 망상의 라조직을 기본으로 약간의 변화를 준 것이다.

망상의 라조직에서 4경익경을 짜는 종광장치는 여러 가지의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으나 원리는 일정한 부분에서 익경사가 지경사와 꼬이지 못하게 하여 2울의 익경과 2울의 지경이 함께 모여 꼬이게 하는 것이다.

종광장치의 한 방법은 좌익종광 하나 우익종광 둘로 짜는 방법으로 좌익종광에는 모든 익경사를 끼우고, 우익종광1에는 기수번의 익경사를 끼우고, 우익종 2에는 우수번의 익경사를 끼워 제직한다.

다른 또 하나의 방법은 모든 익경사를 끼운 좌익종광 하나, 우익종광 하나 와 기수의 지경사를 끼운 보통종광 하나, 우수의 지경사를 끼운 보통종광 하나로 제직한다.(그림-12)

문라의 제직방법은 망상의 라조직으로 짜 나가다가 필요한 부분에서만 익경사가 지경사와 꼬이지 못하게 하여 4경익경을 만드는 방법이다.

문라를 문인기로 제직하는 방법에는 모든 익경사를 끼운 좌익종광 하나와 모든 익경사를 끼운 우익종광 하나로 제직하며, 지경사는 통사와 연결하여 하나 하나 단독 운동을 하게 하여 4경익경으로 꼬아야 할 분의 지경사 만을 조작하

여 들어 올려 제직한다. 이렇게 하여 망상의 조직과 4경익경이 혼합되어 무늬 직물이 된다. 투공율이 커서 투명해 보이는 4경익경이 바닥이 되고 투공율이 적은 2경익경은 무늬를 만든다.(그림-13)

라의 제직에는 익경사가 옆에 있는 지경과 좌우로 교차되어 꼬이기 때문에 바디를 사용할 수 없어 타워도를 사용하여 일일이 위사를 타워해야 한다. 또한 익종광의 조직이 실제로는 대단히 복잡하여 계구에 어려움이 크기 때문에 제직에 시간이 많이 걸리고 비능률적이다.

고려시대 이후에는 제직이 번거롭고 생산이 더딘 4경익경의 라직물은 점차 쇠퇴되어 가고 새로운 사직물 제직기법의 도입과 더불어 2경익경과 3경익경의 사조직 직물의 생산이 증가되게 된다.

## 2) 3경익경과 2경익경 사조직직물의 제직

고려시대에 3경익경, 2경익경의 사조직의 직물이 많이 사용되고 4경익경의 직물은 조선시대에는 거의 단종 되다시피 하는데, 이는 4경익경의 라직기보다 좀 더 간편하게 제직할 수 있는 새로운 사직기의 도입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중국에서도 송, 원대 이후에는 사직물이 많이 사용되고 4경익경 라직물은 사용이 급격히 감소된 현상은 우리 나라와 같다.

2경익경과 3경익경의 직물이 많이 사용된 남송 시기에 루수가 그린 『경직도(耕織圖)』에는 익종광을 갖춘 문인기가 묘사되어 있다.

기본적인 문인기(드로우 룬)의 형태이나 다른 문인기와 다른 점은 직기의 전면에 종광 두 개가 연이어져 있는 것이 장치되어 있다는 것이다. 중국의 학자들은 이를 사조직을 제직할 수 있는 익종광으로 조사, 보고하였다.

실지로 남경 운금연구소, 항주 실크박물관 등에서 경직도상의 사직기(중국에서는 라직기라고 함)를 복원하여 2경익경 사직물과 3경익경 라직물을 제직 복원하고 있다.

여기에 장치된 익종광은 두 개의 종광 틀이 연이어져 있다. 각 각의 종광틀은 한 편의 기종(基綜)과 한 편의 반종(半綜)으로 구성되어 있다. 두 개의 종광틀은 일정한 범위내에서 상하운동을 할 수 있게끔 약간의 간격을 두고 연결되어 있다. 익종광은 보통종광과 조합하여 사용한다.

일완전 꼬임에 사용되는 개구에는 보통개구(普通開口, ordinary shed), 개방개구(開放開口, open shed), 꼬임개구(撚開口, crossed shed) 등이 있으며 이들의 개구를 적당히 조합하여 여러 가지 사직물, 변화사직물을 제직할 수 있다.

(그림-14)는 익종광과 보통종광을 조합하여 보통개구, 꼬임개구, 개방개구의 형성원리와 종광 끼우는 법(通法)을 설명한 것이다.

보통개구는 말 그대로 익종광은 조작하지 않고 보통종광인 지종광 1만을 들어올려 지경사를 인상시켜 만들어 지는 개구이다.

꼬임개구는 지종광은 조작하지 않고 익종광 만을 인상하여 만들어지는데, 익종광 1을 들어 올리면 반종 1에 끼워져 지경사의 좌측에 있던 익경사는 지경사의 오른쪽으로 이동하며 위로 들어 올려져 익개구를 형성한다. 즉 익경사는 지경사의 오른쪽으로 반꼬임이 되는 것이다.

개방개구는 지종광과 익종광을 모두 조작하여 만들어지는데, 지종광 2와 익종광 2를 함께 들어 올려 익경사를 들어올리는데 이때 실제로 개구작용을 하는 종광은 지종광 2이며 익종광은 반종 1에 끼워진 익경사가 들어 올려 질 수 있도록 높이를 맞추어 주는 역할만 하는 것이다.

여기에 무늬사직물을 제직하기 위하여 화루에 걸려있는 문종(Pattern shed)를 조작하여 무늬 익직물을 제직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직기는 바디를 사용할 수 있고, 종광의 조작도 용이하여 생산능률이 높아 고려시대이후에는 라의 생산은 줄고 사직물의 생산이 급증하였다고 본다.

우리 나라에는 사직기에 대한 자료가 거의 남아 있지 않지만, 당시 사, 라직물의 품종이 중국과 같고 송, 요, 원 등과의 기술적 교류관계의 빈번함을 볼 때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의 사직기의 형태도 이와 같은 형태였을 것으로 유추된다.

동아시아 각 국의 전통직물은 각국의 문화적인 특성에 따라 각기 변모되기는 하였으나 그 구조적인 특성은 거의 같으며 상호 교류속에 변화, 발전되어 온 기술사적인 측면을 볼 때 이러한 유추는 가능하다고 본다.

## 5. 결 론

한국 전통 사, 라직물을 문헌과 유물을 통하여 조사하고 그 종류, 조직, 제직 기술 등을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라가 문헌에 기록된 것은 삼국시대부터 이며 가장 많이 사용된 시기는 고려시대이다. 고려시대에는 소라, 분라, 힐염한 라, 자수한 라, 금박을 한 라 등 다양한 라의 종류가 사용되었다. 조선시대 라는 거의 향라의 종류이다.
2. 사가 문헌에 기록된 것은 삼국시대이며 가장 많이 사용된 시기는 조선시대이다. 삼국시대의 사는 평직의 방공사로 보며 고려시대에는 평직의 방공사와 2경익경의 익직물이 사로 혼용되었다고 본다. 조선시대의 사의 품종 대부분은 2경익경의 직물을 지칭하며, 그 중 추사 등은 평직의 측면직물을 말한다.

3. 사, 라직물의 소재는 견이 주로 사용되었으나 마(麻)로도 제작되었다.

4. 고대의 익조직은 라조직(망상의 라조직, 4경익경라조직), 3경익경 변화사조직, 2경익경의 사직, 여직, 혼합사조직, 2경익경에 봉취직으로 문양을 짠 부가문위사 위이중조직으로 분류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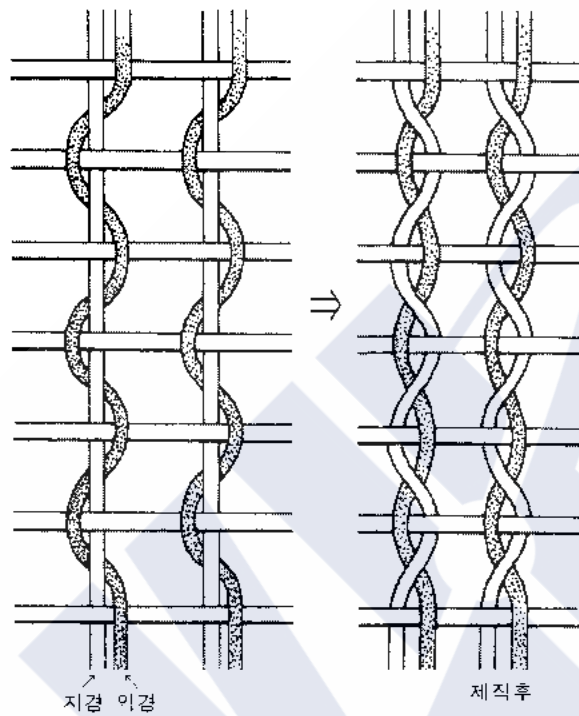
4경익경 라조직은 삼국시대와 고려시대 많이 사용되었고, 3경익경 변화사조직은 고려시대에 주로 사용되었으며 2경익경 사조직은 고려시대부터 사용되기 시작하여 조선시대에 대단히 많은 품종이 사용되었으며 현재까지도 몇 몇 품종은 전승되어 제작되고 있다.

본 문에서는 4경익경과 3경익경은 라로 분류하고 2경익경은 사로 분류하여 명명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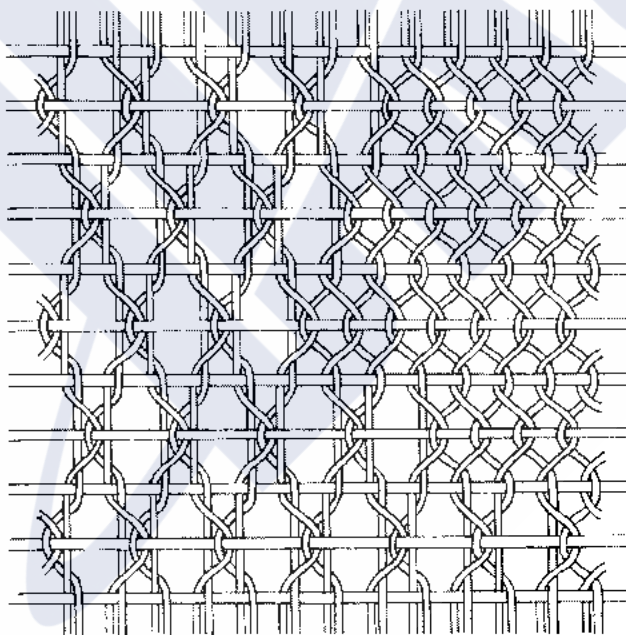
5. 사, 라직물은 경사를 좌, 우로 이동하면서 상하운동하는 익종광이라는 특수한 종광으로 제작하며, 4경익경은 좌익종, 우익종을 사용하고, 3경익경과 2경익경의 사조직 직물은 반종과 기종으로 이루어진 익종광으로 제작할 수 있다.

## 참 고 문 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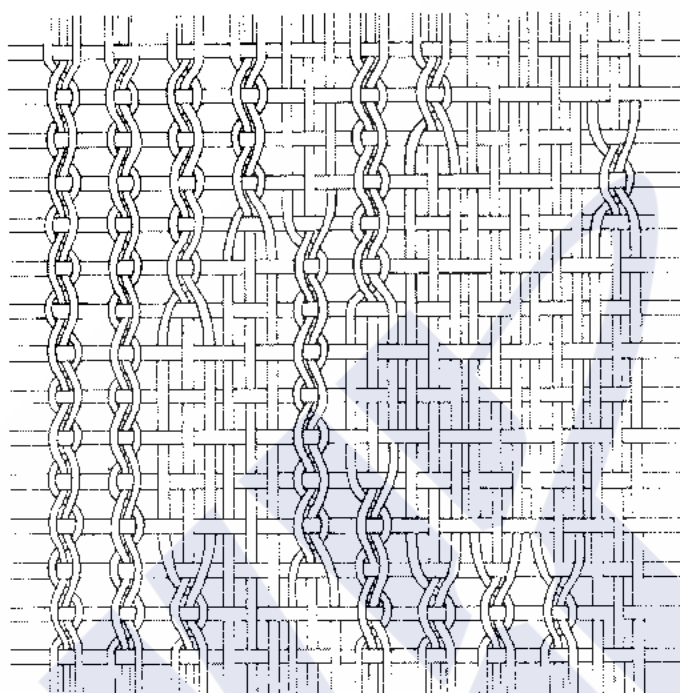
- 민길자, 『한국전통직물의 조직에 대한 고찰 Ⅲ-라, 사의 분류와 명명』, 국민대  
학교 교육논총 14권, 1994.
- 민길자, 『한국전통옷감』, 대원사, 1997.
- 민길자외4인, 『한국민속종합조사보고서(직물공예편)』, 문화재관리국 문화재연  
구소, 1991.
- 심연옥, 『조선시대의 직물연구』, 국민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1982.
- 심연옥, 『중국의 역대직물』, 한림원, 1998.
- 심연옥, 『중국역대문직물조직결구, 직조공예 및 직화기의 진전』, 중국동화대학  
교(구 중국방직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1995.
- 우범식, 『직물조직학』, 문운당, 1976.
- 趙豐, 『古代紗、羅織物 及 現代織物組織學的啓示』, 절강성사주공학원 제3권  
제4기, 1986.
- 張培高, 『중국고대직화기의 원리와 발전』, 중국방직대학연구생 졸업논문,  
1982.
- 佐々木信三郎, 『羅機私考』, 천도직물연구소보고(제4보), 昭和35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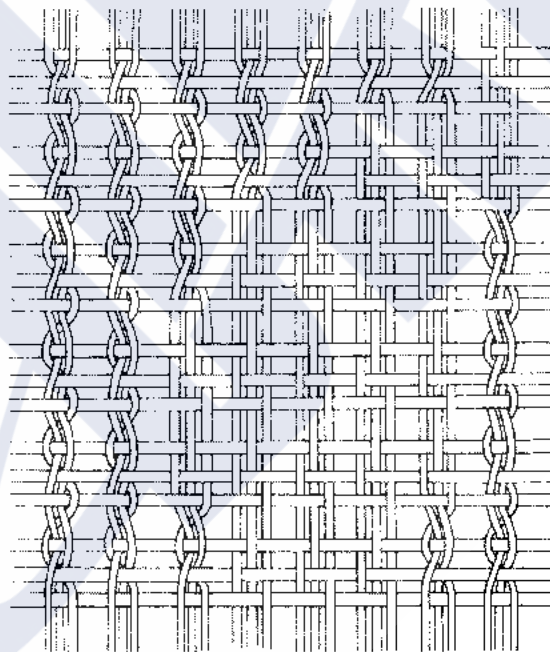
[그림-1] 지경과 익경의 꼬임 모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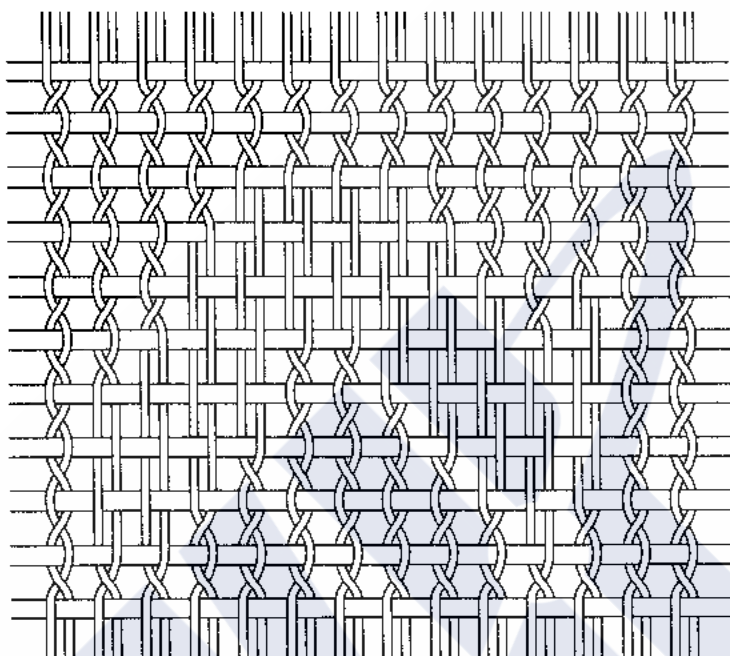
[그림-2] 4경 익경문라 조직 모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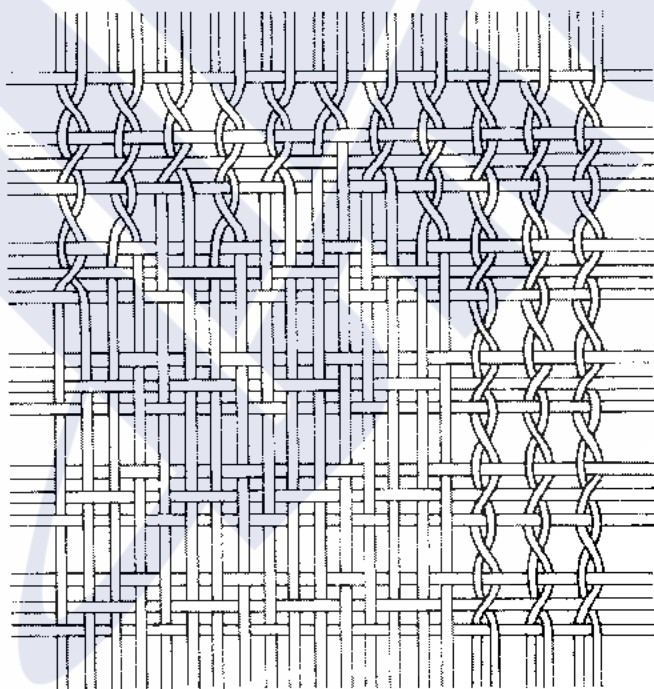
[그림-3] 3경 익경 변화사조직 유형 1 조직모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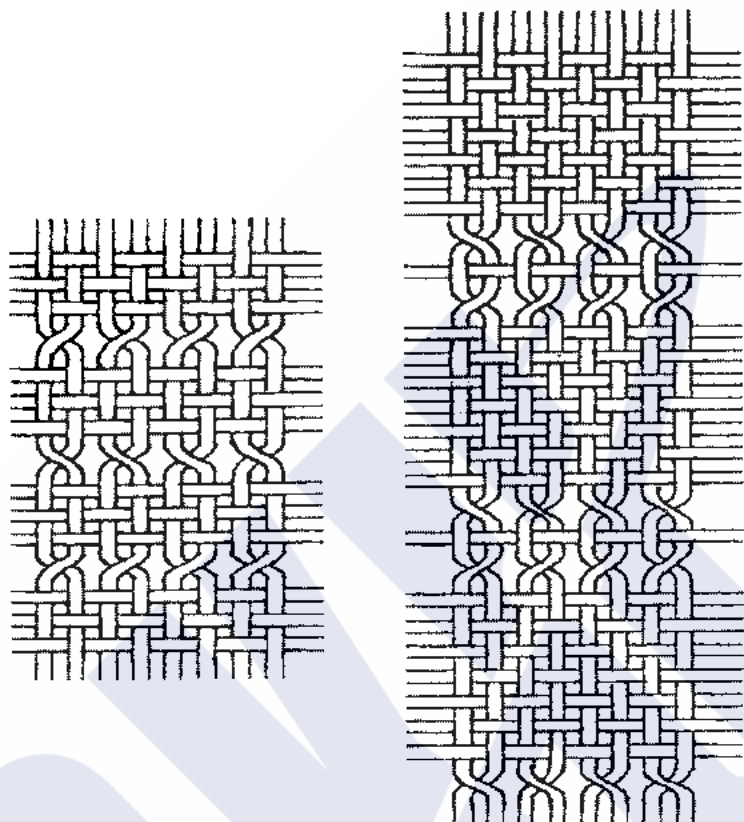
[그림-4] 3경 익경 변화사조직 유형 2 조직모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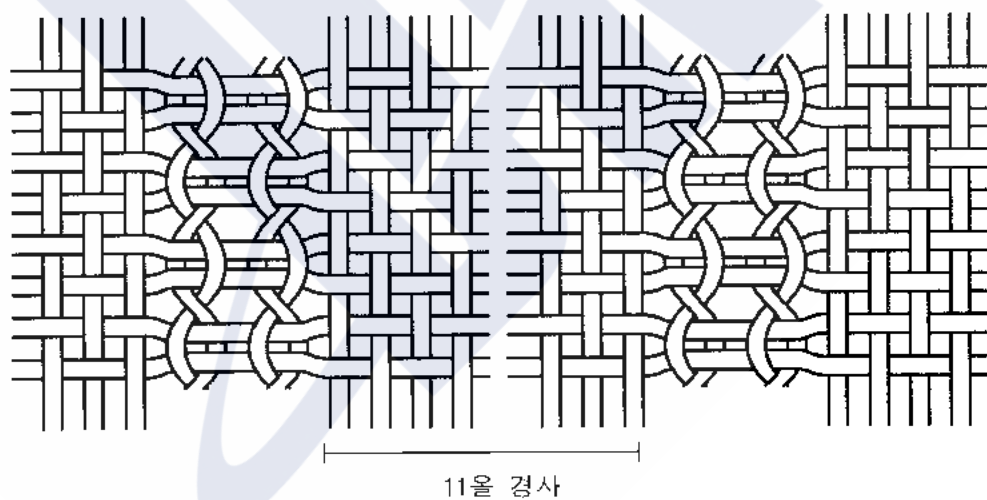
[그림-5] 2경 익경 문사 조직모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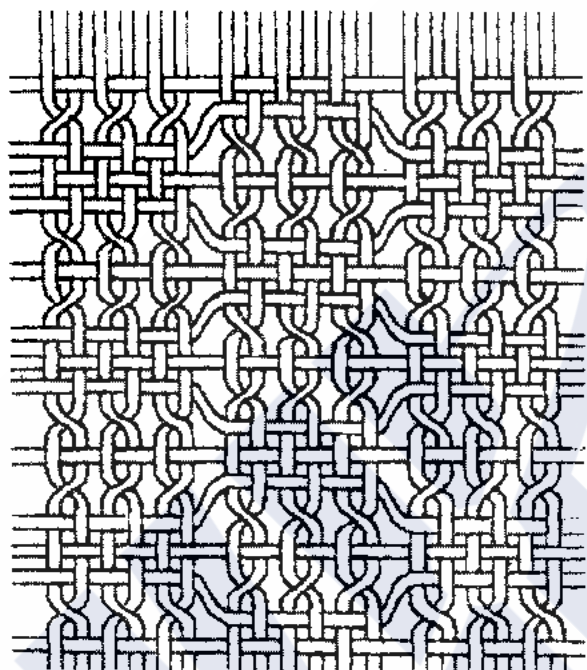
[그림-6] 2경 익경 고려시대문사 조직모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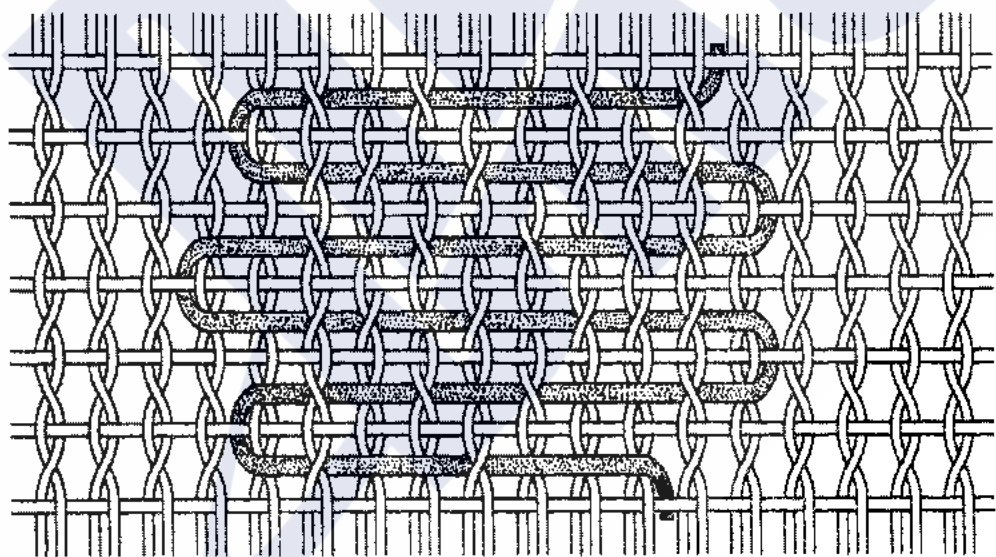
[그림-7] 항라 조직모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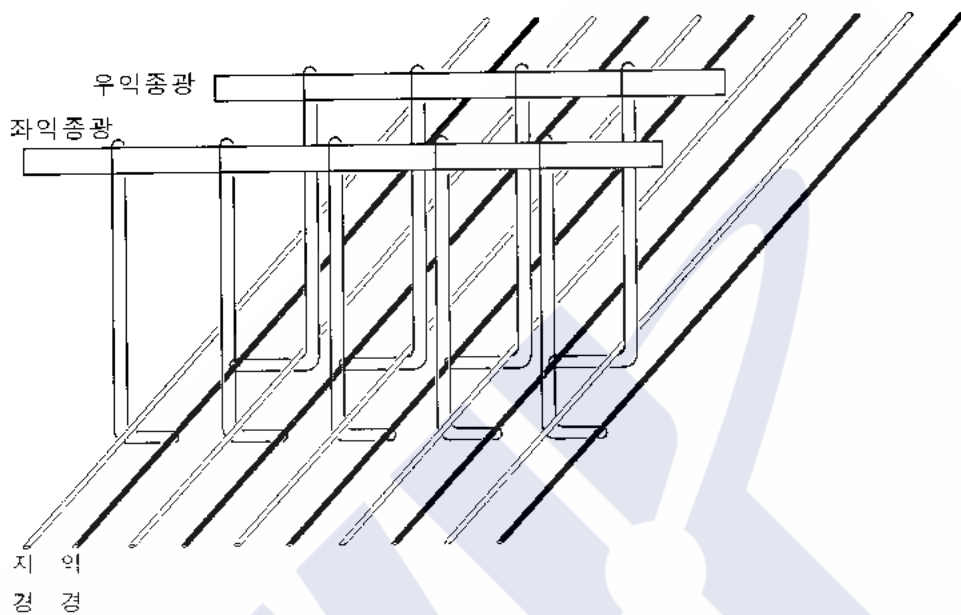
[그림-8] 종려 조직모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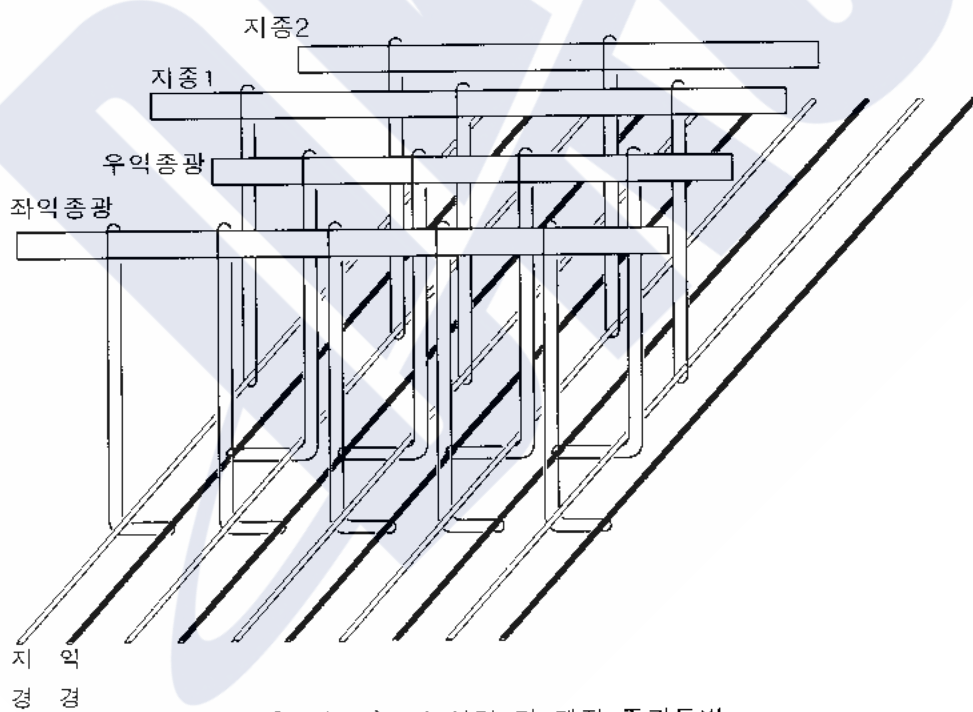
[그림-9] 갑사바닥(순인)의 조직모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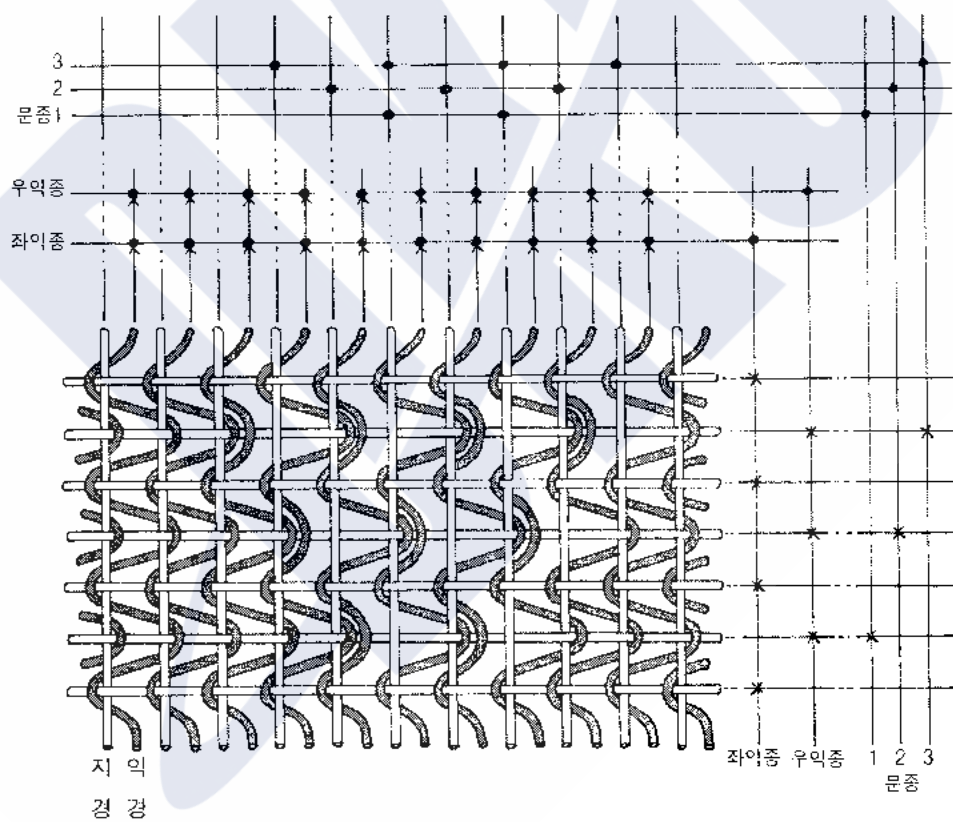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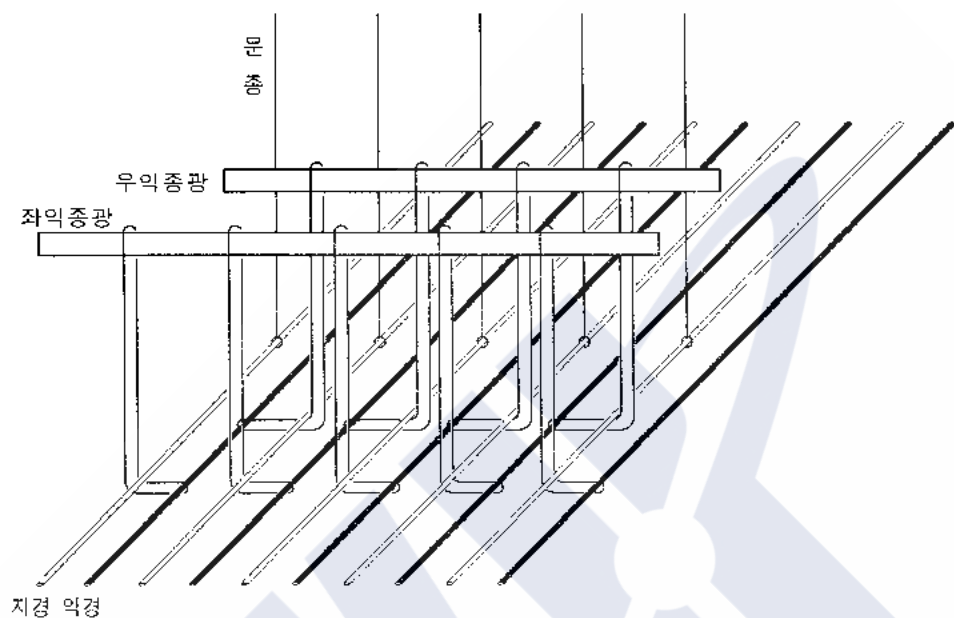
[그림-10] 봉취직 사의 조직모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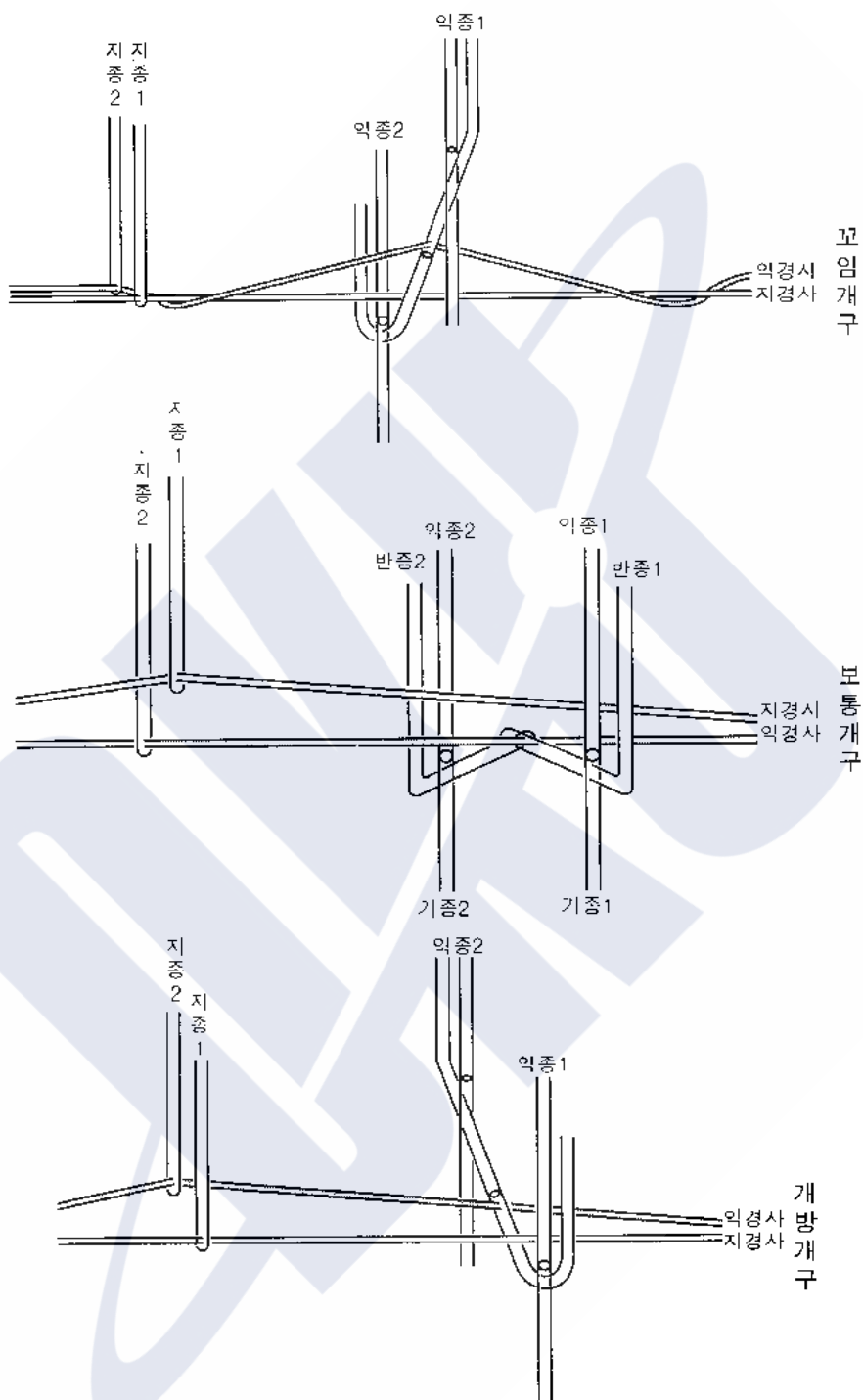
[그림-11] 라제직용 좌의종광과 우의종광



[그림-12] 4경 익경 라 제직 종광통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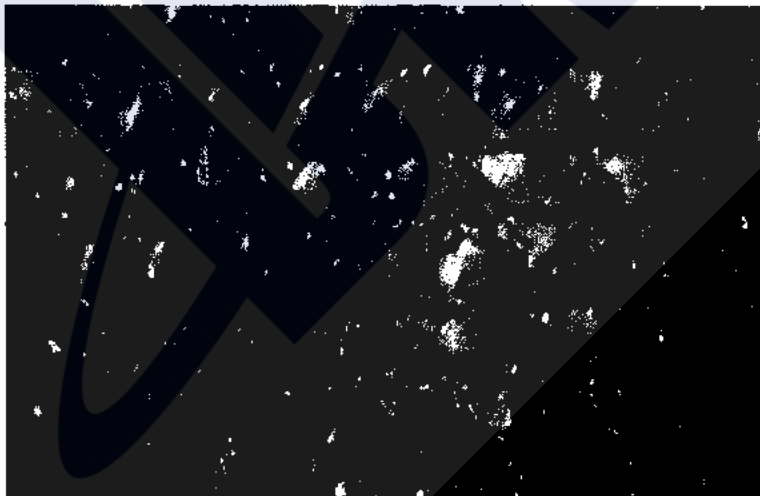
[그림-13] 4경의경 문라의 종광통법과 직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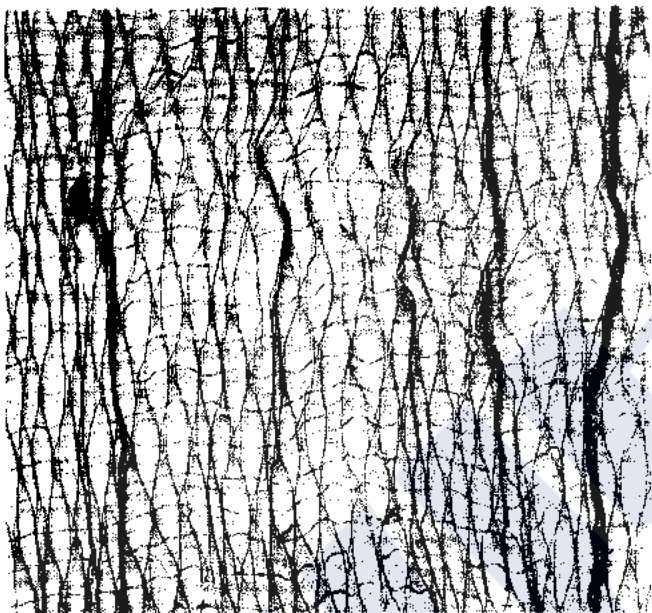
[그림-14] 포임개구, 보통개구, 개방개구의 형성원리와 종광통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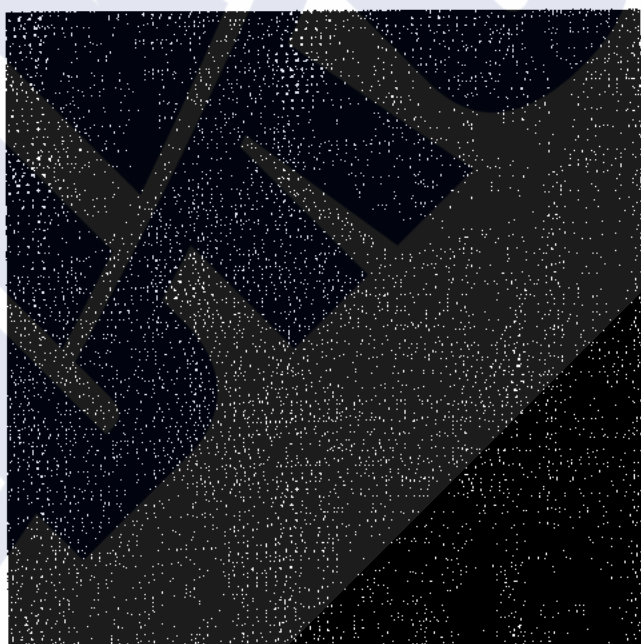
[사진-1] 백제의 모자사, 부여 능산리  
고분출토, 국립부여 문화재연구소 소장



[사진-2] 통일신라 시대의 4경익경 라, 불국사 석가탑,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사진-3] 고려시대 황색소라,  
온양민속박물관 소장



[사진-4] 고려시대 자색 소라,  
온양민속박물관 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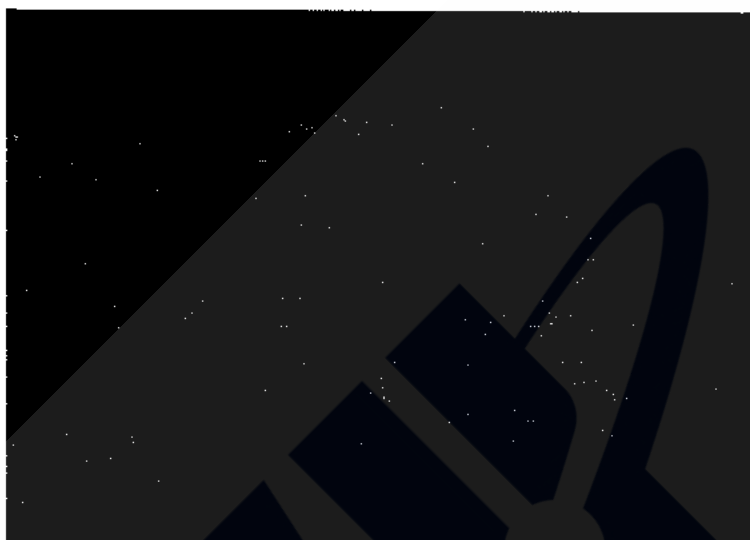
[사진-5] 고려시대 4경 익경 문라, 수덕사 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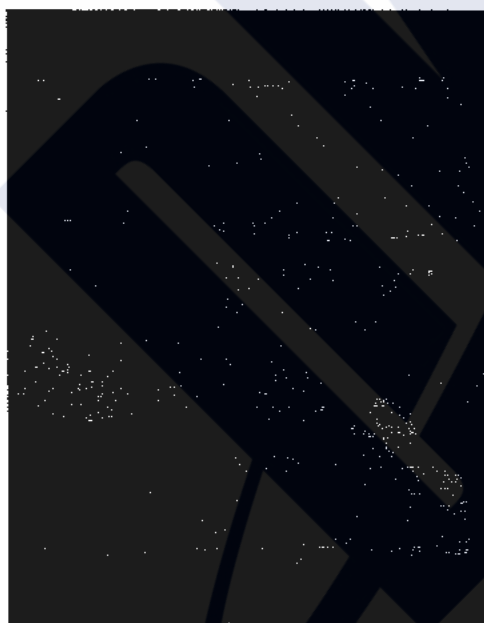
[사진-6] 고려시대 4경 악경 문라,  
온양민속박물관 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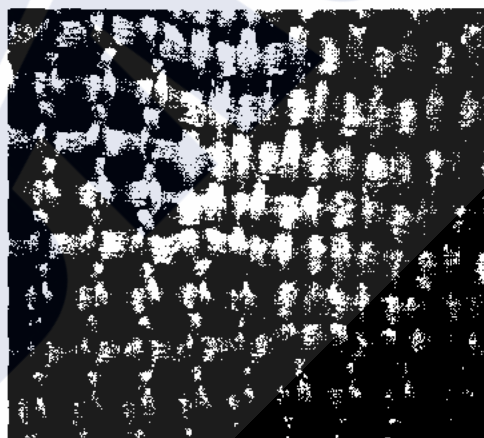
[사진-7] 고려시대 3경 익경 문라, 온양민속박물관 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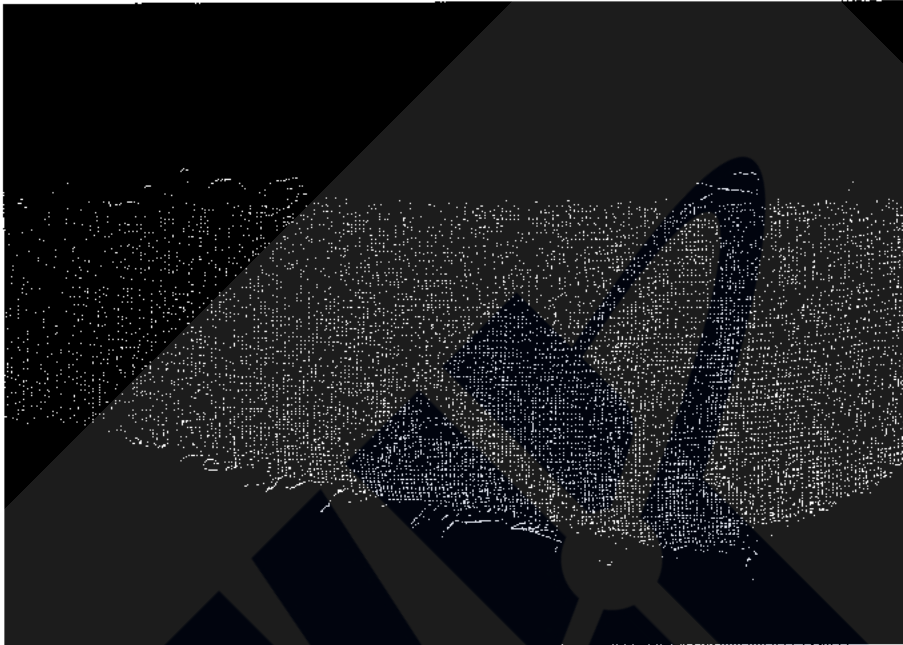
[사진-8] 고려시대 문사, 수덕사 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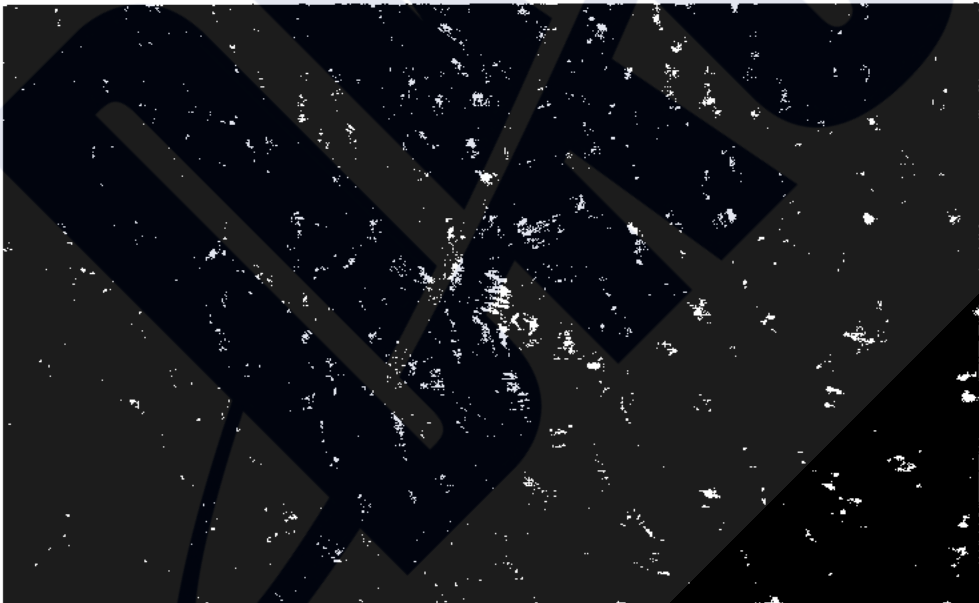
[사진-9] 조선시대 문사,  
고대직물연구소 소장



[사진-10] 사진9의 확대사진



[사진-11] 고려시대 문사, 온양민속박물관 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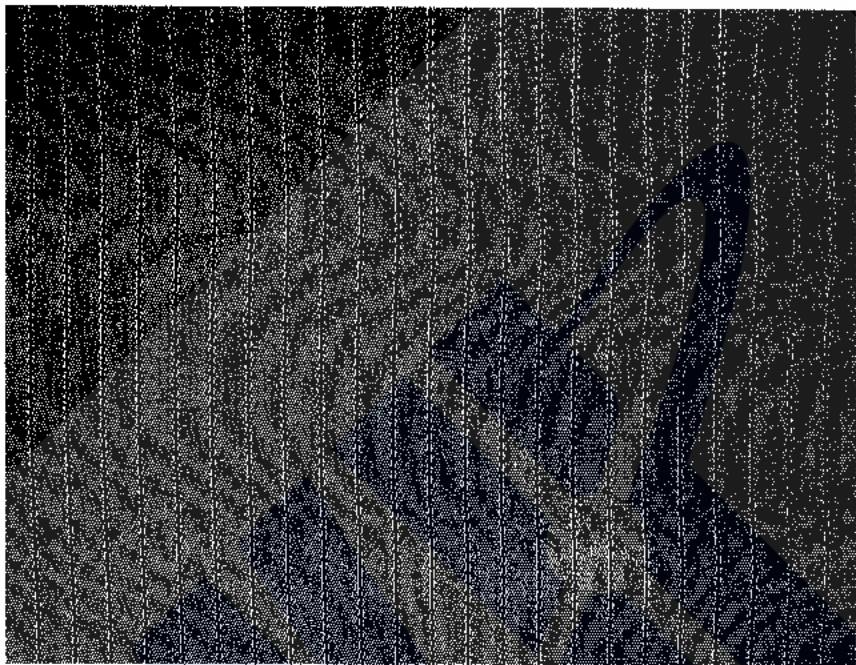
[사진-12] 사진11의 확대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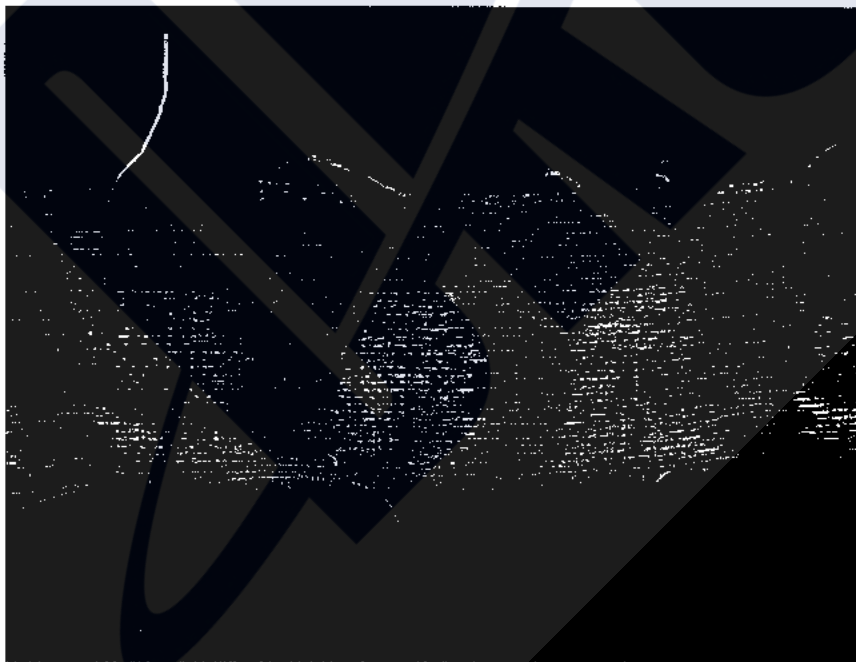
[사진-13] 도류불수문사, 은양민속박물관 소장



[사진-14] 수자호조문 숙고사, 총록대 박물관 소장



[사진-15] 조선시대의 종려, 온양민속박물관 소장



[사진-16] 고려시대의 금사(金紗), 수덕사 소장



# 遼代 견직물 袍의 圖案과 裁斷

자오 평



# 遼代 견직물 袍의 圖案과 裁斷

자오 평(趙豐, 중국 실크박물관 부관장)

## 1. 서 론

거란인의 건국전 복식 상황은 불분명하다.

『遼史』에는 “그물을 이용해서 새와 짐승을 잡고, 고기는 먹으며 가죽으로 는 옷을 만들고 신체를 가린다. 후에 와서야 의복을 사용했으며 여름에는 갈을 쓰고 겨울에는 가죽옷을 썼다”고 하였다.

요(遼) 태종(927-947)에 이르러 의복의 세도가 정해졌으며, 주로 남북 양종(兩種)제도를 채택하였다. 『契丹國志』중 “국모와 거란인은 모두 호복을 착용하나, 國主와 漢人관리는 漢服을 입는다” 라고 기록되어 있어 요대 복식에는 두 가지의 복식제도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점은 요대 묘의 벽화에서도 볼 수 있다.

본 고에서는 주로 거란인의 복식 즉 국복(國服)에 대하여 논하고자 한다.

『遼史』등의 자료에서 볼 때, 당시의 국복은 6가지가 있었다.

제복(祭服)은 산천에 제사를 지낼 때 입는 것이고; 조복(朝服), 공복(公服)은 조례에 참가하거나 공무를 볼 때 입는 것이며; 상복(常服)은 일상 생활용으로 착용한 것이며; 전렵복(田獵服)은 사냥시에 착용한 것이며; 조복(吊服)은 상복(喪服)이다.

문헌상의 기록만으로 이러한 복식의 구체적인 형태와 제도를 알기는 어렵다. 그러므로 본 고에서는 출토된 복식유품과 벽화 자료 등을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그 중 특히 장포(長袍)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거란복식은 남녀복식의 구별이 크지 않아 본문에서는 이 문제는 언급하지 않는다.

## 2. 포(袍)의 분류

『遼史』에 기재된 자료(史料)중에는 요대 관복(官服)중 많은 포(袍)의 명칭이 기재되어 있다. 예를 들어 황제는 백능포(白綾袍), 극사포(克絲袍), 락봉홍포(絡縫紅袍), 금포(錦袍), 자작포(紫窄袍) 등을 입었으며, 백관은 자작포(紫窄袍)와 녹화작포(綠花窄袍) 등을 입었다. 여기의 각종 관복은 모두 포(袍)이다.

요대 포의 길이는 일반적으로 150~160cm 정도이며, 모두 좌임이다. 이것은 북방 소수민족복식의 한 특징으로 일찍이 동호족(東胡族)의 시기에 중국의 북방 소수민족은 좌임을 입었다. 포(袍)는 또한 소매형태, 깃의 모양, 하단(下擺) 등의 요소로도 구별될 수 있다.(도 1)

### 1) 원령결과포(圓領缺膀袍-長窄袖, 圓領, 後缺膀)

이것은 대표적인 결과포(缺膀袍)의 형식이다. 길이는 일반적으로 150~

160cm 정도이며, 소매길이는 110~120cm. 특징은 좌임, 원령, 좁은소매(窄袖), 트임(缺膀) 등이다.

장포(長袍)의 前面襟은 우측을 향해 놓인 것과 좌측을 향해 놓인 양편으로 되어있으며 좌측을 향한 것이 밖으로 여며져 外襟이라 하고 우측은 안으로 여며져 里襟이라 한다. 이것이 곧 좌임이다.

外襟과 里襟의 상단(上端)은 다른 형태이다. 里襟의 상단은 사직령(斜直領)이며 領의 下段과 오른쪽 가슴 앞부분 겨드랑이 아래 외금 안쪽의 단추 구멍과 만난다. 외금 상단은 원령으로 만들고 일반적으로 2개의 단추 구멍이 있는데, 하나는 단 제일 위쪽의 목 왼쪽 뒷부분에 있으며 다른 하나는 왼쪽 가슴 앞쪽 겨드랑이 아래에 위치하여 里襟 바깥쪽의 단추 구멍과 만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원령(圓領)이다.

이런 종류의 원령은 요대 벽화 중에서 많이 볼 수 있는데 대부분의 그림에서 깃이 아주 낮게 그려져 안쪽의 의복을 볼 수 있게 되어있다. 내몽고 고륜(庫倫) 벽화묘에 묘사된 앉아 있는 사람은 원령을 풀고 휴식을 취하고 있는데, 원령을 풀었을 때의 형상을 볼 수 있는 유일한 그림이다.(도 2)

결과포(缺膀袍)의 긴 소매는 길이가 110cm 정도 또는 그보다 길며 일반적으로 손끝을 넘는다. 겨울에 방한을 위한 것일 수도 있으나 벽화중 대다수 인물의 손이 밖으로 노출되어 있고, 소매의 접은 자리가 특별히 많은 것을 볼 때, 이것은 거란인이 포를 입을 때 일반적으로 소매를 걷어올려 입었다는 것을 설명한다.

결과포(缺膀袍)의 가장 큰 특징은 트임(缺膀)으로써 포의 뒤쪽 하단의 중간, 양 다리사이에 트임을 준 것이다. 이런 종류의 결과포의 방식은 북조(北朝)시기에 시작되었으며 주로 말을 타기 편리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당대(唐代)에 이르러서는 사서(史書)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당대중 시기(627-649)에는 결과포가 서민에 이르기까지 착용되었다. 나중에

는 당대 복식중의 주요 형태의 하나로 자리잡게 되었다.

요대의 결과포는 뒤쪽 하단 가운데에 트임이 있고, 트임의 길이는 80cm 정도이며 각 착용자의 상황이 다른 것을 고려해서 트임의 좌, 우에 각각 2개의 사다리꼴 조각을 태워서 트임이 벌어져도 가려주는 역할을 한다. 이것은 출토된 요대의 포중에서 일반적으로 볼 수 있으나 벽화에는 별로 묘사되지 않았으며 파림좌기(巴林左旗)의 벽화 중에서만 볼 수 있을 뿐이다.

## 2) 원령개차포(圓領開衩袍, 長袖, 圓領, 側開衩)

일반적으로 사료(史料)중의 결과포(缺胯袍)를 포의 하단 양측이 벌려진 포라고 알려져 있지만, 사실상 진정한 의미의 결과포(缺胯袍)는 위에서 제시한 결과포 한 종류이며, 다른 하나 즉 양측면에서 트임을 준 포는 개차포(開衩袍)라고 부를 수 있다. 이것은 또한 일종의 착수원령포(窄袖圓領袍)로 위의 결과포와 크게 다른 점이 없으며 다만 포의 뒷부분이 막혀있고 양 측면에 트임을 준 것이 다른 점이다. 일반적으로 트임의 길이는 80cm 정도이다.(도 1-2)

당대 사료중에 차의(袷衣)에 관한 기록으로는 王建의 『宮詞』에 “每到日中重掠鬢, 袷衣騎馬繞宮廊”라는 기록이 있다.

요대 묘의 벽화중에 볼 수 있는 개차포(開衩袍)의 형태는 단지 양측에 벌림이 있는 양측개차(兩側開衩)이며, 항상 앞쪽이 올라가 있어서 앞의 의삼(衣衫) 하단이 노출되어 있다. 이런 종류의 포 실물은 야율우(耶律羽)의 묘에서 출토된 안함수대포(雁銜綬帶袍)가 있다.

## 3) 교령관파포(交領寬擺袍, 長袖, 交領, 不開衩)

비교적 드문 형태의 포가 요대 초기 묘에서 출토되었다. 代欽他拉묘에서 출토된 두가지 예가 있다. 이것은 좌임의 교령(交領)이며, 그 外襟과 里襟은 모두 사직령이다. 外襟은 왼쪽 가슴 겨드랑이 아래쪽에 연결되도록 되어있고, 里

襟은 오른쪽 가슴 겨드랑이 아래쪽에서 연결되게 되어있다. 그 하단은 결과(缺膀)도 개차(開衩)도 아니며 다만 분명한 것은 특히 크다는 것이다. 간칭하여 교령포(交領袍)라고 부를 수 있다.(도 1-3)

#### 4) 교령결과포(交領缺膀袍, 長袖, 交領, 缺膀)

결과포중 교령(交領)을 사용한 것으로 기타 다른 부분은 모두 원령결과포(圓領缺膀袍)와 같다. 야율우(耶律羽)의 묘에서는 반조문능으로 만든 교령결과포가 출토되었다. 역시 좁은 긴소매이나, 교령 아래를 끈으로 묶어주는 방법으로 매우 드문 형태이다.(도 1-4)

#### 5) 단수결과포(短袖缺膀袍, 短袖, 交領, 後缺膀)

단수(短袖)의 소매길이는 보통 80~100cm로 직물 두 폭의 너비이며, 소매 넓이는 약 30~35cm 이다. 좌임교령으로 아랫단 뒷면에 트임이 있는 결과포(缺膀袍)이다.(도 1-5) 양측면에 트임이 있는 측개차(側開衩)의 형태도 있었을 것이나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

이러한 포는 야율우의 묘에서 적지 않게 출토되었는데, 주로 능(綾)을 옷감으로 사용하였다. 런던에 소장된 것 중에는 금(錦)으로 만든 것도 볼 수 있으나 트임의 여부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 이런 단수포는 내의(內衣)로 입을 수 있으며 또한 겉옷으로 입을 수도 있다.

| 領型 | 開衩  | 袖型 | 扣型   | 單夾 | 襟型 |
|----|-----|----|------|----|----|
| 圓領 | 缺膀  | 長  | 扣    | 夾  | 縮  |
| 圓領 | 缺膀  | 短  | 扣    | 夾  | 縮  |
| 圓領 | 側開  | 長  | 扣    | 夾  | 縮  |
| 交領 | 缺膀  | 長  | 扣, 帶 | 夾  | 縮  |
| 交領 | 側開衩 | 短  | 扣    | 夾  | 縮  |
| 交領 | 不開衩 | 長  | 扣    | 夾  | 縮  |

### 3. 遼代 袍의 재단과 봉제(縫制)

#### 1) 재단

중국 고대 의복형식은 모두 직물의 규격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의복의 수요(需要)는 직물의 기본 규격을 결정하고, 동시에 의복의 기본 재단 방법을 결정한다. 요대 견직물의 일반적인 폭 너비는 50cm 정도로 주요 재단 방법은 대폭식(對幅式)과 중폭식(中幅式)의 두 가지가 사용되었다.

요대 포의 주요 재단 방법은 대폭식(對幅式)으로 이는 두 폭의 직물을 대칭으로 잇대어 포의 주요 부분을 만든다. 직물 한 폭의 너비가 50cm 정도 이므로 두 폭의 직물은 곧 포 뒷 몸판의 큰 부분을 만들 수 있고 소매는 다만 50cm 정도까지만 만들 수 있으므로 소매부리는 다른 천을 덧대어 만든다.

포의 앞부분에서는 두 폭의 직물이 각 각 外襟과 里襟의 반을 만들고 여기에 다시 반을 좌, 우에 대 주어야 와금과 이금이 완성된다. 좌측을 향해 놓인 한쪽이 外襟으로 이는 바로 좌임을 의미한다. 이때 왼쪽 가슴 바깥쪽에 있는 단추는 外襟의 단추와 끼워지고, 오른쪽 가슴 안쪽의 단추는 里襟의 단추구멍과 끼워진다.(도 3)

포의 길이를 150cm로 계산할 때 한 벌의 포를 만드는데 소요되는 직물의 길이는 약 7.5~8m이다.

교령포와 원령포를 만드는 방법에는 큰 차이가 없다. 만약 단수(短袖)로 만든다면 소매에 소매부리를 다시 대줄 필요가 없을 뿐이며 전체 옷의 주요 부분은 모두 같다.

그 외 볼 수 있는 요대 포의 재단 방법은 중폭식(中幅式)이다. 이것은 한 폭의 직물을 의복의 중간에 배치한 후 다시 양변으로 전개해 나가는 형식이다. 이런 재단 방법은 많이 사용되지는 않았으나, 주요한 점은 특수한 도안의 직물

이 재단에 의해 잘리지 않게 된다는 점이다.

## 2) 봉제(縫制)

바느질은 의복의 겹에 따라 그 방법이 다르다. 홑겹의 포는 한 층의 직물을 사용해 만들며 재단된 부분 부분을 이어서 바느질한다. 그러나 바느질 후 일반적으로 가장자리의 부분이 곱지 않으므로, 직물 변이 이어지는 곳은 약간 안으로 집어 넣은 후 바느질한다.

겹으로 된 포는 겹감과 안감으로 구성되며 두 가지 방법으로 만들 수 있다. 하나는 먼저 겹감과 겹감을 바느질하고 안감과 안감을 바느질하여, 따로따로 만들어진 의복의 겹과 안을 다시 바느질하는 방법이고, 두 번째 방법은 먼저 각 부분의 겹감과 안감을 먼저 바느질하고 다시 조각 조각을 연결하여 직접 의복을 완성하는 것이다.

유물 중 몇 점의 綿袍는 4겹의 직물로 구성되어 있다. 제일 바깥층은 정식 겹감이고 겹감 아래에는 견(絹)을 받쳐서 바느질하여 완전한 옷감을 만들었다. 안쪽에는 안감이 있고 가운데에는 솜을 두었다.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당시 포의 바느질은 매우 정교했음을 알 수 있다.

## 4. 遼代 重要 絹袍 實例

근래의 요대 고고학적 발굴에서 다량의 거란인의 포가 발견되었다. 그중 매우 특수한 몇 가지 대형 도안이 있다. 예를 들면 단공작(團孔雀), 반봉(盤鳳), 대안(對雁), 분녹(奔鹿) 등으로 황족(皇族), 고관(高官)들이 사용한 전문도안이다.

이러한 포는 도안설계에 있어서 직물제직과, 의복의 재단을 모두 고려한 정

교한 설계가 필요하다. 그 도안은 종종 의복의 형태와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직성면료(織成面料)'라고 부를 수 있다.

당시의 직물을 살펴볼 때 대형도안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한 폭 안에 좌우대칭의 도안이 있는 것으로 중폭식(中幅式)의 재단방법에 적합하다. 일반적으로 모두 결과포를 만드는데 사용하는데 그 이유는 트임을 도안의 중심축이 있는 곳에서 가를 수 있기 때문이다.

다른 하나는 한 폭의 직물안에 한쪽으로 향한 비대칭의 것으로 대칭으로 만들려고 하면 두 폭의 직물이 필요하다. 따라서 대다수가 대폭식(對幅式) 재단방법을 이용한다. 대폭식은 일반적으로 결과포에는 부적합하며 개차포(開衩袍) 또는 불개차포(不開衩袍)를 만드는데 쓰인다.

하나의 원형도안 또는 기타 형식의 대칭도안은 대개 중폭식 재단방법을 이용하여 중심도안이 그대로 유지되도록 한다. 두 가지 도안은 또한 경사 방향 순환에 근거하여 일단식(一段式), 이단식(二段式), 다단식(多段式)의 3종으로 구분할 수 있다.

#### 1) 보통식 대폭식(普通式對幅式)재단 ; 中窠雜花對鳳洩金銀錦袍

한 폭의 직물에 2개 또는 2개이상의 순환되는 도안이 있을 때 이러한 도안은 일반적으로 방향성과 사방연속, 상하좌우가 꼭 균일하지는 않다. 따라서 보통식 재단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보통식 재단은 비록 규정은 없으나 결과포(缺勝袍)와 개차포(開衩袍)를 막론하고 대개 대폭식 재단방법을 쓴다. 왜냐하면 이것은 직물과 의복의 관계상 가장 적합한 방법이기 때문이다.(도. 3참조)

반조문능의 원령결과포(圓領缺勝袍)를 예로 들어 설명하면, 한 폭에 2개 도안이 순환하며 사방연속인 반조문능을 재료로 하였다. 능의 왼쪽 부분과 앞쪽 里襟의 큰부분(大襟), 능의 오른쪽과 앞쪽 外襟의 큰부분(大襟) 등 주요한 부분은 전 폭의 능(綾)으로 재단해 만들었으며, 바이어스 재단으로 두 조각의 小

襟을 만들었고, 목둘레와 소매의 팔꿈치 부분을 만들었다. 포의 앞면과 뒷면의 가운데 맞닿은 바느질선 있는 곳의 도안이 꼭 맞게 대칭을 이루지는 않아 정교한 재단이라고는 할 수 없다.

직물의 도안에 방향성이 있으면 직물을 잘 때 반드시 고려해야만 한다. 야율우의 묘에서 출토된 중과잡화대봉장금은금(中窠雜花對鳳妝金銀錦)으로 만든 금포(錦袍)는 완전한 한 예이다. 조직의 바닥은 오매 주자조직 위이중직(五枚綴紋緯二重織)으로 단과문을 만들고, 거기에 연금사와 연운사를 사용하여 봉취직의 방법으로 단과내에 대봉(對鳳)무늬를 짜 넣었다. 즉 일종의 장화(妝花)직물이다.

포의 형식은 좌임반령(左衽盤領)이며 총길이 1.5m, 通袖길이 2.2m이다. 좁은 소매이며 겨드랑이 아래부터 소매부리까지의 길이는 75cm, 소매부리 너비는 15cm, 하단 총 너비는 1.15m이다. 트임의 높이는 63.5cm로 그 안에 사다리꼴의 두 조각의 금(錦)을 대어서 벌림을 가려주도록 되어있다. 깃의 너비는 약 10cm로 里襟은 사선으로 놓이며 前襟을 둘러싸고 목의 왼쪽 후면에 닿는다. 깃 끝에는 단추가 있고 뒤쪽에는 단추고리가 있어서 서로 만난다.

직물의 과문(窠紋)도안의 직경은 15cm로 비교적 작아서 포를 재단할 때 도안의 위치는 비교적 자유롭게 배치할 수 있다.

포의 뒷편 좌측과 앞쪽의 里襟이 같이 연결되고 뒷편 오른쪽과 앞쪽의 외금도 연결된다. 직물을 잘 때에는 앞 뒷면의 도안이 정향(正向)이 되게 하였다. 어깨 부분의 봉합선은 볼 수 없다. 이것은 당시에 작은 도안을 사용하여 의복을 만들 때 다만 일정한 방향성을 맞추는 것이 요구되며, 직조와 재단의 관계는 이미 제작시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 2) 이단식 대폭식(二段式對幅式)재단 ; 云山瑞鹿銜綬綾袍

중폭식 재단중 제일 많이 볼 수 있는 것은 이단식(二段式)으로 이러한 것은

야울우의 묘에서 많이 출토되었다. 제일 전형적인 것은 운산녹함수능포(云山鹿  
銜綬綾袍)이다.

한 폭 직물의 도안은 리본을 물고 달리는 사슴과 운산(云山)으로 위향(緯  
向) 순환은 전폭이며 경향(經向)의 높이는 68cm이다. 두 도안간의 사이는 약  
5~10cm로 전체 도안의 경향 순환은 75cm이다. 복원후 포의 길이는  
150cm로 경향 순환 두 번에 해당한다.

복원한 능포(綾袍)를 볼 때 등쪽의 중심축 양변의 도안은 엄격한 대칭을 이  
루지만 전면의 里襟와 外襟은 하나의 완전한 사슴으로 되어있다. 그러나 小襟  
의 사슴은 완전하지 않으며 大襟의 사슴과 같은 방향으로 미관상 좋지 않다.  
이것은 결과포의 형식으로 뒤의 벌림을 준 곳에는 80cm 길이의 무늬 없는 소  
능(小綾)을 덧 대었다. 위는 좁으며 아래는 넓어 위는 14cm, 아래는 30cm  
이다. 그 외 능포(綾袍)의 소매와 깃 부분 역시 무늬가 없는 것으로 미루어 능  
직에는 비교적 큰 면적의 무늬없는 부분이 있어 이를 깃, 소매 등에 사용했음  
을 알 수 있다.

직물의 도안이 비교적 크고 깃과 소매의 면적은 작아서 만약 도안을 자른다면  
미관상 좋지 않기 때문이다. 포의 가슴부분의 넓이는 70cm, 하단은  
100cm 정도이다. (도 4)

### 3) 일단식 대폭식(一段式對幅式)재단 ; 花樹獅鳥織成綾袍

일단식 대폭식재단은 비록 한 점만 발견되었지만, 이것은 매우 특수한 일 예  
이다. 耶律羽의 묘에서 출토된 것으로 화수사조직성능포(花樹獅鳥織成綾袍)라  
고 명명하였다.

이 능(綾)은 10여 편의 잔편이 발견되었고 조합 작업을 거쳐 포 본래의 형  
태와 기본 도안을 복원하였다. 능포(綾袍)의 형태는 반령좌임착수(盤領左衽窄  
袖)로 길이 150cm, 가슴둘레 70cm, 하단 100cm 정도로 소매는 착수이다.

이 의복은 소능(素綾) 잔편이 비교적 많이 남아있어 결과교차(缺膀交叉)조각에 쓰인 것이라 추측된다.

의복의 제일 중요한 부분은 도안으로 이것은 일종의 '직성식(織成式)' 직물이라 할 수 있다. 도안은 경향(經向)으로 124cm이며 만약 도안과 도안 사이의 간격을 더한다면 150cm에 달하며 緯向으로는 36cm이며 직물폭은 46cm이다.

도안은 직물변에 연결하는 石榴花를 주된 가지로 하여 나뭇가지에는 3마리의 새가 앉아 있으며 이것은 꿩(鷓鴣) 종류와 유사하다. 나무아래에는 사자 한 마리가 있으며 발 한쪽을 수구(繡球)위에 올려놓고 있다. 도안의 다른 한쪽 반은 이미 잔편이 되어서 복원하기가 힘들었으나 부분 잔편으로 부터 추정하면 양변의 형상은 거의 일치한다. 도안이 비교적 좁고 문양은 상대적으로 간단하며 새 한 마리가 있을 뿐 사자는 없다. 그러므로 사자가 있는 큰 도안은 大襟을 만들기 위해 설계한 것이고, 사자가 없는 작은 도안은 小襟을 만들기 위한 것임을 알 수 있다.

포의 뒷면은 모두 대금도안을 사용하고, 소매부분은 소금도안을 사용하여 포의 앞뒤가 모두 완전한 도안이 된다.(도 5)

이러한 완전한 도안의 설계는 새로운 형식의 설계임에 틀림없다. 그 도안은 의복 형태의 요구에 따라 설계되었으므로 직물 제직후 의복구성시 재단은 매우 편리하다. 따라서 이러한 포를 '직성포(織成袍)'라 부를 수 있다. 이 또한 우리가 볼 수 있는 제일 빠른 시기의 직성포(織成袍)의 형식이다. 이 직물의 도안 순환은 240cm이상이며 이제까지 발견된 가장 이른 시기의 가장 큰 일순환 직물도안이다.

#### 4) 다단식 대폭식(多段式對幅式)재단 ; 大雁綾袍

다단식 대폭식재단 방법과 이단식은 기본상 같다. 그 실례의 하나가 耶律羽

의 묘에서 출토된 대안능포(大雁綾袍)로써 교령좌임결과포(交領左衽缺膀袍)이다. 직물에는 기러기가 줄지어 있고 기타 배경은 없으며 기러기의 길이는 35cm, 너비는 30cm정도이다. 기러기는 좌향, 우향의 두 종류로 머리쪽을 꼭 가장자리로 두고있으며 기러기 뒷부분은 이미 재단에 의해 잘려 나갔다. 기러기와 다음 기러기 사이의 거리는 15cm정도로 계산에 의하면 한 벌의 포 길이 방향으로 3조의 기러기를 배치할 수 있다. 그 외 발견된 소매 조각을 살펴보면 여기에도 기러기 문양이 있음을 알 수 있으며, 1마리를 소매 하나로 만들었고 가로 방향으로 배치했다. 출토 시 결과포를 만드는 교차편(交叉片)은 발견되지 않았으나 당시 다량으로 출토된 같은 종류의 포에 근거하여 볼 때 이 포는 결과포임에 틀림없다. (도 6)

##### 5) 관파무차 중폭식(寬擺無衩中幅式)재단 ; 雁銜綬帶紋錦袍

앞서 언급한 寬擺式窄袖袍는 代欽他拉 묘에서 출토된 것이다. 그 중 두벌의 錦袍는 모두 이 방법에 의해 재단되었다. 雁銜綬帶紋錦袍는 제일 전형적인 것이다. 雁銜綬帶紋錦의 기본 조직은 오매 주자직 위이중직(五枚綴紋緯二重)으로 7가지 색채이다. 도안은 크며 수대를 물고 있는 한 쌍의 기러기는 매우 아름답다. 위향 70cm, 경향 40cm이며 기러기 사이의 간격은 4~5cm로 이러한 147cm에 이르는 포에는 3쌍의 기러기를 배치할 수 있으나 공간이 생긴다. 그러므로 바느질할 때 변화된 방법을 사용했는데 포의 앞부분의 外襟과 里襟에는 각각 3쌍의 기러기를 썼고 어깨 부분에는 잔편을 사용해 연결했다.

그러나 등부분은 전체 부분이기 때문에 재단시 모두 4쌍의 기러기를 써야 하지만 4쌍의 완전한 순환의 기러기는 너무 길기 때문에 바느질시 뒷부분 기러기 간의 사이를 잘라내고 바느질을 하였다. 바느질후 도안은 기본상 완전하다.

단의 너비가 넓기 때문에 포 하단의 측면에도 큰 부분이 밖으로 나오게 된다. 그러므로 이 부분은 바느질할 때 역시 완전한 기러기를 배치했다. 하단 삼

각형 부분에 두 쌍을 배치했는데 각각 기러기 한 마리만 썼고 비교적 완전하다. 소매 부분에도 앞과 뒤에 역시 각 한 쌍의 기러기로 배치하였으며 기러기는 상부단 볼 수 있고 아랫부분은 잘려졌다. 그러나 두 쌍의 사이는 연속되어 짜여진 것으로 직물 도안의 방향이 전환되어 있어, 직물 도안과 의복 형태의 관계를 고려했음을 설명한다. 그러므로 20쌍의 기러기가 한 벌의 포에 이용되었고 대략 10m 길이의 직물이 사용되었다. 사용된 직물재료가 기타 형식의 개차포 또는 결과포보다 훨씬 많음을 알 수 있다.(도 7, 도 8)

#### 6) 평파개차 중폭식(平擺開衩中幅式)재단 ; 葵花對鳥雀蝶妝花綾袍

耶律羽의 묘에서 출토된 규화대조작접장화능포(葵花對鳥雀蝶妝花綾袍)는 매우 완전한 상태이며 개차포에 중폭식 재단 방법이 이용된 전형적 실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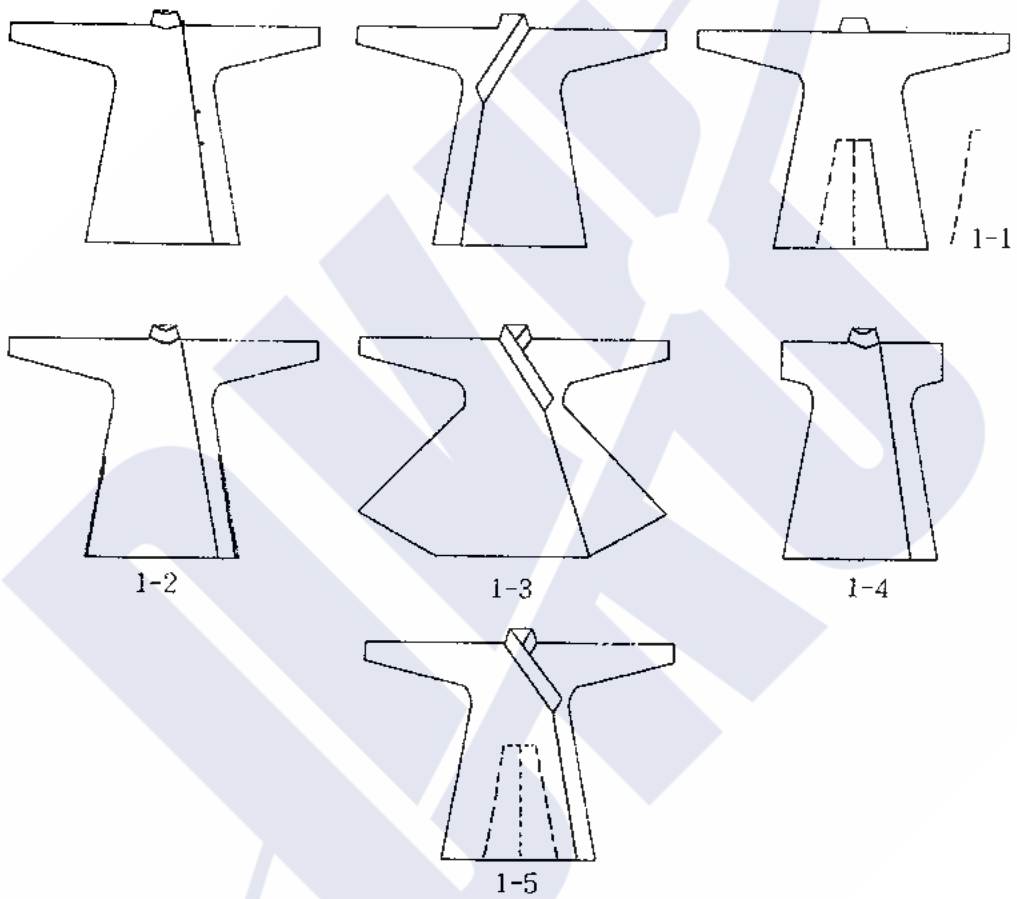
반령좌임으로 되어있고 포의 총 길이는 155cm, 通袖의 길이는 224cm 정도로 窄袖이며 오른쪽 소매는 온전히 남아 있고 왼쪽소매는 잔편만이 남아 있다. 오른쪽 소매길이는 78cm, 소매부리는 13cm이다. 포의 가슴둘레는 68cm로 가슴에서 시작하여 아래쪽으로 점점 넓어지는 형태이다. 하단은 총 100cm이고 前襟과 里襟의 하단 너비는 모두 94cm이다. 좌우 양측면 트임의 높이는 80cm이다. 깃 폭은 10cm 정도로 里襟은 斜領으로 길고 낮으며 그 끝부분에 끈이 있어서 묶을 수 있다. 外襟은 盤領으로 짧고 높으며 깃의 바깥 끝 쪽에 단추가 있어 깃 뒤쪽의 단추 매듭과 만난다. 外襟 아래에는 2개의 잡아매는 줄이 왼쪽 가슴 앞쪽에 있다.(도 9)

포에 이용된 직물은 葵花對鳥雀蝶妝花綾이다. 도안이 비교적 크고 좌우대칭의 광폭으로 폭 너비는 70cm 정도로 經向순환은 77cm 정도이다. 도안 중심은 한 줄기에서 세 가지로 뻗은 가을 해바라기로 되어있다. 나무는 높고 크며 꽃이 활짝 피어있고 끝이 톱니(鋸齒)와 같은 꽃잎이 5개이다. 나무아래에는 한 마리는 위를 보고 한 마리는 아래를 보는 흰 비둘기(白鴿)가 대칭으로 있

다. 꽃 주변은 많은 나비가 둘러싸고 있으며 벌과 참새가 춤을 추어 봄의 분위기가 나는 형상으로 포의 재단 방식에 있어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포의 직물 도안에는 정확한 방향성이 있어서 포의 뒷면 중심부에는 직물 전폭을 완전히 사용했다. 포의 길이는 두 번의 도안 순환으로 꼭 맞는다. 前襟의 오른쪽 반과 왼쪽 반은 뒤쪽 몸판에서 연속되어 이어졌다. 앞쪽 폭은 가운데를 똑같이 마주보게 가르고, 분리된 각 부분에 다시 작은 조각을 덧대어 전금과 후금을 완성한다.(도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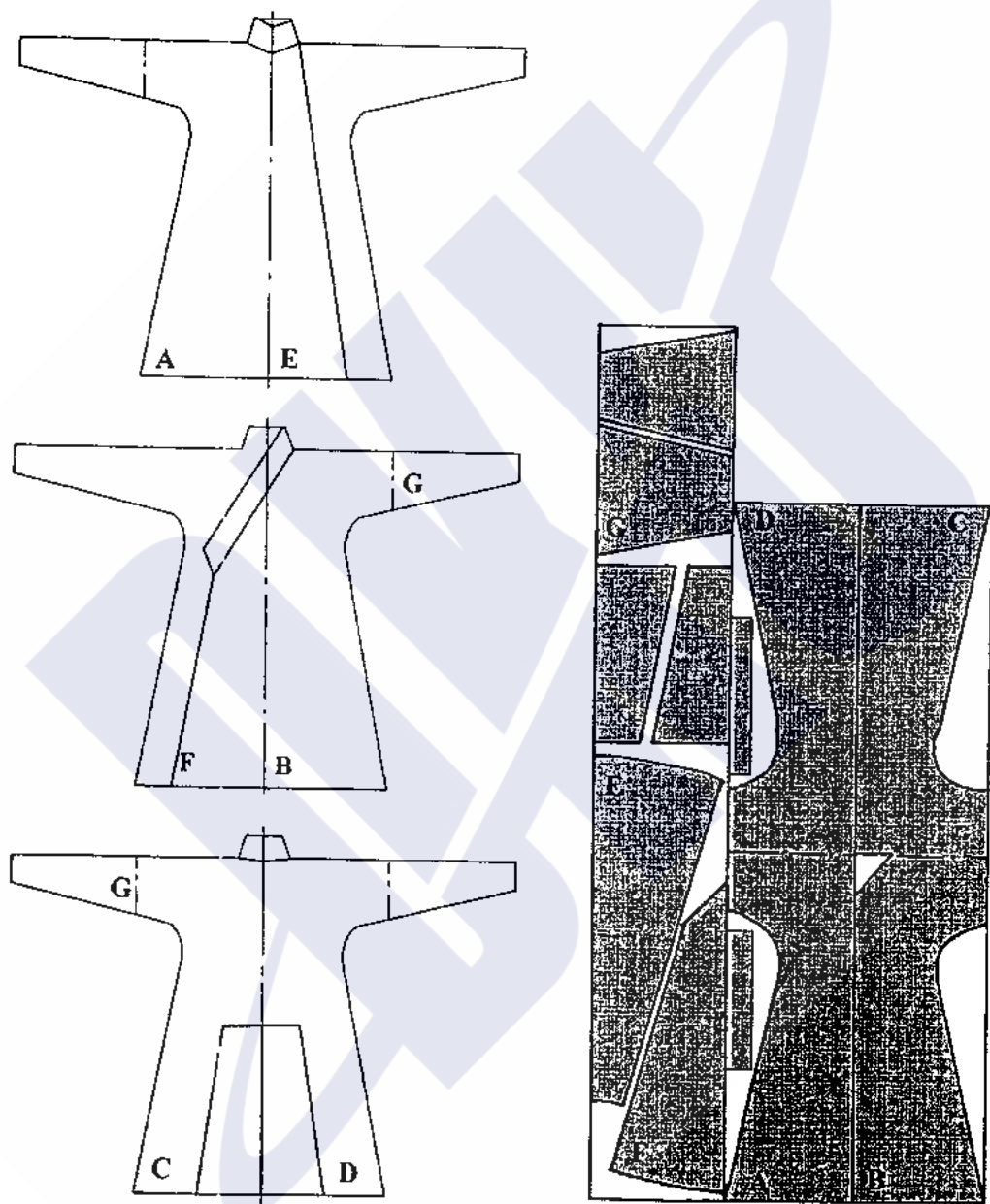
이런 종류의 中幅式 재단법 중에서 주의한 점은 다만 앞과 뒤의 주요 도안의 배치이며 소매 부분과 깃 부분 등의 재단은 비교적 편이하게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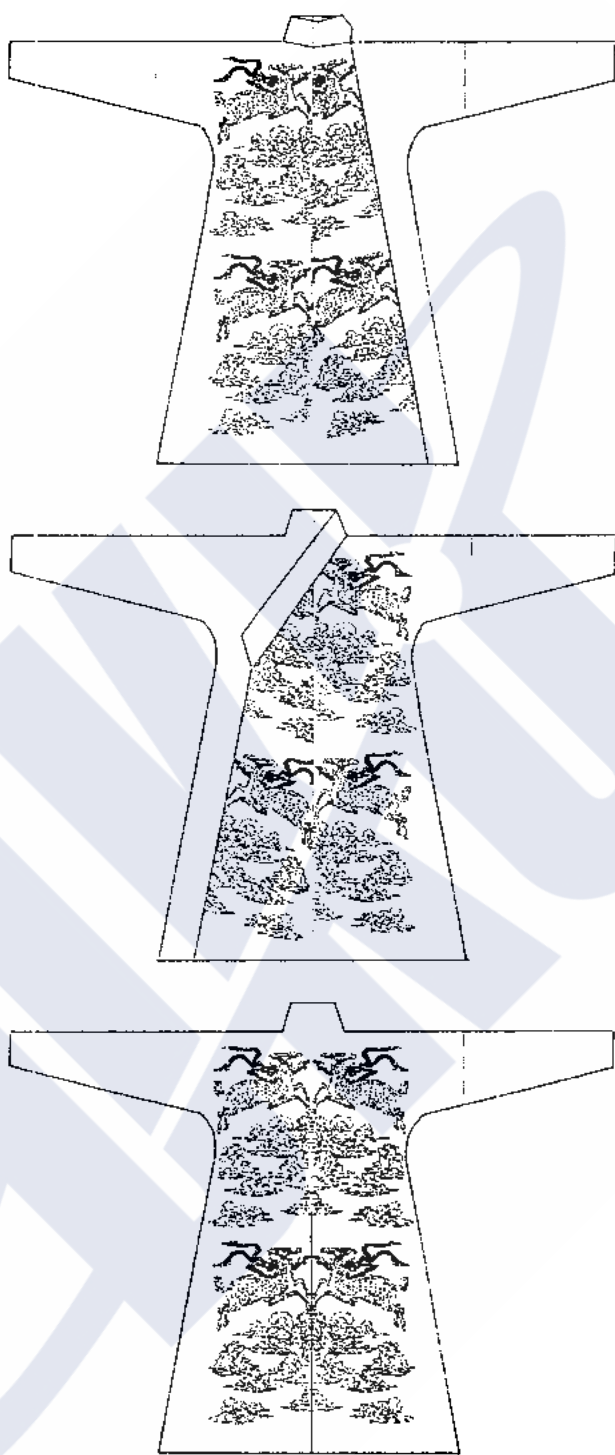
[그림-1] 요대 포의 일반형식



[그림-2] 庫倫벽화의 원령포를 착용한 인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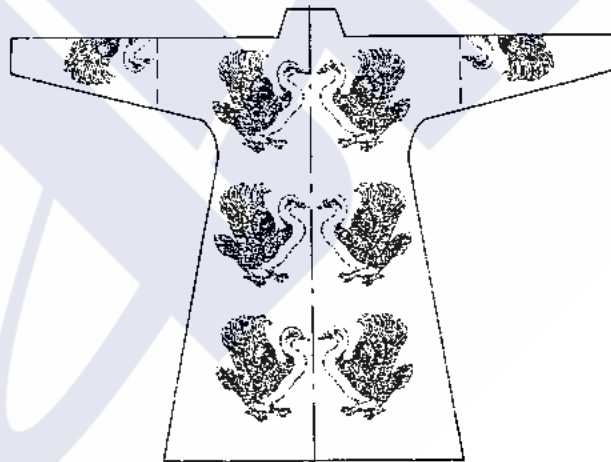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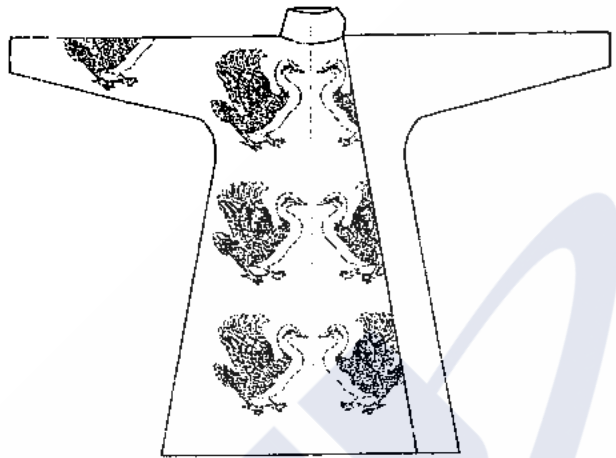
[그림-3] 대폭식 재단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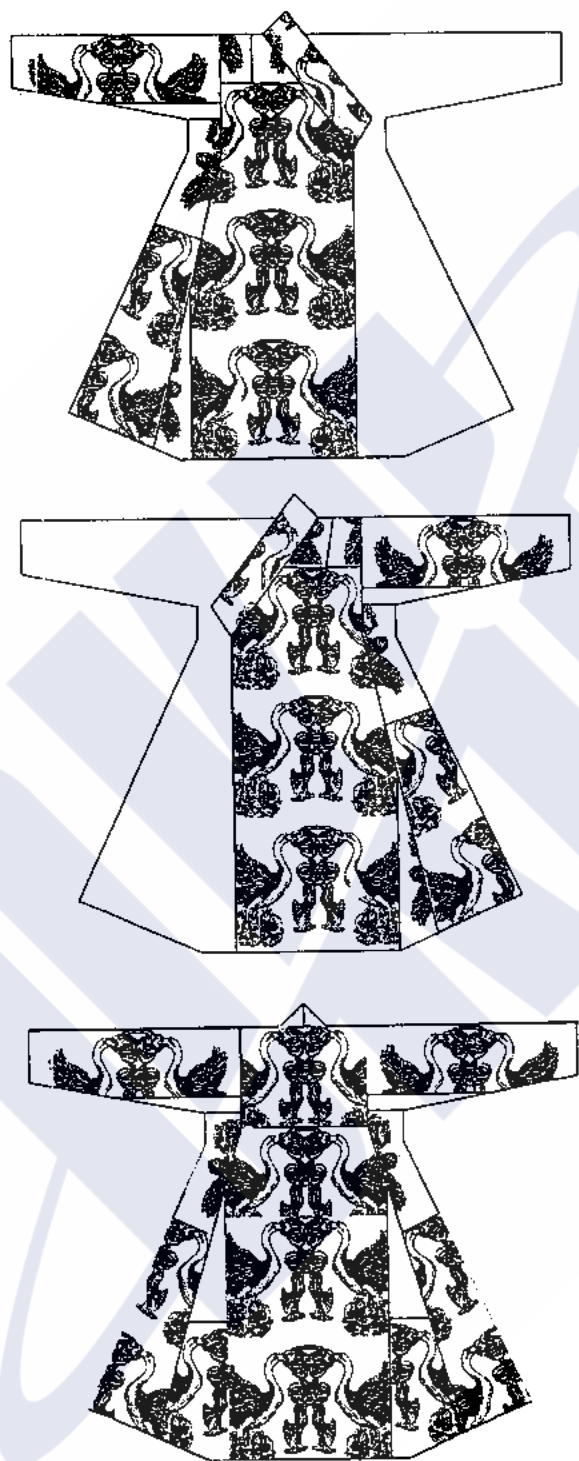
[그림-4] 云山鹿銜綾綾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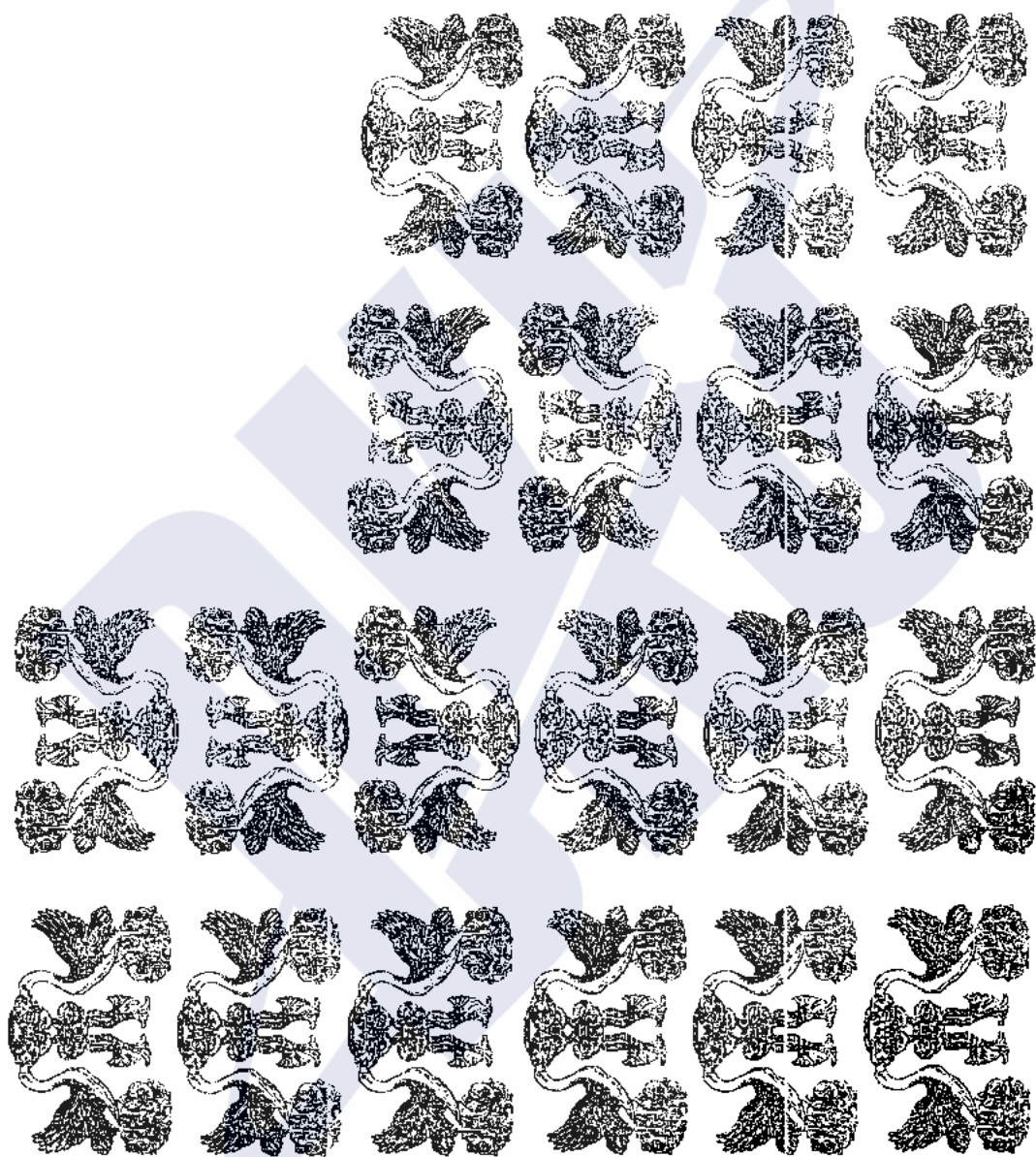
[그림-5] 花樹獅鳥織成綾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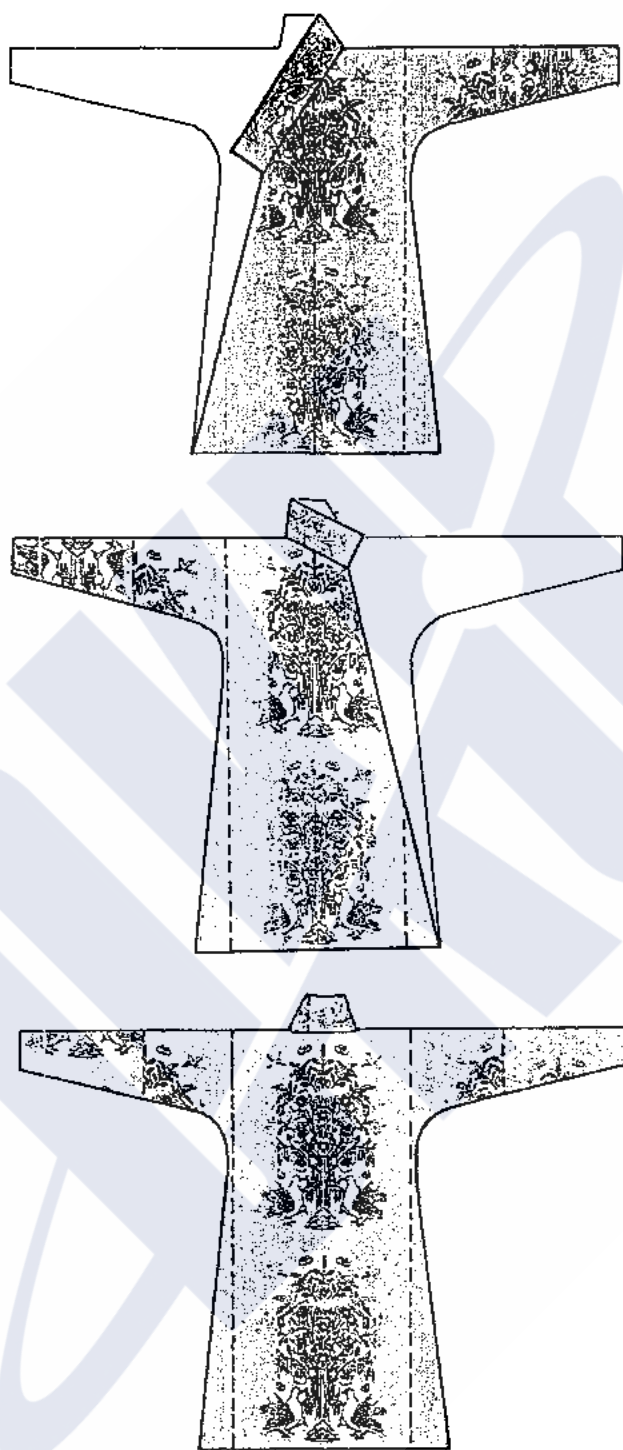
[그림-6] 大雁綾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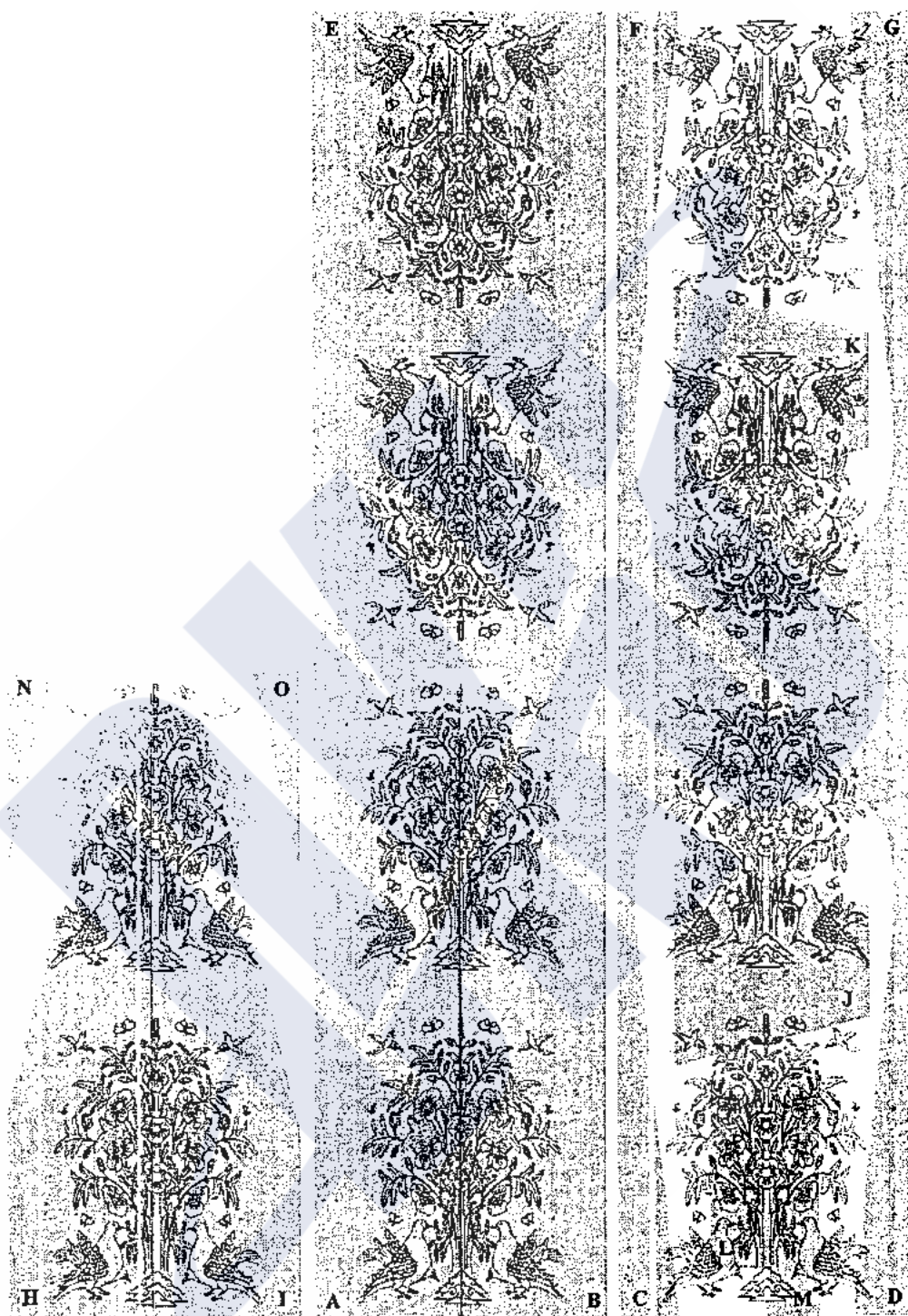
[그림-7] 雁銜綬帶紋錦袍



[그림-8] 雁銜綬帶紋錦 재단도



[그림-9] 葵花對鳥雀蝶妝花綾袍



[그림-10] 葵花對鳥雀蝶妝花綾袍 재단도

# 遼代絲織袍服的圖案與裁剪

趙 豐

契丹人在建國前的服飾情況不明，據〈遼史〉載：契丹人早年“網罟禽獸，食肉衣皮，以麗鹿韋掩前後，謂之韠，然後夏葛冬裘之制興焉”。（用網來捕鳥獸，然後吃肉衣皮，遮掩身體，後來才使用服裝，夏天用葛而冬天用皮毛）。到遼太宗時（927-947），定衣服之制，主要採用的是南北兩種制度，〈契丹國志〉中記載，“國母與契丹人皆用胡服，而國主與漢官用漢服”。因此，在遼代服飾中，存在兩種服飾制度，從遼墓壁畫中也可以看出這一點。在此，我們主要討論契丹人的服飾，即國服。從〈遼史〉等資料來看，當時所謂的國服有六種：祭服，是祭示山川時候服用的；朝服，公服，上朝或辦公時所服；常服，日常所服；田獵服，專用于狩獵；吊服即喪服。但光從文字上很難知道這些服裝的具體型制。因此，我們主要以出土的紡織文物和壁畫資料為主來進行研究，在此，我們僅討論其中長身的袍服。需要指出的是契丹服裝在男女之間區別不是很大，因此本文不牽涉這一問題。

## 一．袍服的分類

〈遼史〉記載，在史料中經常提到的遼代官服中多有袍名，如皇帝所着有白綾袍，克絲袍，絡縫紅袍，錦袍，紫窄袍等，而百官所着有紫窄袍和綠花窄袍等，

這裏的各種官服，均為袍服。

遼代袍服衣長一般均在 150-160cm 之間，一律都是左衽，這是北方少數民族服飾的一個特點，早在東胡族時期，中國的北方少數民族均以左衽為特點。但袍服還可以從袖型，領型，下擺等要素來進行區別(圖1)。

### 1. 圓領缺膀袍(長窄袖，圓領，后缺膀)

這是標準的缺膀袍形式。其衣長一般在 150-160cm 之間，通袖長為 110-120cm。其特點為左衽，圓領，窄袖，缺膀(圖1-1)。

長袍的前襟為往左往右兩片，往左一片在外，稱為外襟，往右一片在里，稱為里襟，這就是左衽。此時外襟與里襟的上端不同，里襟上端作斜直領，領的下端與右胸前近腋下外襟里面的一紐扣相扣，外襟上端則作圓領，一般有兩紐扣，一在頂端，扣于頸左后部，另一在左胸前近腋下處，與里襟外面的一紐扣相扣。這就是圓領。這種圓領在遼代壁畫中十分常見，但大多都畫得圓領非常低，可以看到里面的內衣。內蒙古庫倫壁畫墓中有一坐者，將圓領解開后休息，是唯一能夠看到圓領解開時的形象(圖 2)。缺膀袍的長袖約長 110cm 或更長，一般均超過手端，可能是為了在冬天防寒的緣故，但在壁畫中，大多數人物的手均露在外面，但可以看到袖子處的折痕特別多，說明契丹人在穿袍時一般都將袖子卷起。

缺膀袍的最大特點是缺膀，膀為兩腿之間，缺膀袍也就是袍的下擺在后面兩腿間開衩。這種缺膀的方式開始于北朝時期，主要是為了便于騎馬，到唐代已見于史書，在唐太宗時期(627-649)，缺膀袍由唐人服用，后來成為唐代服裝中的主要款式之一。遼代的缺膀袍在后下擺的中間開衩，衩高約 80cm，視各人情況不同，開衩后左右各有兩片梯形小片，以使開衩后仍然起到遮掩作用。這在遼代出土的袍子中十分常見，但在一般的壁畫中不易反映，但在巴林左旗的壁畫中也有所見。

### 2. 圓領開衩袍(長袖，圓領，側開衩)

一般人認為史料中的缺膀袍即指下擺兩側開衩的袍，但事實上真正的缺膀袍應是指上一種，而另一種兩側開衩的袍或可稱為開衩袍。它也是一種窄袖圓領袍，這種袍子在其它方面都與上一種缺膀袍沒有什麼兩樣，只是在后面封閉

而在兩側開衩。一般衩高亦為 80cm 左右(圖 1-2)。唐代史料中有衩衣的記載,王建〈宮詞〉:“每到日中重掠鬢,衩衣騎馬繞宮廊”。但在遼墓壁畫中看到的開衩袍只是在兩側開衩,服用者經常將前片掠起,以到露出里面的衣衫下擺。此類袍的實物如羽之墓出土的雁銜綬帶袍。

### 3. 交領寬擺袍(長袖,交領,不開衩)

還有一類較為少見的袍型,它出在遼代早期墓中,代欽他拉墓中就有兩例。它采用左衽的交領,即外襟和里襟都是斜領,外襟亦只是在左腋下系扣,里襟也是在右胸腋下系扣。其下擺不缺膀也不開衩,只是顯得特別大,可以簡稱為交領袍(圖 1-3)。

### 4. 交領缺膀袍(長袖,交領,缺膀)

缺膀袍中也有用交領者,它其它都與圓領缺膀袍一樣,只是用交領而已,耶律羽之墓中出土有一件盤條紋綾作面料的交領缺膀袍,也是窄長袖,但交領用的是絲帶系繫,非常罕見(圖 1-4)。

### 5. 短袖缺膀袍(短袖,交領,后缺膀)

此為短袖缺膀袍。短袖的袖通長約為 80-100cm,即兩幅織物的寬度,袖寬約 30-35cm,左衽交領。下擺后面有開衩,即為缺膀袍(圖 1-5)。可能也會有側開衩者,但尚未發現,這類袍子這在耶律羽之墓中有不少出土,主要以綾作面料,另在倫敦收藏中也可見有錦作面料者,但不知開衩情況如何。此類短袖袍可作內衣,亦用作外套。

| 領型 | 開衩  | 袖型 | 扣型  | 單夾 | 襟型 |
|----|-----|----|-----|----|----|
| 圓領 | 缺膀  | 長  | 扣   | 夾  | 縮  |
| "  | "   | 短  | 扣   | "  | "  |
| "  | 側開衩 | 長  | 扣   | "  | "  |
| 交領 | 缺膀  | 長  | 扣,帶 | "  | "  |
| "  | 側開衩 | 短  | 扣   | "  | "  |
| "  | 不開衩 | 長  | 扣   | "  | "  |

## 二．遼代袍服的裁剪和縫制

### 1. 裁剪

中國古代的衣服形式總是與織物的規格有着非常密切的關係，衣服的需要，決定了織物基本規格，同時也決定了基本裁剪方法，遼代絲織物一般幅寬在 50cm 左右，其主要裁剪方法有對幅式和中幅式兩種。

遼代的袍服的主要剪裁方式是對幅式，以兩幅織物對稱相縫形成袍服的主要部分，由于一匹織物的寬度約在 50cm 左右，因此，兩幅織物就可形成袍服背后的大區域，而在袖子上只能到達 50cm 處，另外需要增加織物作為袖口，在袍子前部，兩幅織物已經形成外襟和里襟的各一半，只要再添上一半左右就可以形成全部的外襟和里襟，將左向的一片作為外襟，就成為左衽，此時扣子就釘在左胸的外面，與外襟相扣，釘在右胸的里面，與里襟相扣(圖 3)。以袍長 150cm 計，一件袍服所用的織物約長 7.5-8 m。交領與圓領的方法相差不大。

如果此件為短袖，只是在袖子上不再拼接小袖口而已，但整個衣身的主要部位都是一樣的。

另一種常見的遼代袍服裁剪方法是中幅式。它將一整幅的織物位于衣服的中間，然后再向兩邊擴展，這種裁剪方法不很多，主要用于不能裁破的特殊需要的圖案織物。

### 2. 縫制

對於縫制，根據不同層次的衣服，縫的方法有所不同。

單層的袍服，一般只有單層的織物用于此類服裝，它用手工將各片裁成的衣片縫合，但縫合后一般在邊上滾邊，即將織物邊緣向內稍加卷入后縫定。

對於夾袍，用一層面料和一層里子縫成，一般又兩種工藝，一是先將面料和面料縫合，里子與里子縫合，最后分別形成衣服表面和里面后再進行縫成，二是先

分區將織物的面料與里子先縫合，再將各片縫合在一起縫合，直接成為衣服。

對於一些重要的綿袍，織物共有四層，最外一層為正式的面料，面料下有托一層絹，縫成一個有托的完整的面料，里面是里子，中間再是夾綿，由此可見，當時的袍服縫制非常講究。

### 三．遼代重要絲織袍服實例

在近年的遼代考古中，有許多契丹人的袍服發現，其中還織有非常特殊的圖案，特別是一些大型的圖案，如團孔雀，盤鳳，對雁，奔鹿等，均是皇族高官所用的專門圖案。所有這些袍服在圖案的設計布局上和服裝的裁剪上都有着非常的講究，其圖案往往與服裝款式密切相關，或可稱為織成面料。

從當時的織物來看，大型的圖案一般有兩大類，一類是一幅內左右對稱的圖案，適合於中幅式的裁剪方法，一般都是缺胯袍，因為后面的中軸處本身就是分開的；另一類在一幅內單向不對稱，需要兩幅織物才能組成對稱的圖案，因此多採用對幅式的裁剪方法。對幅式一般不適宜作缺胯袍，而多作開衩或是不開衩的袍。凡織物為獨窠圖案或是其它形式的對稱圖案，一般就會採用中幅式裁剪法，以保持中心圖案的完整，兩種圖案又可根據圖案的經向循環分為一段式，二段式和多段式三種。

#### 1. 譜通式對幅式裁剪；中窠雜花對鳳妝金銀錦袍

當一幅織物中有兩個或兩個以上循環的圖案時，這種圖案一般沒有嚴格的方向性，四方連續，左右上下均可，因此可以採用普通式裁剪法。普通裁剪雖無定式，但無論是缺胯袍還是開衩袍，一般還是以對幅式裁剪法進行，因為這是最為適合織物與服裝關係的一種方法(參見圖3)。

我們以盤條紋綾的圓領缺膀袍為例來說明。它以盤條紋綾為面料，一幅中有兩個圖案循環，屬於四方連續的圖案。其主要部位如后背左部和里片的大襟，后背右部和外襟的大襟各用整幅的綾裁成，再用余料裁成兩片小襟，一條領緣和袖子的肘部。而在正面或背后的中縫處的圖案是否拼合而嚴格對格，卻不非常注意。

當織物的圖案有方向性時，織物在織成時必須加以考慮。耶律羽之墓所出中窠雜花對鳳妝金銀制成的錦袍可備一例。其組織以五枚的緞紋緯二重作地，并織出團窠環，而再用拈金線和拈銀線在團窠內以挖花的方式織出對鳳圖案，因此它是一種妝花織物。袍為左衽盤領，總長 1.50m，通袖長約 2.20m。窄袖，自腋下起至袖口長約 75cm，袖口寬約 15cm，下擺總寬 1.15m。缺膀高度約 63.5cm 處，叉口內還接有兩片梯形的錦片，以便遮擋開衩處。領寬約 10cm，里襟斜而前襟圍繞到頸左后部，領端有一扣，后部有一袷，剛好相扣。由于織物圖案的窠徑較小，約為 15cm，因此，此袍在裁剪時并不過于注重圖案的方位。袍的左后身與里襟左部相連，右后身與前襟右部相連，織時兩面的圖案均為正向，肩部不見縫接處。這說明當時，即使是小圖案，只要它有一定的方向性，織造與裁剪的關係在織造時就已得到了特別的注意。

## 2. 二段式對幅式裁剪：云山瑞鹿銜綬綾袍

對幅式裁剪中最為常見的是二段式，這樣的例子在耶律羽之墓出土物中非常多，最為典型的是云山瑞鹿銜綬綾袍。單幅織物的圖案是銜綬而奔的瑞鹿及云山，其緯向循環通幅，但經向高度約為 68cm，兩組圖案間有空隙，約為 5-10cm，則圖案循環在 75cm 上下，復原后的袍服長約 150cm，剛好是兩個經向循環。

從復原后的綾袍來看，其背面的中軸兩邊的圖案是嚴格對稱的，而在前面的里襟和外襟均有一個完整的奔鹿，但其小襟上的鹿并不完整，而且與大襟上的奔鹿同向，不很美觀。此袍為缺膀袍，因此其后面缺膀處有交叉片，高約 80cm，為無紋素綾，上窄下寬，各為 14 和 30cm，此外，綾袍的袖子和領子似亦無紋，看來

此綾織有較大面積的素地部分以作領袖等用，這是因為織物的圖案較大，而領袖等面積較小，如將圖案裁破，則不甚美觀。此袍最終的胸寬約 70cm，下擺寬約 100cm(圖 4)。

### 3. 一段式對幅式裁剪：花樹獅鳥織成綾袍

一段式的對幅式裁剪只發現一例，但這是非常特殊的一例。此件出土于耶律羽之墓，可稱為花樹獅鳥織成綾袍。

這件綾共發現殘片十余片，經過拼接后基本復原其袍服的款式和基本圖案。綾袍的款式為盤領左衽窄袖，衣長約在 150cm，胸圍約在 70cm，下擺約在 100cm，袖應為窄袖。此衣存有較多的素綾殘片，推測可能是缺膀交叉片所用。衣服上最重要的是圖案，這是一種織成式的作品。圖案經向長約 124cm，如加上間隔則可達 150cm，緯向寬為 36cm，但織物幅寬應大于 46cm。圖案沿織物幅邊處為一枝干向上的石榴花主干，樹枝上棲有三鳥，似為山鷓鴣之類，樹下有一獅子，右足置一繡球上。圖案的另一半已殘，難以復原，從部分殘片中推知，兩邊的風格是一致的，但圖案較窄，紋樣相對簡單，只有一鳥，無獅。因此我們可以知道，有獅的大圖案是為大襟而設計的，無獅的小圖案是為小襟設計的，但在背后則都用大襟圖案，而在袖上則都用小襟圖案，因此，袍的前后身都有完整的圖案(圖 5)。

這種完整圖案的設計應該是一種新的設計形式，其圖案按照服裝款式的要求來進行設計，織成之后的裁剪就十分方便了，因此這可以稱為織成袍。這也是我們能夠看到最早的真正的織成袍形式。這件織物的圖案循環應該在 240cm 以上，是我們目前所發現最早的最大織物圖案循環。

### 4. 多段式對幅式裁剪：大雁綾袍

多段式的對幅裁剪法與二段式基本一致，實例之一是耶律羽之墓中出土的大雁綾袍，為交領左衽缺膀袍。織物的面料是一站立的大雁，無任何其它背景，大雁

高度約為 35cm，寬約為 30cm，有左右向兩種，雁首處為幅邊，而雁后部已被裁剪。兩雁之間距為 15cm 左右，如此計算，一件袍的長度中可排列三組大雁。另據發現的一片袖子殘片看，知此件袍的袖子部分亦有大雁紋樣，而且一只大雁為一只袖子，大雁橫排。出土中沒有發現作為缺膀袍的交叉片，但根據當時大量的同類袍來判斷，此袍應為缺膀袍(圖 6)。

#### 5. 寬擺無衩中幅式裁剪：雁銜綬帶紋錦袍

目前所知的寬擺式窄袖袍均出自代欽他拉墓。其中有兩件錦袍都採用了這一方法裁剪。雁銜綬帶紋錦袍是最為典型的一件。

雁銜綬帶錦基本組織為五枚緞紋緯二重，應有七種顏色。圖案甚大，為一對銜有綬帶的大雁。造型非常漂亮，緯向寬度約 70cm，經向高度為 40cm，雁之間的距為 4-5cm，這樣在袍高 147cm 上可以布置三對大雁，但還稍有空隙。因此，裁縫採用了變通的方法，在正面的外襟與內襟處各採用三對大雁，靠肩部處則拼接其它殘片；但在背面，由于這是一個整體，裁剪者採用了四對大雁，但由于四個完整的循環的大雁顯得太長，因此，裁剪又裁去了上面兩對大雁之間的空隙，使得背面的圖案基本看起來完整。由于寬擺很大，袍下擺的側面也有很大一部分會露在外面，因此裁縫在這一部分也安排了完整的對雁，近下擺處共兩對。甚至在下擺的三角形區，也各用了一只雁，顯得比較完整。至于袖的部分，也是有對鳥，正背各一對，只能看到雁的上部，下部被裁，但在兩對雁之間却是連續織造的，說明織物圖案在此外轉向，也體現了織物圖案與款式的關係。如此，共有 20 對雁被用于一件袍子，約需 10m 長的織物，可知其用料之費，遠大于其它兩種形式的開衩或缺膀袍(圖 7，圖 8)。

#### 6. 平擺開衩中幅式裁剪：葵花對鳥雀蝶妝花綾袍

耶律羽之墓中出土的葵花對鳥雀蝶妝花綾袍非常完整，是開衩袍採用中幅式裁

剪法的典型實例。該袍爲盤領，左衽。袍總長 155cm，通袖長約 224cm。窄袖，右袖完整，左袖稍有殘缺。右袖長 78cm，袖口寬 13cm，此袍胸圍 68cm，自胸而下漸寬，下擺處總寬爲 100cm，前襟和里襟的下擺寬均爲 94cm。左右邊往上高約 80cm 處開始開側衩。領寬約 10cm，里襟斜領，長而低，其端有帶，可以系縛。前襟盤領，短而高，領子外端有扣，與領后摺攀相配。前襟下還有兩顆扣絆，位於左胸前(圖 9)。

此袍所用面料爲花樹對鳥雀蝶妝花綾。其圖案較大，左右對稱通幅，幅寬約爲 70cm，經向循環約爲 77cm。圖案中心爲一枝三杈的秋葵花樹，樹高大，花盛開，葉爲帶有鋸齒的五分裂葉。樹下對稱地各有兩只一昂一俯的百鴿。繞花之周還有許多蝴蝶，蜜蜂和雀鳥飛舞，一片春意盎然的景象。袍的裁剪方式值得注意。此袍所用面料圖案極具方向性，因此在袍的后身的中部，用了一幅完整的面料，長度恰好是兩個圖案循環。前襟的右半片和里襟的左半片均由后身連續而來，并對開，分別再與兩小片相連后完成前襟后襟(圖 10)。由此可見，在此類中幅式裁剪法中，他們注意的只是在正面和背面的主要圖案，而在袖部和領部等的要求并不是很高。



상암동 출토 全州李氏  
益烜(1699~1782) 유물연구

고 부 자



# 상암동 출토 全州李氏 益烜(1699~1782) 유물연구

고 부 자

1. 머리말
2. 출토물 입수 경위
3. 墓主의 人的사항
4. 유물 보수 복원처리
5. 출토유물의 종류 및 특징
6. 맺음말

부록 : 본 박물관 출토물에 대한 세미나 및 전시일지

## 1. 머 리 말

본 연구는 1999년 12월 20일 全州 李氏 靖簡公(이하 公이라 한다) 諱 益烜(1699~1782)의 墓에서 出土된 유물에 대한 것으로 18세기 一品관직자의 복식과 壽衣 및 葬法을 연구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다.

출토지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암동이며 2002년 월드컵 경기장 건설부지 주변에 있다. 본 전주 이씨 墓들은 경기장건설과 함께 아파트가 들어서게 되자 이장을 하게된 것이다.

이 곳에서 다섯 분을 이장하였는데 유물은 부친 密昌君의 묘를 포함하여 두 곳에서 나왔다. 묘역은 소나무 숲으로 둘러싸인 낮은 북서향 언덕에 자리잡고 있었으며, 주변은 밭농사 터와 마을이 있었다.

본 연구에는 출토물 입수 경위, 墓主의 人的사항, 유물 보수 복원처리, 출토 유물의 종류 및 특징을 살펴보았으며, 부록으로 본 박물관 출토록에 대한 세미나 및 전시일지를 첨가하였다.

## 2. 출토물 입수 경위

출토현장은 1999년 12월 21일 오후 SBS 김광현 기자의 제보에 의해 답사하게 되었다. 김 기자에 의하면 최초의 제보자는 마을 사람으로, 미이라와 옷이 나온 것을 보고 파출소에 신고하였다. 파출소에서는 중앙박물관 관장(정양보)실로 알리고, 다시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이하 본 박물관이라 한다)까지 연결되었다.

본 박물관 연구팀이 현장에 간 것은 늦은 오후였다. 현장에는 破墓한 후였기 때문에 강회와 棺널판이 널려있었고, 무덤구덩이는 흙으로 메워져 있었다. 유물이 있는 두 개의 棺은 낮은 곳으로 운반하여 두었는데 관 뚜껑은 열려져 있었다. 棺은 內棺만 있었고, 公의 관 표면은 김정색 옷칠을 하였으며 표면에는 朱書로 “輔國崇祿大夫行判中樞府事兼禮曹判書判義禁府事知 經筵春秋館事 世子右賓客李公之柩”라고 쓰여 있었다.

公의 묘 자리는 한쪽이 비교적 가파른 野山 능성이었으며, 주변에는 강회와

外槨이 널려있었다. 홍개판이 5편 연결된 채로 젖혀져 있었는데 한쪽에 寶紋紗로 된 柩衣편이, 판 上部 2번째에는 幣帛 1개가 붙어 있었다.

유물수거 작업은 8세손 이인용과의 합의하에 이루어졌으며 유물은 본 박물관에 기증되었다.

작업은 다음날 12월 22일 실시하였다.

관의 內部는 시신이 肉脫되어 약간 내려앉은 상태였고 습기가 차 있었으며 악취는 약한 편이었다. 內棺 안벽에는 얇은 韓紙가 발려있었다. 유물수거작업은 기온이 零下로 내려간 추운 날씨에서 행해졌으므로 유물이 서로 엉킨 채 얼어있는 상태였다. 유물의 상황을 판단하면서 시신의 상부를 덮은 것 중에서 머리 쪽에 있는 補空物부터 걷어내기 시작하였다.

보공물은 옷과 솜과 옷감들이었다. 보공 형태를 보면 옷들은 개거나 시신의 부분을 찢으며, 옷감은 명주를 사용하였는데 명주 폭 너비대로 바느질하여 속에 방석처럼 솜을 넣어 만든 것과 둘둘만 깎, 솜을 그냥 뭉쳐서 사용한 것이 있었다. 관의 모서리는 주로 솜으로 채워졌으며 솜은 가끔 수의를 입힌 옷 사이에도 끼어 있었다. 보공물을 거의 걷어내자 육탈된 뼈 부분의 윤곽이 드러났다. 밑으로 갈수록 습기가 더하고 발 쪽으로 棺이 약간 기울어져 있어 물이 흥건히 고여 있었다.

수위는 보공과 달리 시신에 입혀진 것이므로 작업이 더 어려웠다. 뼈는 보공물을 걷어내고 수위의 앞을 모두 헤친 후 전주 이씨 종친에서 의탁한 장의사에 의해 수습되었다. 수의를 수습하는 중에 특히 신을 벗기는 일이 힘들었다. 버선은 속에 발의 뼈들이 고스란히 들어 있어서 수거하지 않았다. 수의를 입힌 순서는 겉으로부터 심의→중치막→중치막→소창의→적삼, 아래는 솜바지→고의, 발에는 행전→신→버선을 신고 있었다. 머리는 복전 속에 명목을 덮고 韓紙로 얼굴을 가렸으며 玉貫子를 단 말총 網巾을 쓰고 상투를 틀었다. 수위는 일단 뼈를 들어낸 후 수거하여 박물관에 돌아와서 다시 정리하였다.

### 3. 墓主의 人的사항

묘주의 인적사항은『璿系仁城君派寶鑑』其二(1979년, 一丁李鎬應譯 監修李載德)를 참조하였다. 著作 諱 譯述자인 호응은 靖簡公 諱 益烜의 6대 孫이다.

公의 系譜를 보면 宣祖→仁城君(珙)→海原君(健)→花善軍(浚)→密昌君(機)→靖簡公(益烜)으로 연결된다.

기록된 내용 중에서 주요부분을 간추리면 다음과 같다.

1) 公의 부친은 밀창군(휘 機)이며 모친은 郡夫人 同福吳氏이다.

2) 公은 1699년(肅宗21)에 나서 1782년(正祖6)에 죽었으며, 仁城君의 耳孫이다.

인성군(1588~1628)은 宣祖의 일곱째 庶子로 이름은 公(珙)이며, 號는 百忍堂 시호는 孝愍이다. 生母는 靜嬪閔氏이다. 光海君 때 仁穆大妃의 廢位를 주장하였고 仁祖 6년(1628) 모반사건에 연류되어 珍島로 귀양가서 죽었다.

公은 많은 官職을 거쳤으므로 墓碑銘은

“朝鮮國輔國崇祿大夫行議政府右參贊判敦寧判中樞判義禁禮兵刑工四曹判書大司諫大司憲大司成 漢城判尹京畿黃海監司 贈諡靖簡全州李氏 諱 益烜 墓碑銘 并 序 曾經 論陣主筆 六代孫 鎬應 謹識”이라 하였다.

이것은 출토현장에 있는 판의 표면에 쓴 내용과는 조금 다르다.

仁城君(휘는 珙)은 宣祖 13王子중 7子이다. 인성군 이후 후손들은 별다른 벼슬자리를 가지지 못하다가 五世 公(정간공)과 六世 성규(孝貞公)가 의정부에 천거되어 左·右參贊이 되고 임금이 輔國崇祿을 주어 正一品階에 올렸는데 사정에 의해 받지 못하게 되었다. 이에 벼슬은 政丞이 되지 못하였지만 階는 정승과 同品인 셈이다. 후손들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하여 조상의 일을 돌

볼 사이가 없었다. 이런 가운데 남은 유품은 몇 가지 밖에 되지 않는데 그것들은 七幅遺眞 英祖下批御筆, 仁城과 海寧의 親筆, 靖簡公御前題詩, 孝貞公科文, 通德郎公이 지은 孝貞公의 行狀 兩世重行職年譜이다.

靖簡公 官階에 대한 年譜에는 蔭仕官階와 1736년(38세)에 급제한 후 관계로 나눌 수 있다.

(1) 음사관계(蔭仕官階)로는

1724년(景宗3, 25세) 上庠科급제

1724년 의릉참봉(懿陵參奉), 선공감(繕工監), 공조좌랑(工曹佐郎), 교하현감(交河縣監)

1730년 돈녕부주부(敦寧府主簿), 병·형·조정랑(兵刑曹正郎)

1731년 가평군수(加平郡守)

1733년 정헌공사언(靖獻公使燕)수행

1734년 사복시주부(司僕寺主簿), 공조좌랑(工曹佐郎)

1735년 금산군수(金山郡守)를 거친다.

(2) 38세 1736년에 정시문과(庭試文科)에 급제하고 사헌부지평(司憲府持平), 세자시강원사서(世子侍講院司書), 사헌부장령(司憲府掌令)으로 시작하여 많은 관직을 거친다.

1737년 승정원동부승지(承政院同副承旨), 우승지(右丞旨)

1738년 파주목사(坡州牧使), 황해감사(黃海監司), 병조참지(兵曹參知), 도승지(都承旨), 예조참판(禮曹參判), 병조참판(兵曹參判), 동지의금부사(同知義禁府事), 형조참판(刑曹參判), 장악원제조(掌樂院提調), 도총부부총판(都摠府副總管)

1740년 경기감사(京畿監司), 사헌부대사헌(司憲府大司憲), 한성부판윤(漢

城府判尹), 동지춘추관사(同知春秋館事), 동지의금부사(同知義禁府事)

1742년 승문원제조(承文院提調), 이조참판(吏曹參判), 동지중추부사(同知中樞府事)

1744년 장흥고제조(長興庫提調), 동지부사(冬至副使), 호조참판(戶曹參判), 동지경연사(同知經筵事)

1745년 성균관대사성(成均館大司成), 봉상시제조(奉常寺提調), 공조참판(工曹參判)

1749년 사재감제조(司宰監提調), 춘천부사(春川府使)

1750년 사직서제조(社稷署提調), 승문원제조(承文院提調), 지중추부사(知中樞府事), 지춘추관사(知春秋館事), 형조판서(刑曹判書)

1751년 한성판윤(漢城判尹), 지의금부사(知義禁府事), 종묘서제조(宗廟署提調), 도총부도총관(都摠府都摠管), 예조판서(禮曹判書)

1752년 북사접반사·반송사(北使接伴使·伴送使), 의정부우참찬(議政府右參贊)

1753년 병조판서(兵曹判書), 판의금부사(判義禁府事), 군기시제조(軍器寺提調)

1756년 내의원제조(內醫院提調), 사포서제조(司圃署提調), 양빈전도감(兩殯殿都監)

1758년 판중추부사(判中樞府事)

1759년 사복시제조(司僕寺提調), 상의원제조(尙衣院提調)

1761년 내자시·전생시제조(內資寺·典牲寺提調), 공조판서(工曹判書)

1764년 귀후서·활인서제조(歸厚署·活人署提調)

1767년 판돈녕부사(判敦寧府事), 종부시제조(宗簿寺提調), 전록봉안사(璫錄奉安使)

1768년 사옹원·전의감제조(司饔院·典醫監提調)

1782년(正祖6, 84세) 졸.

### 3) 配位 및 子

#### (1) 배위

貞敬夫人 竹山安氏(1700~1778)이며 2남 1녀를 낳았다.

#### (2) 子

장남은 孝貞公 聖圭(1732-1799)로 좌참찬(左參贊)이며, 차남 禹圭는 牧使이다.

성규의 墓碑銘은

“朝鮮國輔國崇祿大夫行議政府左參贊都摠府都摠管知中樞知敦寧知義禁刑工兵三曹判書漢城判尹贈諡孝貞全州李公諱聖圭墓碑銘 并 序”로 되어 있다.

책 말미에 遺品 및 影幀이 소개되었는데 다음과 같다.

宣廟御筆 8점

仁城君親筆 12점

海寧君親筆 1점

密昌君(익정의 父)影幀 3폭--- 官服全身, 金冠朝服全身, 金冠朝服半身,

靖簡公(익정)影幀 2폭---金冠朝服全身, 金冠朝服半身,

孝貞公(성규, 익정의 子)影幀 2폭---金冠朝服全身--반신임 , 金冠朝服半身--없음

海寧君影幀 1폭---제목 없음 : 사모단령

## 4. 유물 보수 복원처리

본 “유물은 전문연구팀이 직접 수습하였으므로 형태는 매우 양호하다.

수거 후 屍汁과 시신의 汚物 즉, 핏자국이나 肉質이 녹으면서 생긴 오물자국과 뼈가루 잔해 등을 처리하였다.

1차 물세탁과 2차 비누세탁을 거치는 동안 솜옷은 속에 들어있던 솜이 일부 뭉치거나 흐트러 지기도 하였다. 완전히 말린 후에 손질하여 특히 보공용으로 절을 짜지 않은 솜은 물세탁에 의해 깨끗이 정리되었다.

### 1) 유물분류

수의, 보공물, 염습의류 분류

### 2) 오물처리

수의에 남아있는 뼈가루 잔해 등

### 3) 1차 물세탁

보공물로 대부분 접혀있었으며 깨끗한 편인 것

### 4) 2차 물세탁 : 중성비누액 사용

보공물 중에서 汚物이 심한 편인 것으로 수의를 입힌 후 시신을 싸고 있었던 것들

### 5) 말리기

솜옷이나 겹옷은 건조대에 널어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서 뒤집어 말리기  
솜은 햇볕에서 말리기

#### 6) 훈증소독

#### 7) 구김펴기 : 손 다림

옷 모양을 바로 잡기 위하여 증류수를 뿌리고, 구김이 있는 곳은 손바닥으로 다듬고 누르면서 구김살 펴기

#### 8) 보수작업

비교적 원형이 파괴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보수부분은 적다.

재료는 유물과 같은 재질로 하였다.

본 유물 보수작업에 본 대학교 대학원 전통의상학과 3학기생 박경자 안인실과 사회교육원 전통복식과 조교 박승원이 처음부터 관여하였고, 1학기생(2001년 입학) 김민정 금종숙 김주영 최진경 도보선은 구김펴기에 참여하였다.

## 5. 출토유물의 종류와 특징

출토유물은 보수작업을 마친 결과 총 59건이 되었다. 유물의 수량은 1점 1건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특성상 독립적인 것은 1점으로 하고 한 톨이 되는 것은 합쳐서 1건으로 일괄 처리 하였다. 일괄 처리된 것은 深衣나 五囊 등으로 심의는 옷과 帶 組帶를 한 톨로 하고, 오낭은 頭髮·足·手囊을 한 톨로 하였다.

유물 분류는 용도로 보아 넓게는 수의와 보공물로 나누고, 보공물은 다시 옷과 염습구류 보공용 및 기타로 나누었다.

## 1) 유물별 분류

### (1) 수의

시신이 입거나 직접 被覆하였던 것으로 총 14건이며 다음과 같다.

深衣(帶와 組帶갓춤), 중치막 2점, 그외에 솜바지, 고의, 소창의, 적삼, 명복, 복건, 악수(쌍), 망건(玉貫子 雙부착), 행전, 신(履), 五囊(4개)이 각기 1점씩이 있다.

심의 일습은 1991년 천안시 쌍룡동 출토 풍산홍씨 이조판서 義俊(1761~1841) 유물에서도 나왔으며 1994년 5월 단국대학교 石宙善紀念民俗博物館 개관13주년기념 세미나(『韓國服飾』12호, 119~147쪽 참조) 및 전시에 소개된 적이 있다. 그러나 풍산홍씨의 경우 망건은 옥관자가 두 개 붙어있었으나 새질은 공단이었으며 심의에도 심의대는 있으나 조대는 없었다. 이번 공의 유물에는 網巾이 말총으로 되어있고 組帶도 있어 심의연구에 좋은 자료가 될것이다.

### (2) 보공물

#### ① 衣類

31점으로 上衣(方領)1점, 저고리(솜, 누비)4점, 바지(솜, 누비)3점, 단령(겹)3점, 도포3점, 침리1점, 朝服(赤綃衣, 裳)1점, 장의류11점, 중치막3점이다.

#### ② 염습구류

9건으로 天衾1점, 地褥1점, 이불2점, 베개1점, 묶음베(장베, 묶음베), 명주(겹)2점.

#### ③ 보공용 및 기타

5건으로 명주옷감, 솜, 柶衣, 幣帛, 韓紙가 있다.

## 2) 유물의 특징

### (1) 색과 무늬

색은 모두 緋色으로 변하여 원래의 색은 알 수 없다. 다만 團領은 3점이 모두 접인데 겉과 안은 재질이 같지만 상색으로 변한 농도가 다르고, 바느질 실도 짙게 변한 것과 옅은 것이 있다. 이는 겉과 안의 색이 달랐었기 때문으로 보이지만 정확한 색상과 농도를 알 수는 없다. 겉과 안의 색이 다른 것은 유물이나 초상화에서 발견된다. 또한 深衣의 겉과 도련에 둘러친 襟은 길과 같은 재질로 貢緞인데, 襟쪽이 더 짙은 갈색을 띤 것으로 보아 검정이었을 것이다. 이도 또한 유물이나 문헌, 초상화 등 자료에서 입증된다.

무늬가 있는 것은 團領 2점과 철릭, 柵衣이며 모두 雲寶紋이다. 官職이 堂上官직인데 비해서 紋緞이 적고 옷감은 貢緞이나 明紬類를 사용하여 매우 검소한 편이었다.

### (2) 각 유물별 특징

#### ① 半袖方領上衣

1점이며 깃은 方領, 앞여밈은 對衿, 소매는 半袖(화장37), 前短後長(길이 前51, 後73)형이다. 재질의 겉은 삼팔이고 안은 명주이다. 매우 얇은 솜을 두고 굵은 누비를 하였는데 누비 띠 간격은 약 4cm이다. 동정은 깃의 바느질이나 색상으로 보아, 달려있었는데 없어진 것으로 보인다. 옷고름도 없는데 양쪽 마주 3개씩 0.8cm 너비로 달렸던 흔적이 남아있다. 솜은 일정한 두께로 둔 것이 아니고 윗쪽과 소매진동 주변은 더 두껍게 넣어져 있다.

이러한 형태는 매우 드물게 출토되고 있다.

#### ② 저고리

5점으로 수의 1점과 보공 4점 중에 누비2, 적삼과 솜·겹저고리 각 1점이

다. 옷감은 삼팔과 명주이다. 깃은 13cm 너비에 동그대깃형이며 품은 체형에 맞을 정도이고 옆도련선은 진동에 비해 약 4cm정도 퍼져 있어 품보다 넓다. 소매의 길이는 다른 부위에 비해 긴 편이며 수구는 진동에서 완만한 斜線으로 연결되면서 차츰 좁아지고 있다. 누빈 것은 간격이 2cm에서 4cm까지이며 고운 것과 성근 것이 있다. 솜을 넣은 것 가운데는 매우 얇아서 마치 겹인 것 같이 보이는 것도 있다.

### ③ 바지

보공 3점, 수의 2점이다. 옷감은 명주 삼팔 공단이다. 누비바지 중 1점은 밑이 밑중심 좌우로 58cm 드여있는데 솜을 넣지 않은 것처럼 매우 얇게 넣었으며 누비 간격은 2cm로 정교하다.

솜바지 중에는 솜을 다른 부분에 비해 허리춤치에 조금 더 많이 넣은 것도 있다.

고의는 수의의 속옷으로 옷감은三八이다. 바느질은 정교한 편이며 푸서 부분은 0.4cm 통솔박기로 하고 나머지는 고운 홈질, 단치리는 고운 직각감침으로 하였다.

### ④ 朝服 : 赤綃衣와 裳

홀이며, 옷감은 三足亢羅이다. 겹으로 섶과 도련 옆선덧단을 대고 사이에 십지線을 대었다. 적초의의 袖口 끝은 중심에서 2.8cm너비 만큼 사뜨기로 하였다. 겨드랑이 밑에 너비 1.5cm 길이 6cm의 고리를 달았다.

### ⑤ 단령

3점인데 모두 겹이다. 옷감은 가장 좋은 것들로 모두 겹은 七寶雲紋緞에 안은 貢緞, 안과 겹이 모두 七寶雲紋紗, 겹은 갑증이나 안은 공단인 것이 있다. 색은 모두 緋色으로 변했는데 겹이나 겹의 실은 조금 더 짙은 갈색인 것으로 보아서 홍색이었을 것으로 본다.

깃의 목둘레는 솜으로 심을 넣어 0.5cm 두께로 도톰하게 형태를 잡고 길

쪽은 석땀상침으로 하였다. 단추는 모두 뜯어내고 없다.

소매는 두리소매이며, 무는 뒤로 젖혀져 있고 위쪽의 삼각형 부분은 접혀져서 길 방향으로 뉘여졌다. 寶雲紋紗는 뒤쪽 무의 젖혀지는 삼각부분 속에 韓紙를 심으로 넣었다.

바느질은 흙질로 하고, 겹옷은 겉과 안을 따로 만들어 움직이지 않도록 겉에서 안으로 징겼다. 실 땀은, 단은 약 2.5cm간격으로 하고 겉과 안 연결은 불규칙하게 하는데 각기 단너비 만큼씩 숨은 흙질로 앞섶부분은 상하연결, 단은 시점의 너비만큼 징고고 있다. 뒤자락의 밑부분에는 숨이 묻어 있는 것도 있는데 보공으로 넣은 것 같다.

#### ⑥ 첩리

보공 1점으로 雲寶紋緞이며 上下연결형이다. 裳은 너비 1.4cm의 주름이 잡힌 것으로 세자락이며 겉자락 135cm, 안자락 91cm, 뒷자락 180cm이다.

두리소매이며 진동에서 수구로 완만한 절구통형 곡선으로 연결되었다.

길이는 上衣가 39.5cm, 下裳이 90cm로 상하의 비례가 조선전기 1:1형에 비하면 裳이 길어진 것으로 전형적인 조선후기의 특징을 반영하고 있다.

화장 116cm, 품 54cm, 진동 34.5cm, 소매통 64.5cm, 수구 23cm, 깃너비 14cm이다.

裳은 길이 100cm, 폭너비 前36(110)cm, 後44(136)cm이며 허리대는 명주로 길이는 91cm이며 끈은 없다.

#### ⑦ 도포

3점으로 모두 홑이다. 옷감은 공단 명주 삼팔이다.

소매는 두리소매이며, 치수는 길이 128~130cm, 화장 116.5~119.5cm, 품 51~52cm, 진동 32cm, 소매통 62~64cm, 수구 24cm, 깃너비 13cm이며 동정은 없다.

뒷트임의 겹침너비는 1, 6, 9.5cm이며, 겹침여밈이 좌우 혼용되고 있다.

### ⑧ 대창의

보공 2점으로 겹과 홀이다. 옷감은 감증 삼팔 명주이다.

두리소매이며 고대에서 50cm내려와서 등 트임이 있는 두자락 옷이다.

길이는 123cm, 132cm, 화장 111cm, 116cm, 품 64cm, 진동 31cm, 소매통 58cm, 60cm, 수구 24cm, 27cm, 깃너비 13cm이다.

### ⑨ 중치막

수의 2점, 보공 3점이다. 두리소매이며 세자락으로 옆트임은 9.5~13.5cm이다.

겹과 홀이 있는데 옷감은 명주 삼팔 감증이다.

길이 122~127cm, 화장 117~122cm, 품 54~62cm, 진동 32.5~38cm, 깃너비 12~14cm, 소매통 44~53cm, 수구 22.5~44cm이다.

### ⑩ 소창의

수의 1점, 보공 9점으로 가장 많다. 옷감은 주로 명주이고 삼팔 공단 감증이 있다. 소매는 착수인데 진동에서 수구 쪽으로 차츰 줄어들어 완만한 斜線을 이루고 있다. 세자락으로 옆트임은 겨드랑이에서 8~9cm내린 위치이며 옆선 끝은 진동에서 2~4cm정도 넓게 곡선으로 굴렀다. 겹과 숨, 누빈 것이 있는데 누비너비는 3.7~4cm이며 누빈 것 중에는 어깨 쪽에 숨을 더 넣은 것도 있다.

길이 119~130cm, 화장 88~97cm, 품 45~61cm인데 51~53cm가 제일 많고, 깃 너비 11.5~14cm, 진동 30~37cm, 수구 23~30.5cm이다.

### ⑪ 천금과 지요

천금은 공단 홀으로 바느질은 딸아 공그르기로 하였다. 길이 184cm, 폭너비 53cm이다.

지요는 공단 겹으로 길이 174cm, 폭너비 上部 35cm, 下部 40.5cm이다.

### ⑫ 이불(소·대렴포)

2점으로 小殮衾와 大殮衾이다.

모두 겹은 3폭이며 공단으로 깃 질 동정이 있고 안은 명주 5폭과 6폭이다.  
크기는 소렴포는 길이는 283cm 폭 207cm이고, 대렴포는 길이 323cm 폭 173cm이다.

소렴포는 수의를 입힌 후 시신을 싸는 이불로 중심에 시신의 윤곽이 나타나 있다.

### ⑬ 베개

옷감은 공단 겹이며 안에 복화솜을 넣었다. 길이 17cm, 너비 38cm이다.

### ⑭ 장베와 묶음베

수의를 입히고 시신을 염할 때 사용하는 끈이다. 많은 양이 사용되는데 수습된 것은 몇 조각 뿐이다. 장베는 시신의 上下로 넣고, 묶음베는 좌우로 3~4 폭을 넣고 묶는데 묶을 때는 각기 폭을 2~3등분으로 묶을 수 있을 만큼 찢는다. 너비(폭)는 41cm인데 길이는 찢겨져서 알 수 없다.

### ⑮ 용도미상

2점으로 74×36cm, 50.5×36cm크기의 명주를 겹으로 바느질한 것이 있다. 속에는 풀솜인지 아주 얇은 것이 들어있는 것 같은 정도이다.

### ⑯ 幣帛과 柩衣

홍개판 5편 연결된 안쪽에 寶紋紗로 된 柩衣편이, 판 上部 2번째에는 幣帛 1개가 붙어 있었다.

### ⑰ 보공용

명주, 솜 찬 것, 솜뭉치가 있다.

명주는 폭너비38cm, 길이1082cm로 접어 꼬아서 관의 모서리 틈 사이를 막아 두었다.

길이는 다르지만 명주에 솜을 싸서 만든 것으로 6개가 있다. 두 장은 수의를 입힐 때 적삼과 소장옷 사이의 허리 아래 부분에 있었다.

많은 양의 솜뭉치가 관의 모서리나 옷 사이에 있었다.

## ⑱ 韓紙

용도를 알 수 없으나 지요와 대렴금으로 시신을 염한 것 사이의 등 부분에 너비 1.5cm정도로 접고 한번 틀었다.

### (3) 수의와 보공품의 치수 비교(표1 참조)

이는 民俗調査때 口傳에서 나타나는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시하기 위함이다.

구전에서는

“수의에는 솜을 넣지 않는다. 시신이 썩을 때 새까맣게 되기 때문이다.

시신의 속적삼의 화장은 손을 덮을 만큼 길게 한다. 또는 汗衫을 난다.

송장에 수의를 입히려면 굳어서 힘들다. 그러므로 옷은 넉넉하고 크게 만들어야 한다”고 한다. 이에 대한 입증근거는 본 자료에서 비교치는 작지만 수의와 보공품이 정확하므로 각기 같은 것들의 치수를 비교하여 보았다.

크기를 비교할 수 있는 것은 저고리 소창의 중치막 바지이다.

수의는 적삼 1점, 소창의 1점, 중치막 2점, 바지 2점이다.

보공은 저고리 4점, 소창의 9점, 중치막 3점, 바지 3점이다.

### 치수를 비교한 결과

(1) 저고리의 경우 수의는 적삼으로 홀이며 모양도 소매 쪽은 보공했던 저고리와는 다르다.

치수는 큰 차이가 없으나 화장이 수의가 길다. 이는 현재도 수의용 속적삼은 시신의 손을 가리기 위해서 길게 하는 것과 같다.

(2) 소창의는 수의나 보공품이 모두 겹이다. 치수는 수의가 전반적으로 조금 큰 편이다.

(3) 중치막은 수의가 전반적으로 큰 편이다.

(4) 바지는 보공이 홀과 겹, 솜옷인데 수의는 모두 솜옷이다. 치수는 차이가 없다.

따라서

구전에서 수의에 솜을 넣지 않는다는 것은 다르다.

수의는 치수를 크게 한다는 것은 본 유물에서는 큰 차이는 없으나 어느 정도 타당하다.

표1 : 수의와 보공품의 치수 비교

※ 치수cm

| 옷명칭 | 구분 | 치수 | 길이    | 화장   | 품    | 진동   | 수구   | 소매통너비 | 깃너비  | 비고 |
|-----|----|----|-------|------|------|------|------|-------|------|----|
| 저고리 | 수의 | 1  | 65    | 103  | 58   | 36.5 | 29   | ×     | 14   | 홀  |
|     | 보공 | 1  | 58    | 96   | 51   | 27.5 | 21.5 | ×     | 12.3 | 겹  |
|     |    | 2  | 63    | 86.5 | 52   | 34   | 26.5 | ×     | 13   | 겹  |
|     |    | 3  | 66    | 86   | 50.5 | 33   | 25   | ×     | 12.5 | 누비 |
|     |    | 4  | 57.5  | 95.5 | 52   | 28   | 20   | ×     | 12   | 솜  |
| 소창의 | 수의 | 1  | 131   | 107  | 61   | 39   | 31.5 | ×     | 13   | 겹  |
|     | 보공 | 1  | 130   | 105  | 61   | 37   | 30.5 | ×     | 13.5 | 겹  |
|     |    | 2  | 121.5 | 88   | 54   | 34   | 28   | ×     | 13.5 | 겹  |
|     |    | 3  | 119   | 97   | 52.5 | 33   | 27   | ×     | 13   | 겹  |
|     |    | 4  | 119   | 88.5 | 45.5 | 30   | 23.5 | ×     | 11.5 | 누비 |
|     |    | 5  | 122   | 93   | 52   | 31   | 24   | ×     | 13.5 | 겹  |
|     |    | 6  | 119   | 93   | 52   | 30.5 | 25   | ×     | 13.5 | 겹  |
|     |    | 7  | 119   | 95.5 | 52   | 32   | 26.5 | ×     | 12.5 | 겹  |
|     |    | 8  | 121   | 90   | 53.5 | 32   | 27.5 | ×     | 14   | 겹  |
|     |    | 9  | 119   | 91   | 51   | 32   | 24   | ×     | 12   | 누비 |
| 중치막 | 수의 | 1  | 132   | 117  | 65   | 38   | 27   | 54    | 13.5 | 겹  |
|     | 보공 | 2  | 132   | 118  | 63   | 38.5 | 31   | 50    | 14   | 겹  |
|     |    | 1  | 127   | 117  | 62   | 37.5 | 25   | 53    | 14   | 겹  |
|     |    | 2  | 125   | 118  | 61   | 38   | 25.5 | 53    | 14   | 겹  |
|     |    | 3  | 122   | 97   | 54   | 32.5 | 44   | 44    | 12   | 홀  |
| 옷명칭 | 구분 | 치수 | 길이    | 바지통  | 부리너비 | 허리둘래 | 허리길이 | 비고    |      |    |
| 바지  | 수의 | 1  | 112   | 66   | 69   | 130  | 20.5 | 솜     |      |    |
|     |    | 2  | 114   | 67   | 74   | 142  | 19   | 솜     |      |    |
|     | 보공 | 1  | 116   | 68   | 78   | 150  | 20   | 솜     |      |    |
|     |    | 2  | 110   | 61   | 70   | 138  | 18   | 누비(겹) |      |    |
|     |    | 3  | 113   | 66   | 74   | 139  | 19   | 고의    |      |    |

## 6. 맺 음

이상 상암동 출토 全州李氏 益烜(1699~1782) 유물을 살펴보았다.

본 유물에 대한 상황과 특징을 종합하면

1) 보공한 옷은 옷고름과 동정을 제거하였다.

수의를 제외한 보공으로 넣은 모든 옷의 옷고름과 동정이 없었다. 옷고름 뿐만 아니라 매듭단추도 없다. 고름이나 동정을 달았던 자리는 바느질 자국과 흔적만 남아있다.

이는 민속조사에서도 드물게 “옷을 보공으로 넣을 때는 옷고름이나 매듭은 없애 버린다”는 口傳과도 상통한다. 그러나 다른 출토 유물 가운데도 옷고름을 없앤 것이 더러 있긴 하지만 이번처럼 완전히 없애 버린 예는 드물다.

2) 조선후기 袍制의 전형적인 특징이 나타나고 있다.

본 출토유물에서 袍 종류는 深衣 朝服 團領 첩리 道袍 氅衣 중치막 소창의가 있다.

이 袍類에는 官服用으로는 단령3점, 첩리1점, 조복(적초의, 裳)이 있으며, 일반 포류는 18점으로 심의1점, 도포3점, 중치막3점, 창의11점이다. 특히 袍의 받침옷으로 중치막과 소창의가 많은 것은 조선 중·후기 특징이다.

3) 半袖方領上衣가 1점 있다. 이 형태의 옷은 매우 드물게 나타나는 것으로 간편한 속옷의 전형을 살필 수 있다.

4) 바지 가운데 밑에 트인 겹누비가 1점 있다. 이 옷은 매우 귀한 옷으로 남성용 바지의 실용성에 대한 새로운 연구자료가 된다.

5) 보공물에 숨이 많은 편이다.

다른 예를 보면 일반적으로 옷을 많이 넣고 있으며, 모자라는 경우는 숨을 넣기도 하였다. 본 경우는 옷도 있지만 숨을 이용한 것이 많은 편이다. 숨을 명주 속에 집어넣고 바느질하여 관의 모서리나 시신의 사이에 넣었는데, 숨을 짜지 않고 수의를 입히면서 필요한 부분에 넣기도 하였다.

6) 심의에 帶와 組帶가 있어 심의의 구조와 着裝法을 알 수 있다.

帶를 매는 방법은 生時와 死後가 다르다. 특히 심의나 여성용 圓衫 帶가 그 예로 살았을 때는 生同心結로 死後에는 死同心結로 맨다. 따라서 본 출토물 심의의 帶 처리는 매우 중요한 자료가 된다.

7) 雲紋繡를 놓은 雲鞋를 신었다.

시신에 신을 신긴 경우는 드물다. 대개 옷감으로 만들어 사용한 경우가 대부분인데 貢緞에 雲紋을 繡로 놓은 운혜를 신고 있었다. 이 신은 매우 깨끗하고 바닥도 공단으로 된 것으로 보아 수의용으로 제작된 것으로 인정되지만, 통상 예복을 입은 초상화에 나타난 것과 같은 모양이다. 따라서 당시 운혜의 모양 및 재료와 만듬새를 알 수 있는 자료가 된다..

8) 시신의 수발형태를 알 수 있다.

머리카락은 상투를 틀고 玉貫子가 달린 網巾을 쓰고 있다. 얼굴에는 韓紙를 덮고 명목으로 얼굴을 가린 후에 幘巾을 쓰고 있었다.

이를 근거로 屍身을 염할 때 頭髮처리 상황을 재연하여 보면

ㄱ. 상투를 틀고 망건을 씌운다.

ㄴ. 상투 끝은 망건의 윗줄과 연결하여 묶는다.

ㄷ. 망건의 아랫쪽 당줄(貢緞으로 만들어짐)을 머리 뒤통수 쪽으로 둘러

풀리지 않게 양쪽에서 한번씩 걸어 꼬고 나머지 끈은 서려둔다.

ㄹ. 망건저리를 마치면 얼굴에는 韓紙로 가리고 코나 귀 등 구멍은 숨으로 막는다.

ㄴ. 명목으로 얼굴을 쓴다.

명목은 접이며 4개의 끈이 있다. 각기 위쪽의 끈과 아래쪽의 끈으로 머리의 위쪽과 목 아래로 뒤로 돌려 묶는다. 묶을 때는 매듭을 맺지 않고 한 번씩 좌우를 교차하여 꼬아서 둔다.

ㄷ. 복건을 씌운다. 복건의 끈은 뒤통수에서 서로 한번 교차시켜 꼬아 둔다.

9) 깃은 완만한 동그대깃 형태이다.

저고리나 포의 깃은 걸것을 앉힐 때 길 쪽으로 약간 굴렀다. 따라서 옷을 놓았을 때는 깃이 약간 구부러진 상태가 된다. 이는 조선 前期의 모관깃이나 현대 곧바르게 달아서 線이 바르게 떨어지는 것과는 다르다.

10) 바느질법이 매우 단순하다.

조선전기 바느질법은 매우 다양하고 정교하다. 본 유물에서는 주로 흙질 박음질 삼솔로 하였으며 현대의 방법과 비슷하다. 이는 전기 옷은 크고 종류가 다양했던 것에 비해서 壬辰倭亂 이후 차츰 短小化 簡素化하는 것과 연관이 있다고 본다.

217년 동안 후손이 마련하여준 幽宅에 고이 계시다가 현 세태에 따라 새 유택지로 옮기심을 기회로 이렇게 좋은 자료를 후손에게 제공해주신 정간공의 영전에 삼가 명복을 빕니다. 아울러 유물을 기증해주신 후손에게도, 또한 중요한 자료라고 생각하여 연락을 해준 이름을 알 수 없는 첫 번째 재보자를 비롯하여 상암동파출소, 중앙박물관, SBS의 김광천기자, 작업을 보조하여준 대학원 전통의상학과 학생 외에 많은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부록 : 본 박물관 출토복에 대한 세미나 및 전시일지

1981년 5월2일 石宙善紀念民俗博物館 개관이후 2000년 개관 19회까지 출토복에 대한 행사는 전시는 14회, 학술세미나는 1989년 개관 8주년 기념 행사 때부터 시작하여 11회를 개최하였으며 그 내용을 다음과 같다.

### 1. 출토복 전시

- 1) 1981년 7.13~19 壽衣特別展
  - 廣州李氏 수의, 1979년 경기도 果川출토, 1580년대,  
1980년 중요민속자료 제114호 지정
- 2) 1982년 5.8~15 개관1주년기념 제2회 壽衣특별전
  - 南陽洪氏 수의, 1980년 경기도 양주출토, 1450년대
  - 廣州李氏 수의, 1979년 경기도 과천출토, 1580년대
  - 全州李氏 수의, 1981년 경기도 용인출토, 1730년대
- 3) 1988년 5.2~5.10 개관7주년기념 출토복식특별전
  - 金海金氏(涵, 1568~1598, 중요민속자료 제209호)
  - 楊川許氏(1450년대 추정)
  - 廣州李氏(泰坤, 1672~1763)
- 4) 1989년 5.2~5.10 개관8주년기념 출토복식특별전
  - 城南出土 東萊鄭氏 출토복식(1529~1604) 30여점
- 5) 1990년 5.2~5.12 개관9주년기념 출토복식특별전
  - 驪州출토 東萊鄭氏 출토복식(1574~1669) 50여점
- 6) 1991년 5.2~5.10 개관10주년기념 출토복식특별전
  - 高陽 陵谷 茂院 出土 羅州丁氏 출토복식(1508~1572) 30여점

- 7) 1992년 5.2~5.12 개관11주년기념 출토복식특별전
  - 서울 下溪洞 出土 文化柳氏 출토복식(1615~1685) 20여점
- 8) 1993년 5.2~5.11 개관12주년기념 출토복식특별전
  - 廣州郡 出土 全州李氏 義安大君 襄昭公派(1431~1489)유물 20여점
  - 高陽市 幸信洞 출토 楊川許氏(1660년대 추정)유물 20여점
- 9) 1994년 5.2~5.12 개관13주년기념 출토복식특별전
  - 天安 雙龍洞 出土 豊山洪氏(1761~1841)유물 30여점
- 10) 1995년 5.2~5.15 개관14주년기념 출토복식특별전
  - 忠北 忠州市 牧溪洞 出土 豊山洪氏(1699~1763)유물 30여점
- 11) 1996년 5.2~5.15 개관15주년기념 출토복식특별전
  - 華城 鳩浦里 出土 隨城崔氏(1636~1698)유물 30여점
- 12) 1997년 5.2~5.16 개관16주년기념 출토복식특별전
  - 天安市 豊歲面 出土 濟州高氏(임진왜란 전후) 유물 40여점
- 13) 1998년 5.2~5.15 개관17주년기념 출토복식특별전
  - 坡州 金陵里 出土 慶州鄭氏(1481~1538) 遺物 40여점
- 14) 1999년 5.2~5.14 개관18주년기념 출토복식특별전
  - 경기도 일영 출토 高靈申氏(조선전기) 遺物 50여점

## 2. 출토복 연구 발표

- 1) 1989년 5월2일, 개관8주년
  - 城南出土 東萊鄭氏 出土遺物(1529~1604)에 관한 小考--朴聖實, 高富子
- 2) 1990년 5월2일, 개관9주년
  - 驪州出土 東萊鄭氏(1574~1669) 出土遺物 小考--高富子, 朴聖實
- 3) 1991년 5월2일, 개관10주년
  - 高陽 陵谷 茂院出土 羅州丁氏(1508~1572) 月軒公派 出土遺物 小

考--朴聖實, 高富子

4) 1992년 5월2일. 개관11주년

- 서울 下溪洞出土 文化柳氏 遺物 小考(1615~1685)---高富子, 朴聖實

5) 1993년 5월2일. 개관12주년

- 廣州郡 突馬面 朽栗里 出土 全州李氏 義安大君 襄昭公派 遺物 小考---朴聖實

- 高陽市 幸信洞 出土 楊川許氏 遺物 小考---高富子

6) 1994년 5월2일. 개관13주년

- 天安 雙龍洞 出土 豊山洪氏(1761~1841) 遺物 小考---朴聖實

7) 1995년 5월2일. 개관14주년

- 忠北 忠州市 牧溪洞 出土 豊山洪氏(1699~1763) 유물 小考---高富子

8) 1996년 5월2일. 개관15주년

- 華城 鳩浦里 出土 服飾 小考---朴聖實

9) 1997년 5월2일. 개관16주년

- 天安市 豊歲面 出土 濟州高氏(임진왜란 전후) 유물 연구---高富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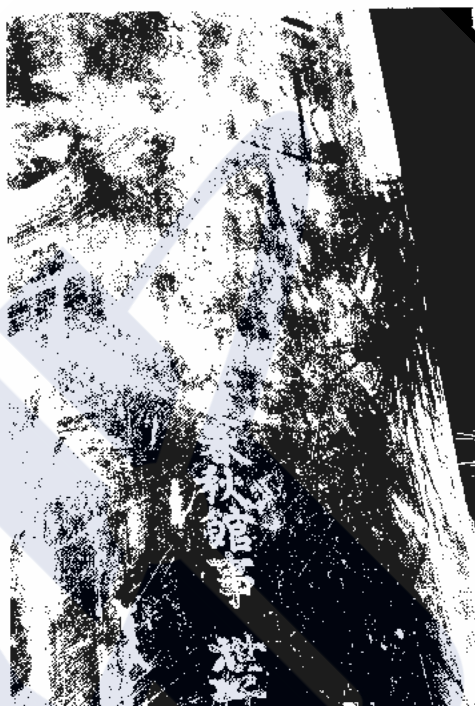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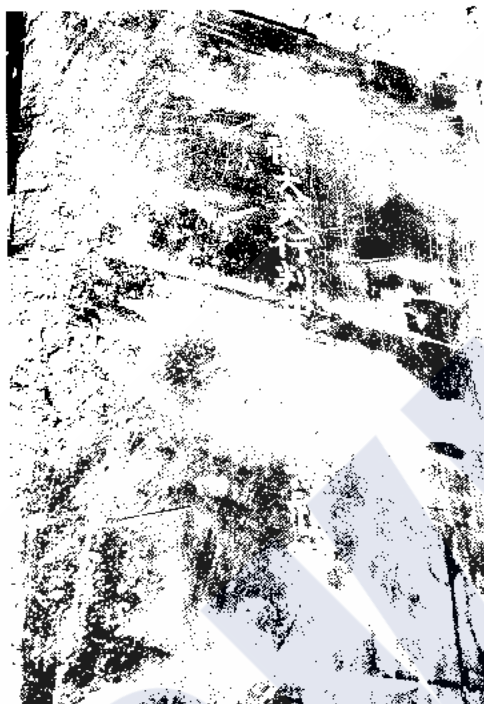
10) 1998년 5월2일. 개관17주년

- 坡州 金陵里 出土 慶州鄭氏 遺物 小考---朴聖實

11) 1999년 5월2일. 개관18주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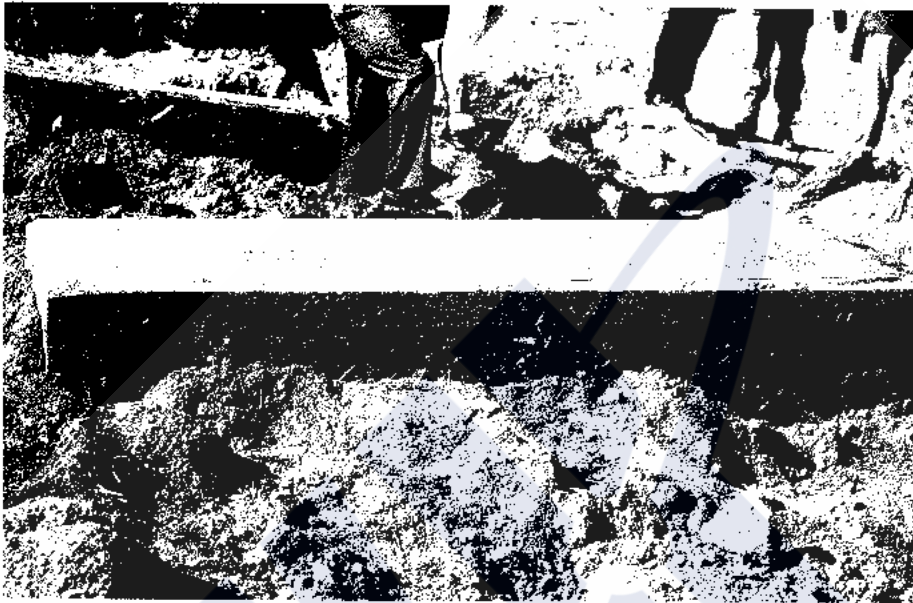
- 경기도 일영 출토 高靈申氏 遺物 小考---高富子

## 1. 출토현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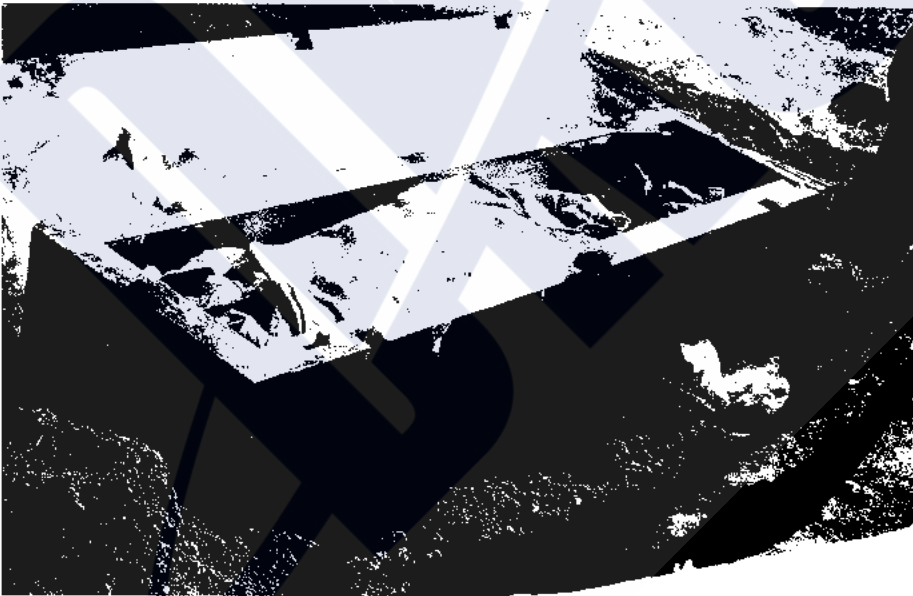


1. 棺 표면, 銘旌부분 上(↖)
2. 棺 표면, 명정부분 中(↑)
3. 棺 표면, 명정부분 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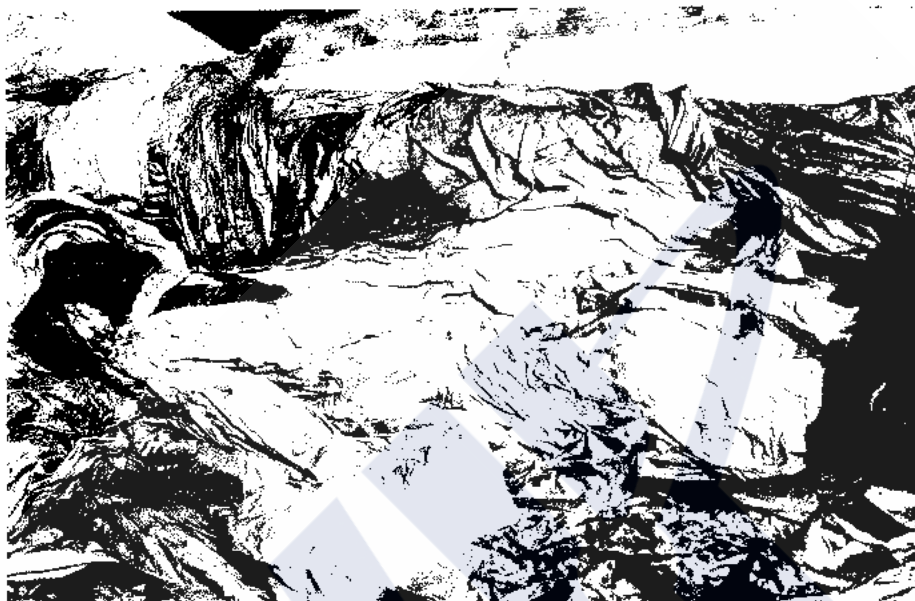
<輔國崇祿大夫行判中樞府事兼禮曹判  
書判義禁府事知 經筵春秋館事 世子  
右賓客李公之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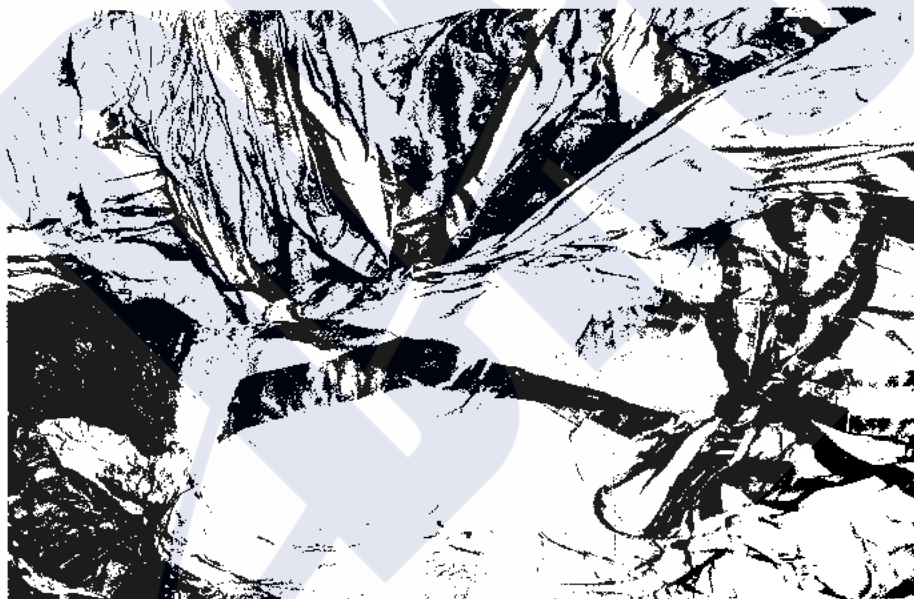
4. 관 외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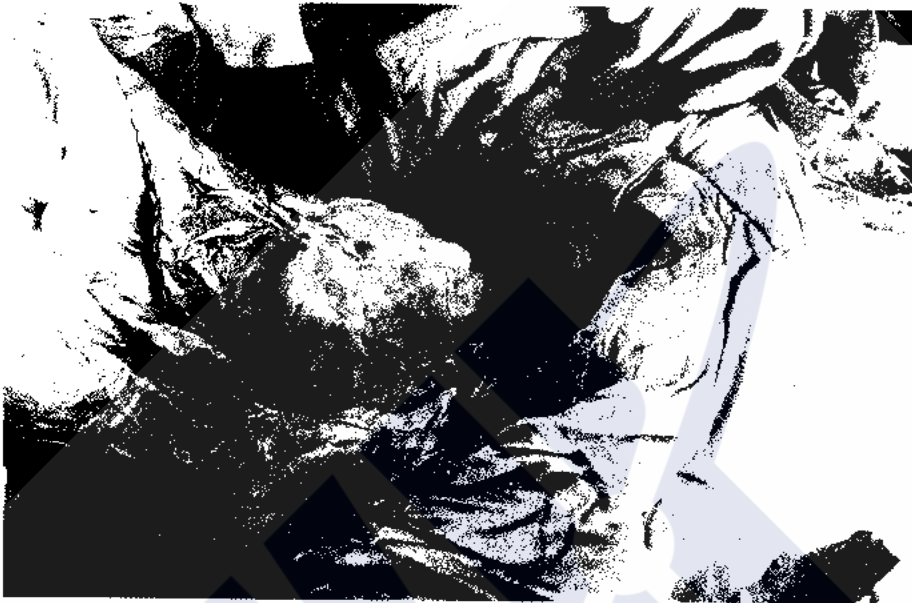
5. 관 내부 유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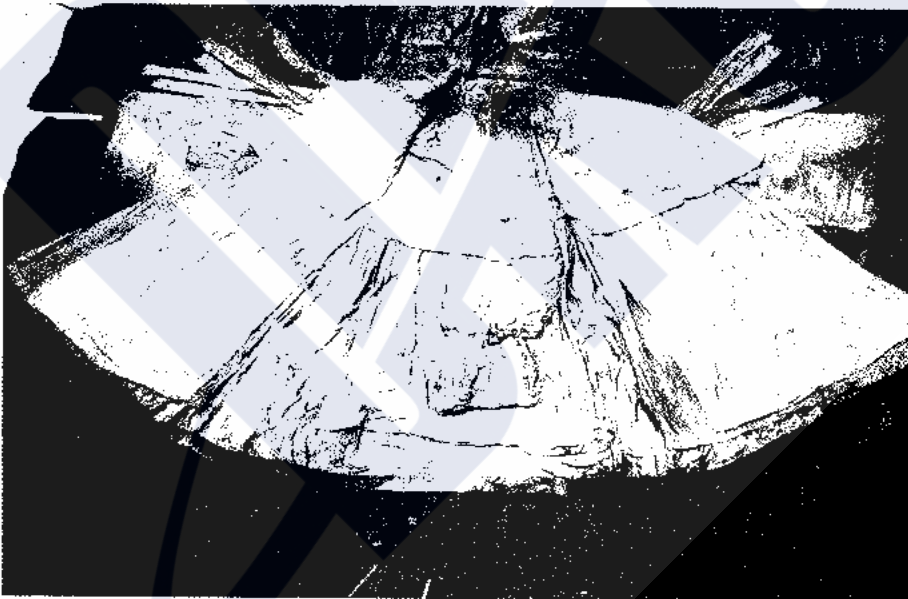
6. 보공물을 걷어낸 후 수의(심의)를 입고 있는 모습



7. 시신의 上部. 얼굴에 명목을 덮고, 심의와 帶를 맨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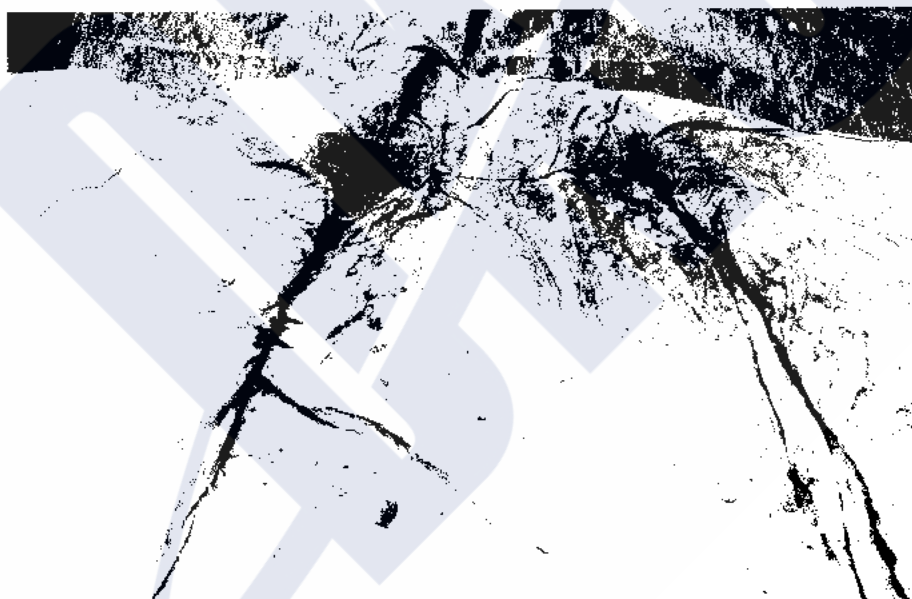
8. 시신의 下部. 발에 신(雲鞋)과 버선을 신고 행전을 차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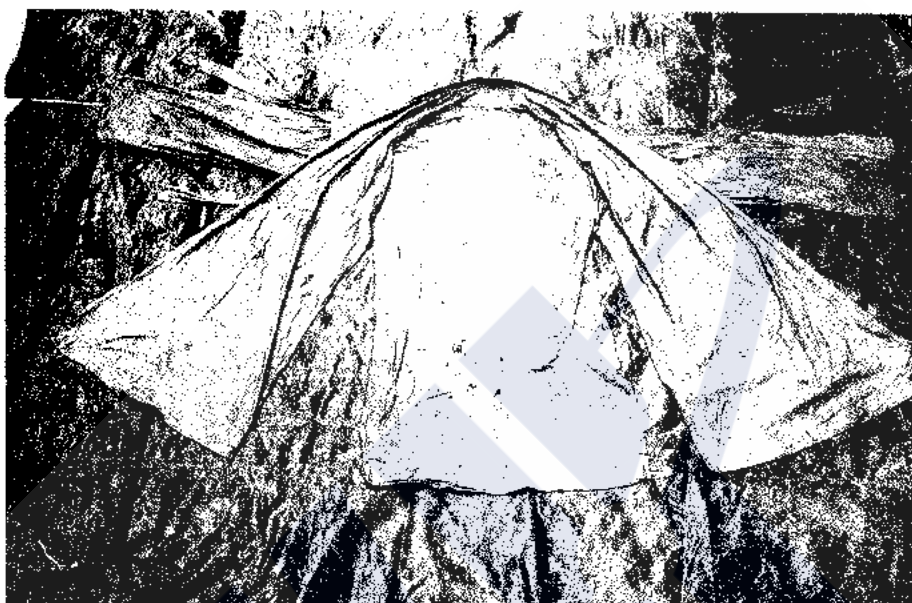
9. 수의일습. 시신(뼈)을 수거한 후 수의 전체.  
 제일 안은 적삼이고, 겉은 심의이다.  
 적삼 뒤에 보공솜뽕치가 들어있다.



10. 수의일습, 겉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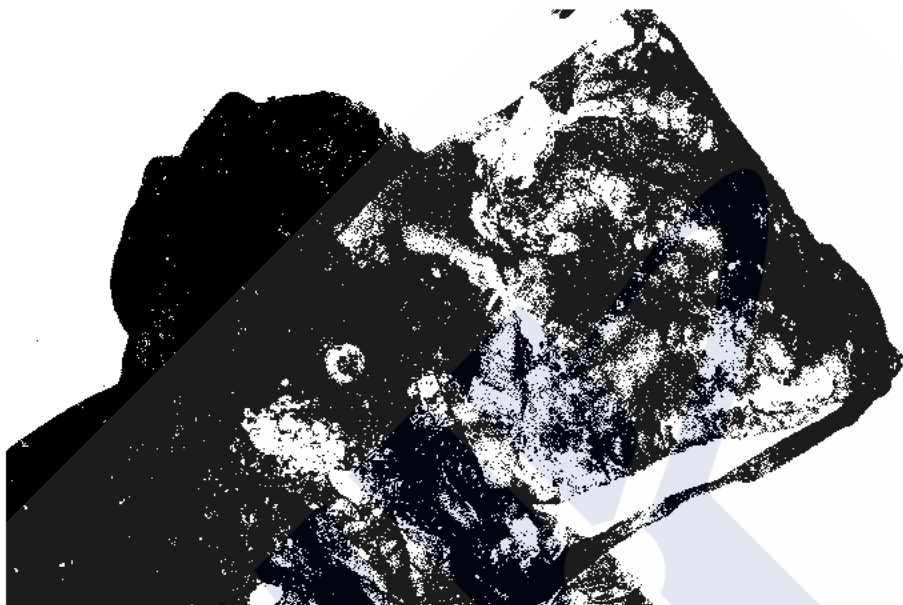
11. 적삼에 물은 시신의 잔해, 뼈가루 기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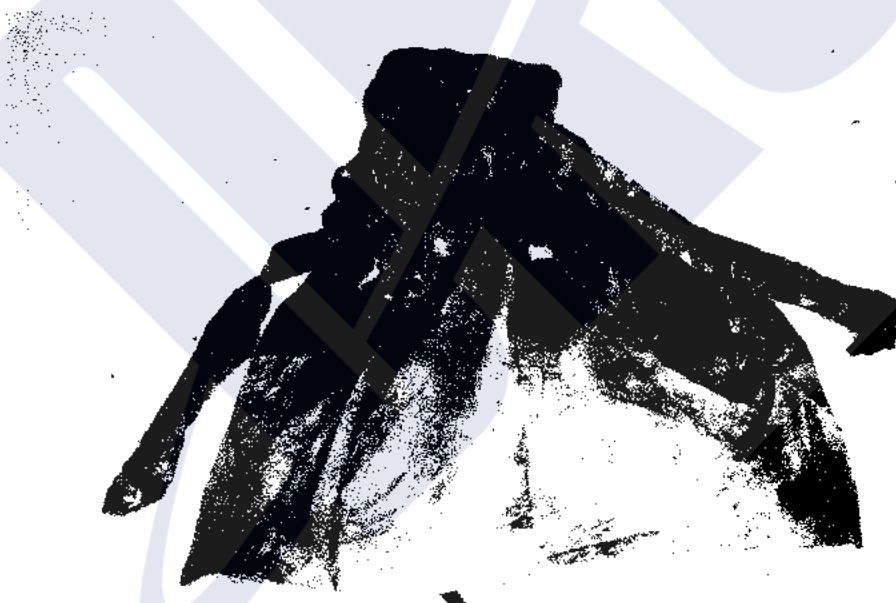
12. 수의 : 소창돛, 적삼 위에 입었던 것



13. 보공으로 돛 사이에 넣었던 숨뭉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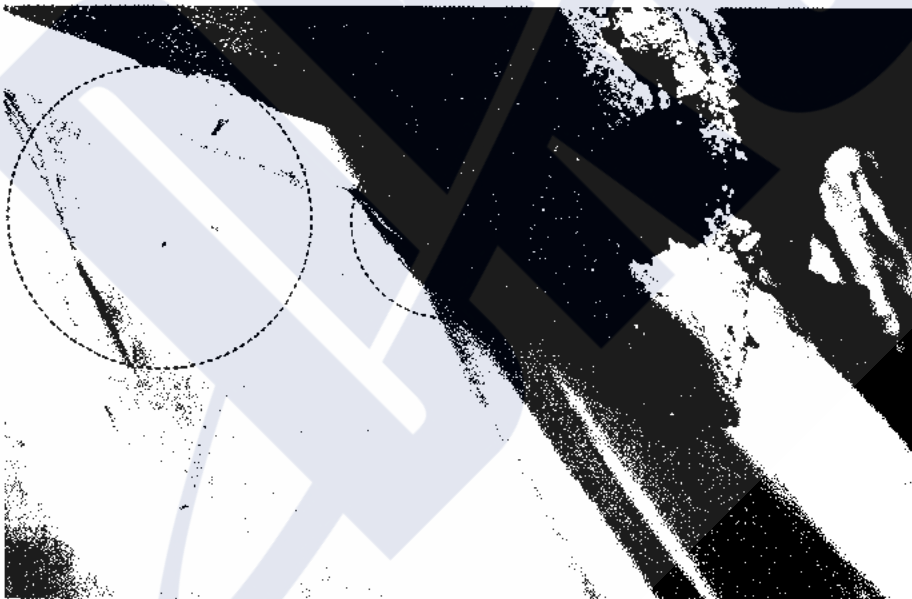
14. 머리부분 : 복건, 망건, 관자, 머리카락, 수염, 한지, 숨, 우물.  
젖혀진 것이 명목의 안쪽



15. 복건 뒷부분



16. 五囊 중 하나 : 落齒, 주머니 속에 들어 있었던 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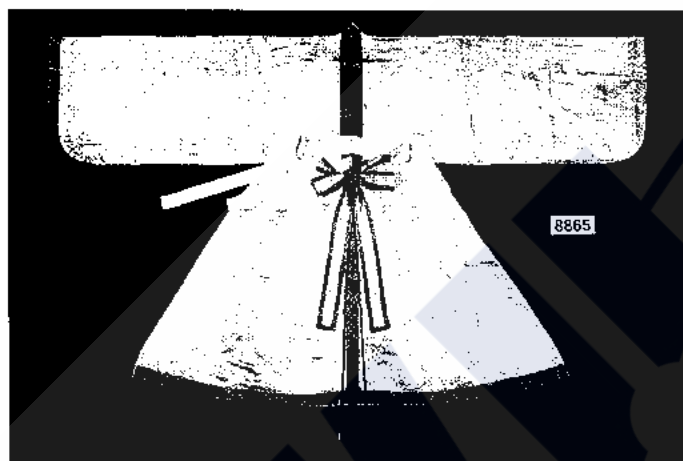
17. 紅蓋板, 젖혀진 상태, 조각(좌측 柅衣), 폐백(우측 上部)



18. 深衣와 組帶부분

## 2. 홀토유물

### 1) 深衣 (심의대, 組帶) ... 수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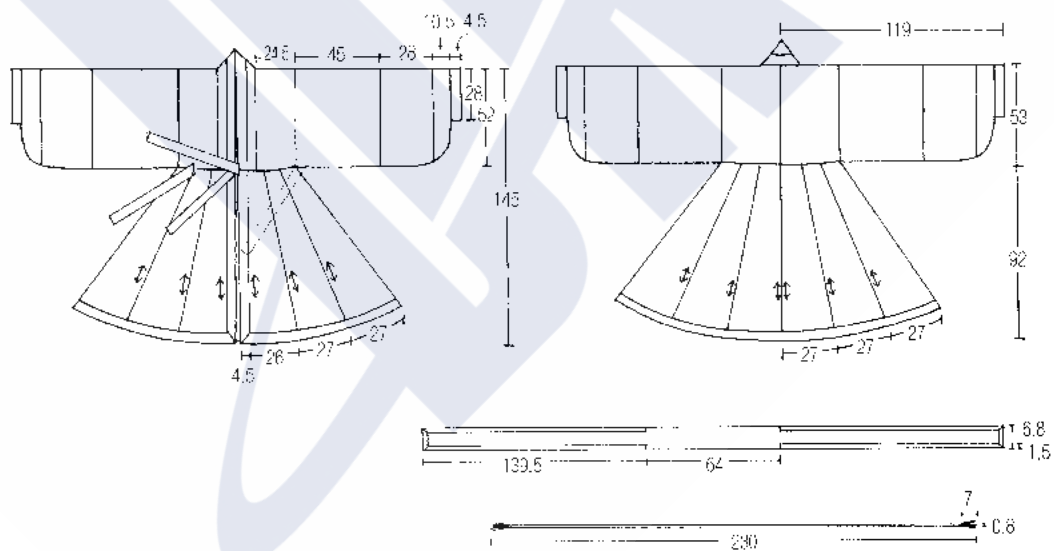


공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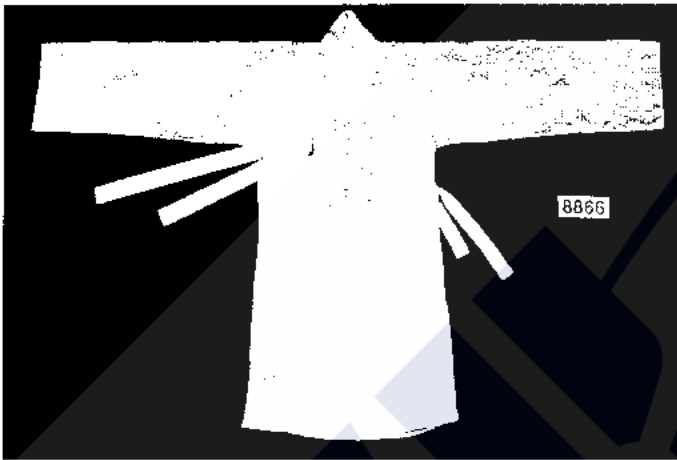
홀

검정색으로 선(4.5cm)을 두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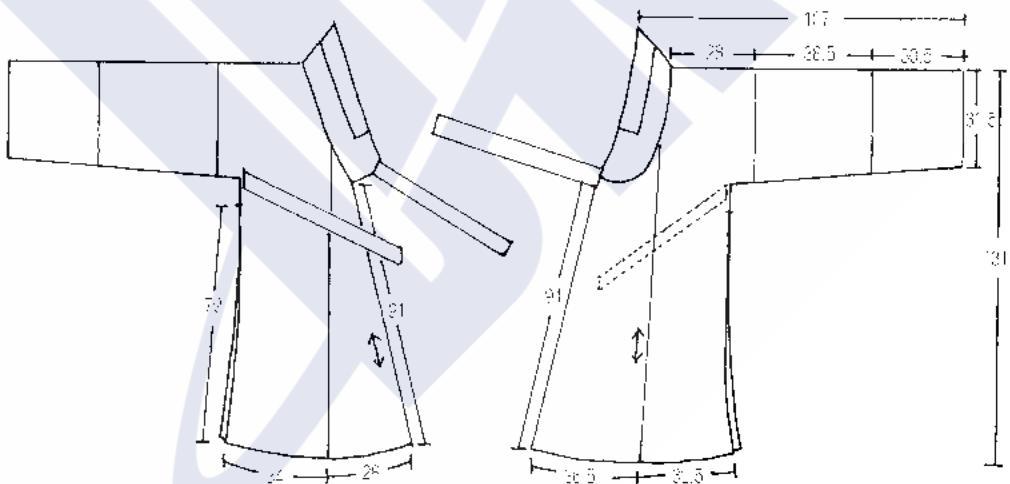
옷고름 52/5cm



## 2) 소창의 ... 수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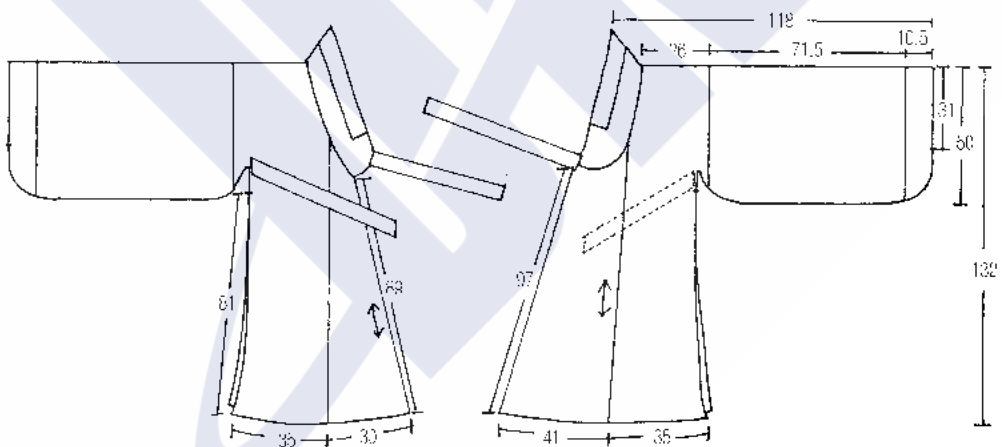
길 : 공단, 안 : 명주  
동정과 옷고름이 달린  
세자락  
숨이 들어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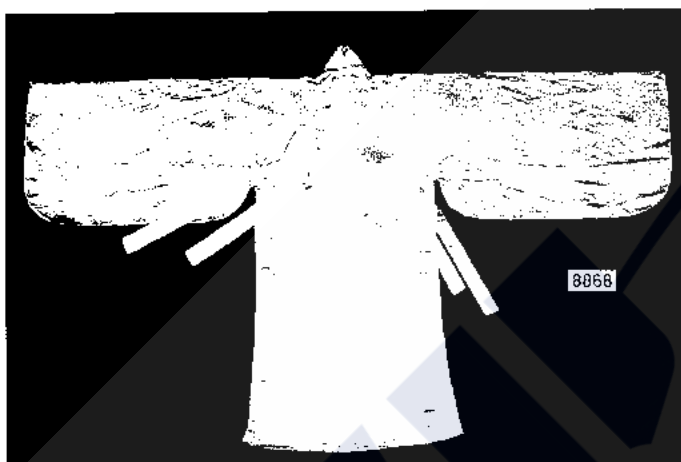
### 3) 중치막 ... 수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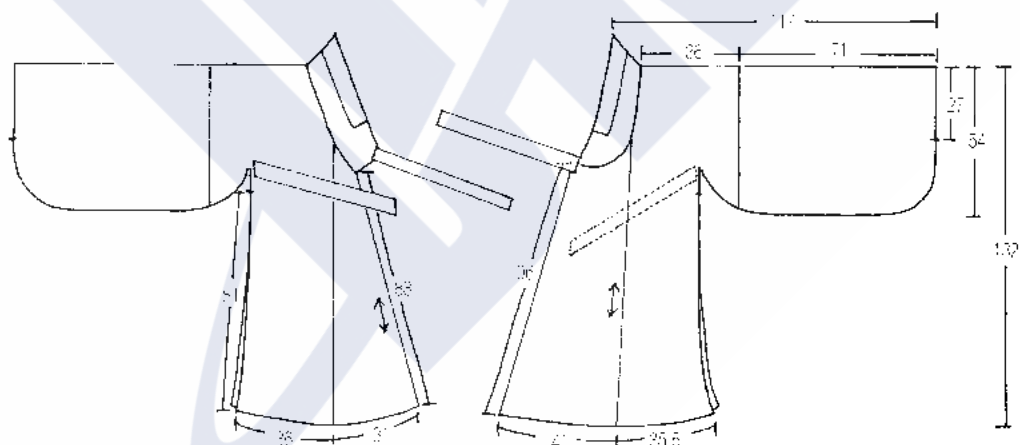
겉 : 공단, 안 : 명주  
 동정과 옷고름이 달림  
 세자락  
 옷고름 58/5.7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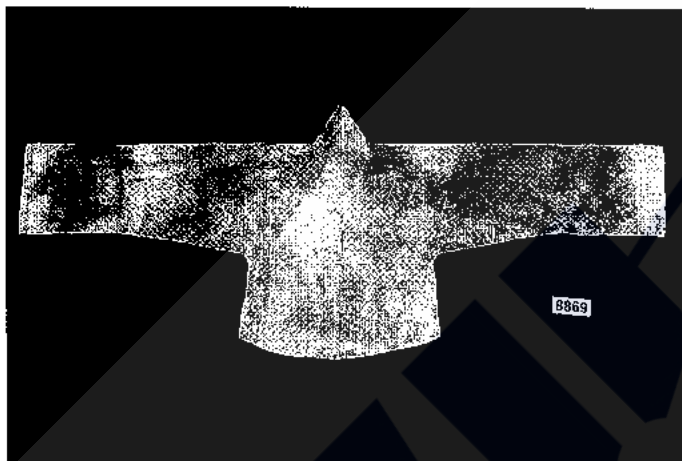
#### 4) 중치막 ... 수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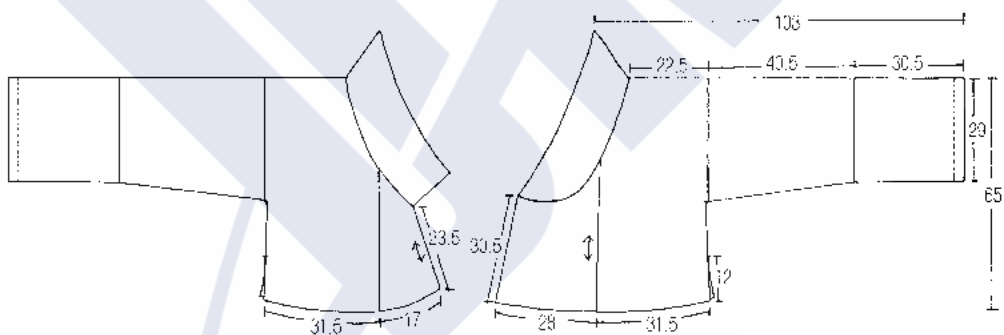
겉 : 공단, 안 : 명주  
 동정과 옷고름이 달림  
 세자락  
 옷고름 겉고름 54/6.3cm  
 안고름 54/5cm



5) 적삼 ... 수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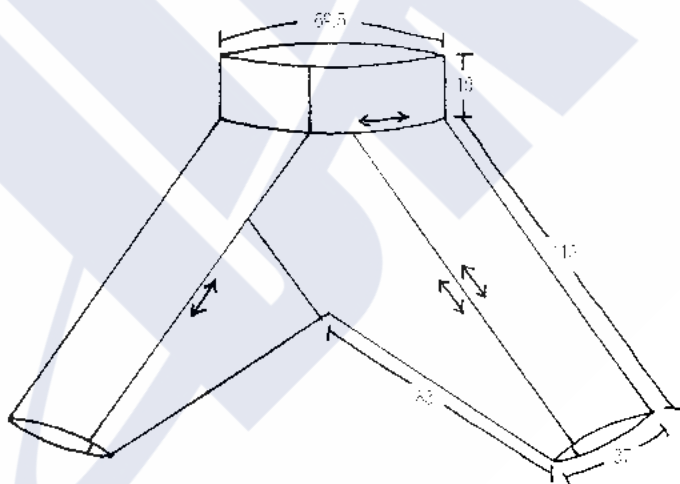
삼팔주  
홀  
수구에 한삼 달림  
옆트임 12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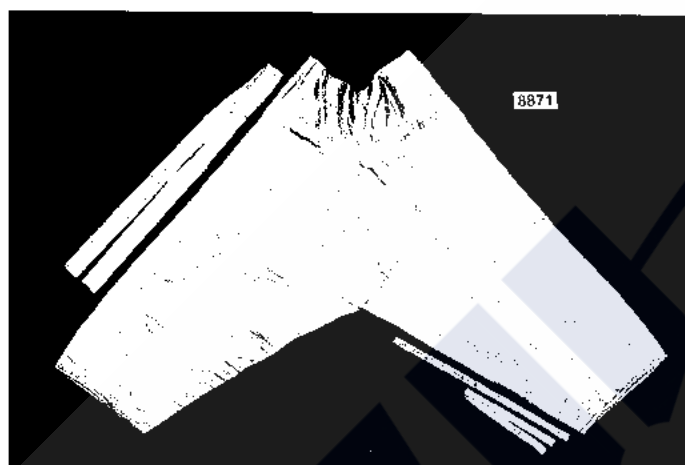
6) 袴衣 … 수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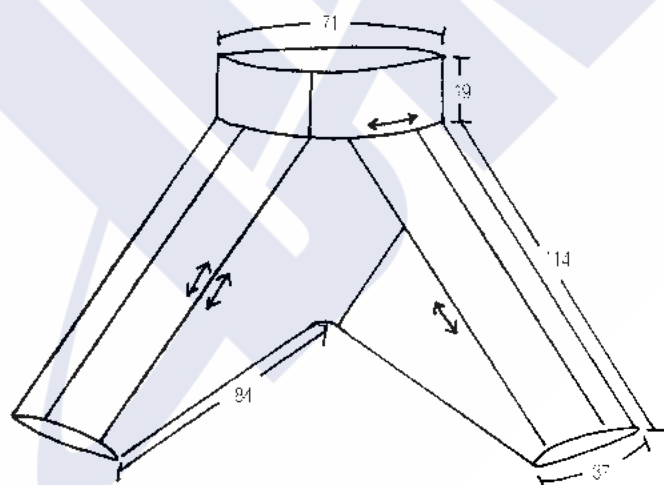
삼팔주  
홉



7) 솜바지 ... 수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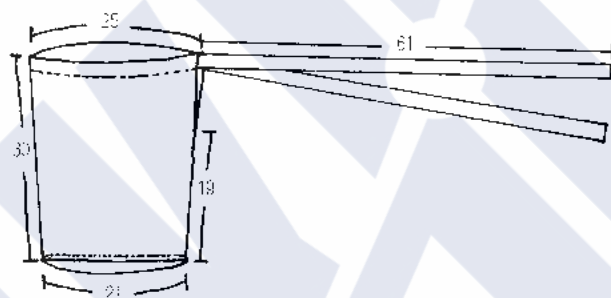
겉 : 공단, 안 : 명주  
솜이 들어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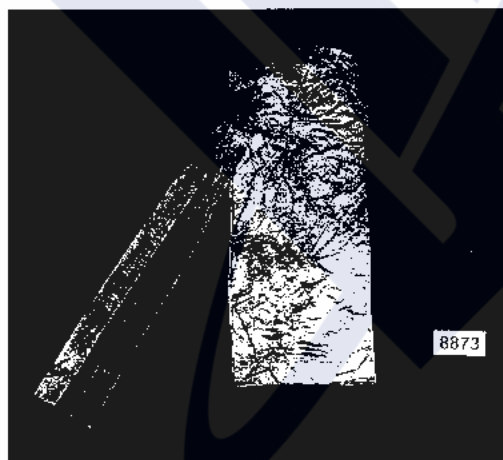
8) 행전 ... 수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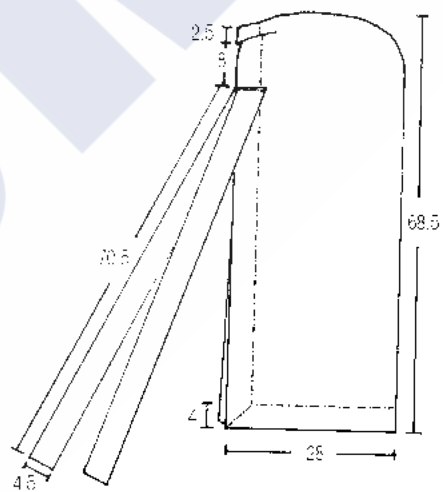
삼팔주  
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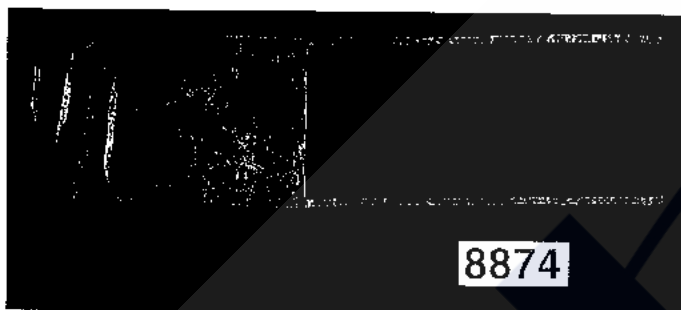
9) 복건 ... 수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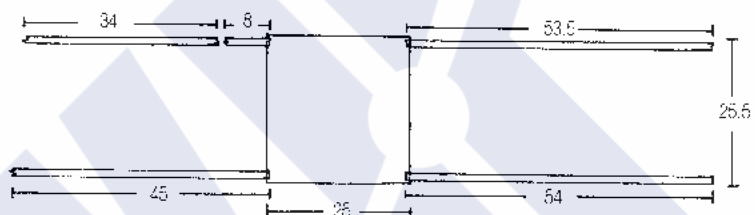
공단  
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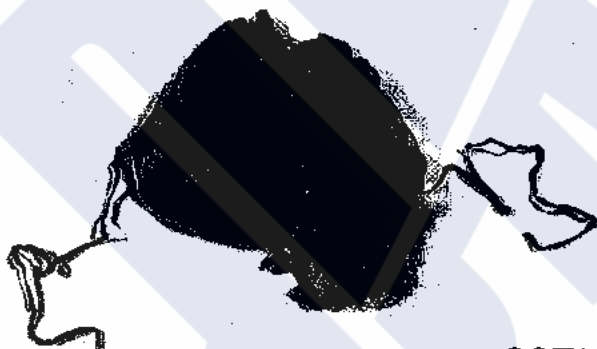
10) 명목 ... 수의



공단  
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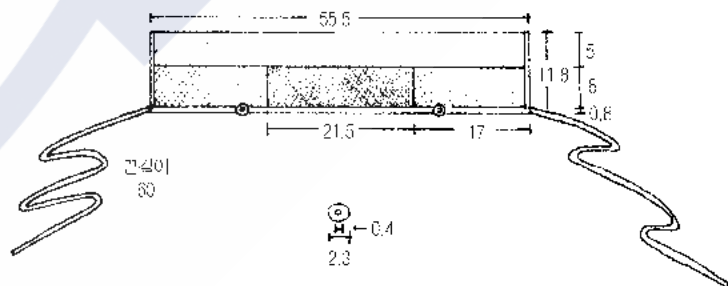


11) 망건 ... 수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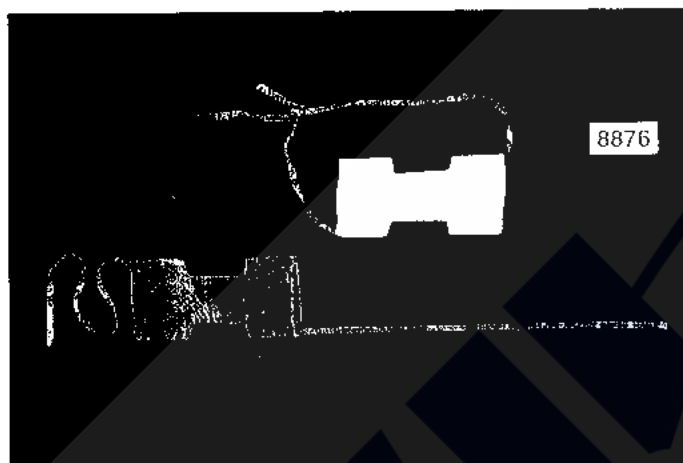


말총(馬尾)  
옥관자 2개 달림

8875



12) 악수 ... 수의



공탄  
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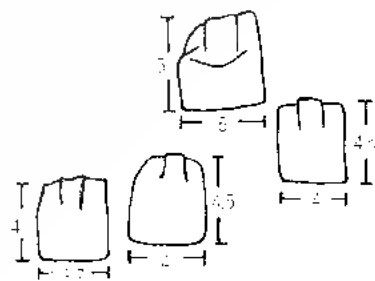


13) 오낭(五囊) ... 수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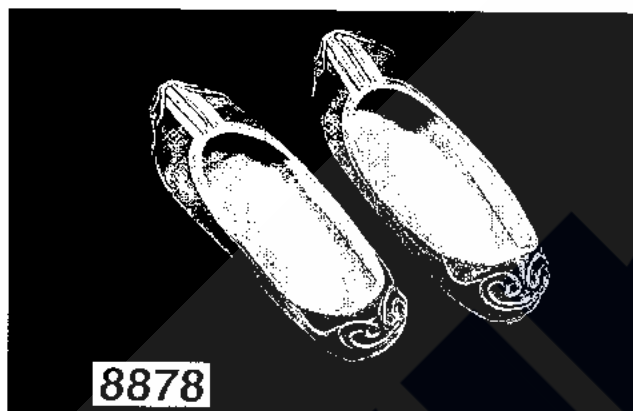


공탄  
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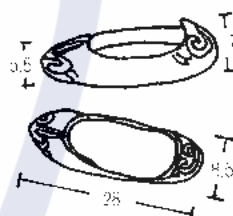
중양 右足, 右手, 落齒, 頭髮이라고 씌



13) 신(雲鞋) ... 수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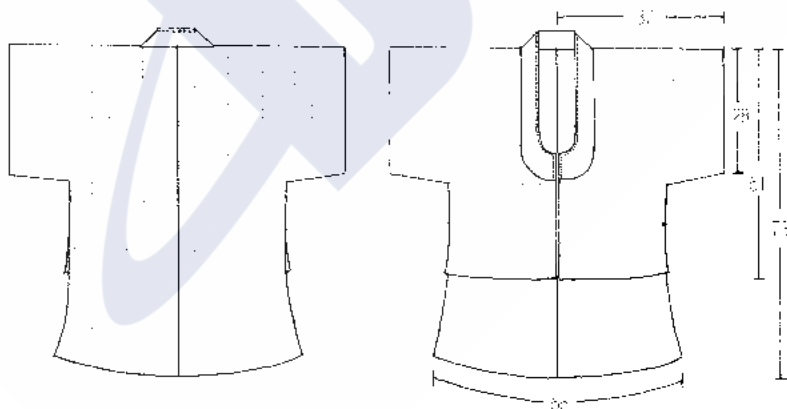
공단



15) 半袖方領上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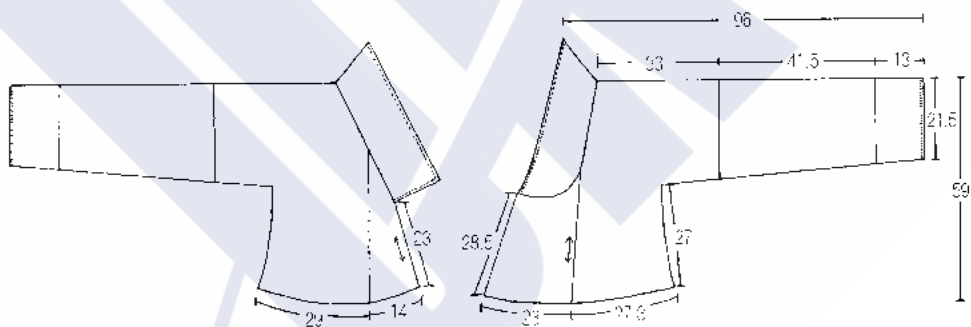
겉 : 삼팔주, 안 : 명주  
목화숨을 얇게 넣고 누빔  
누비간격 3.8~4cm  
앞여밈은 對衿, 소매는 半袖  
前短後長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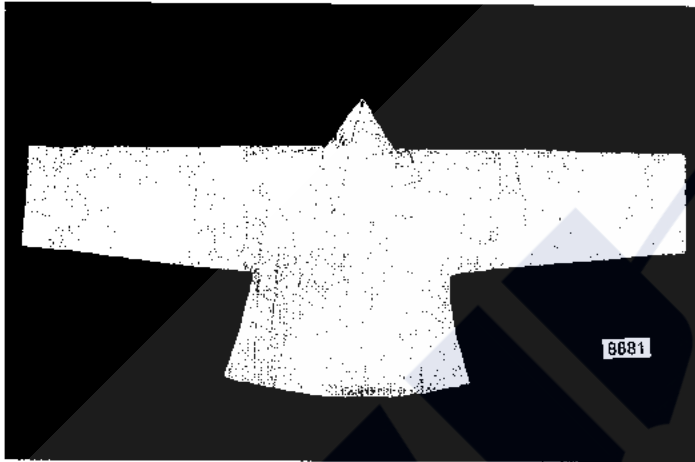
16) 겹저고리



겉 : 갑증, 안 : 명주  
 풀숨이 들어있음



17) 누비저고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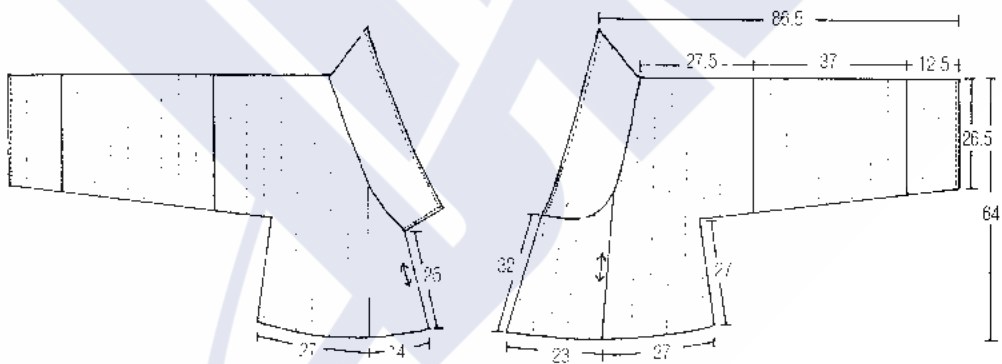


겉. 안 : 명주

숨을 얇게 넣고 누빈

누비간격 4.5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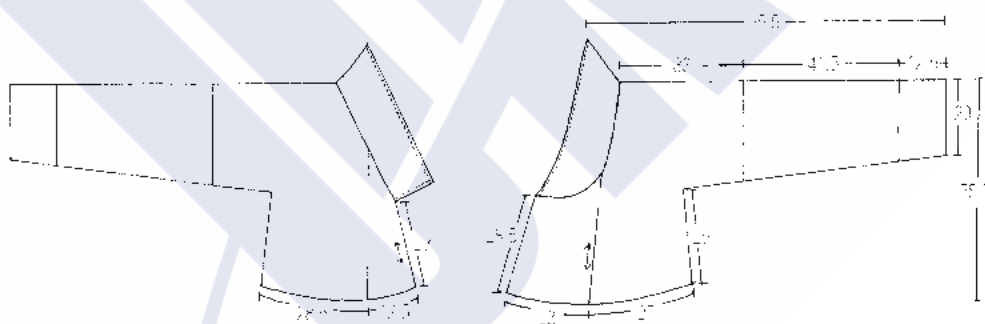
고름이나 동정은 달았던 위치를 알 수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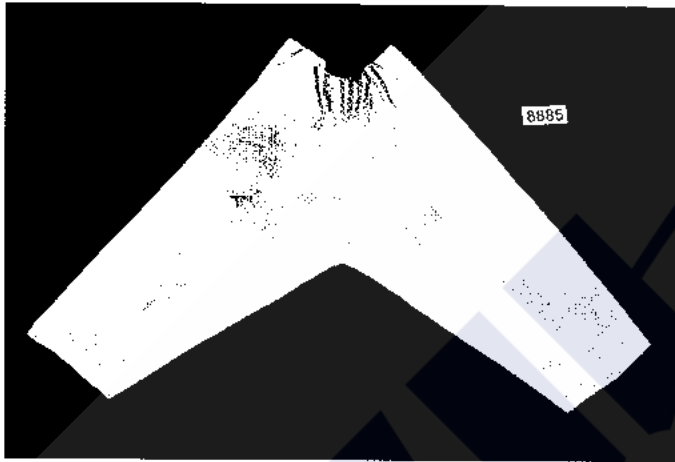
18) 솜저고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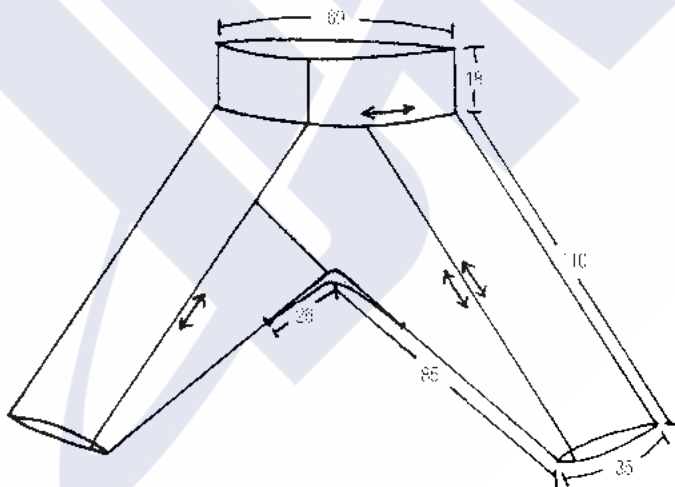
겉 : 갑종, 안 : 병주  
목화솜이 들어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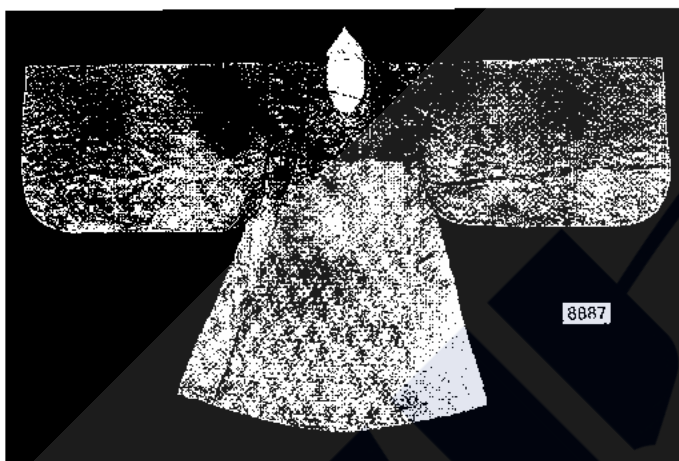
# 19) 누비바지



겉, 안 : 명주  
숨이 없는 누비바지  
누비간격 2cm  
밑이 58cm 트여있음



20) 團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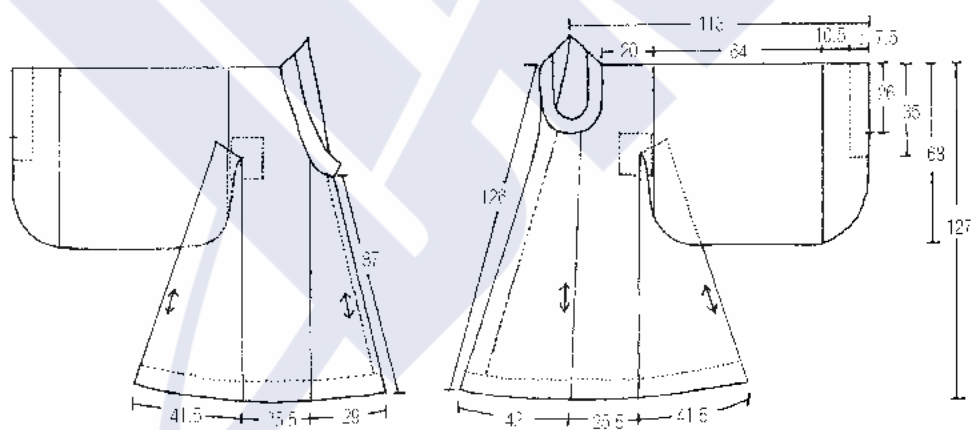


겉, 안 : 雲寶紋紗

겉과 안을 불규칙하게 정겨줌

앞무릎(삼각형부분)에만 한지를 넣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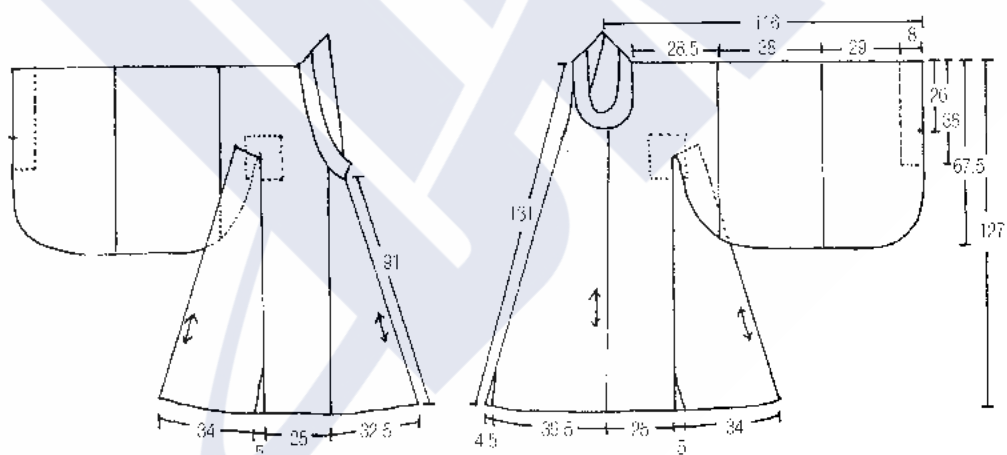
두리소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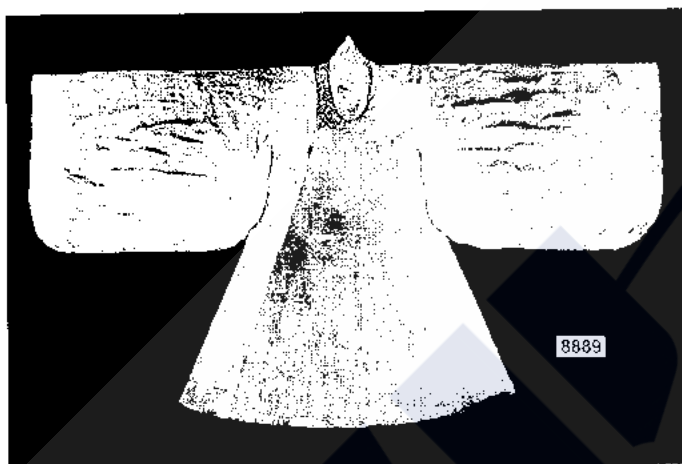
## 21) 단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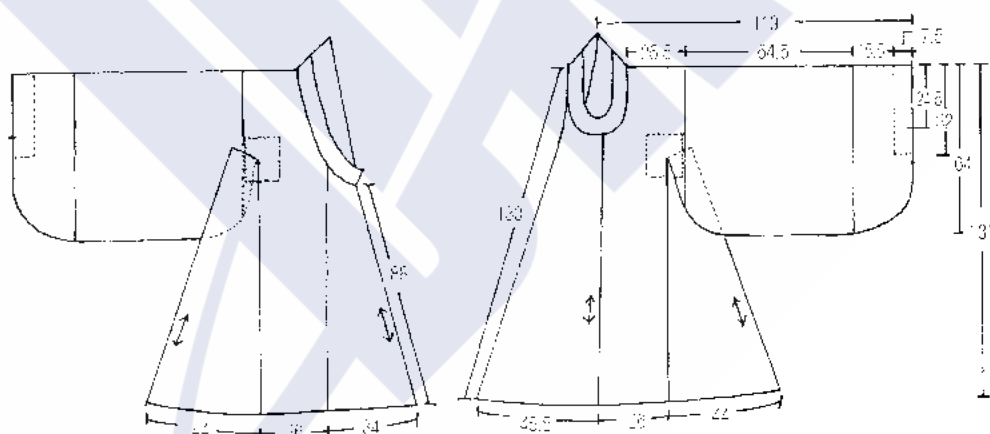
겉 : 갑증, 안 : 공단  
 뒷길 안쪽에 숨이 있음  
 겉과 안을 불규칙하게 징거줌  
 두리소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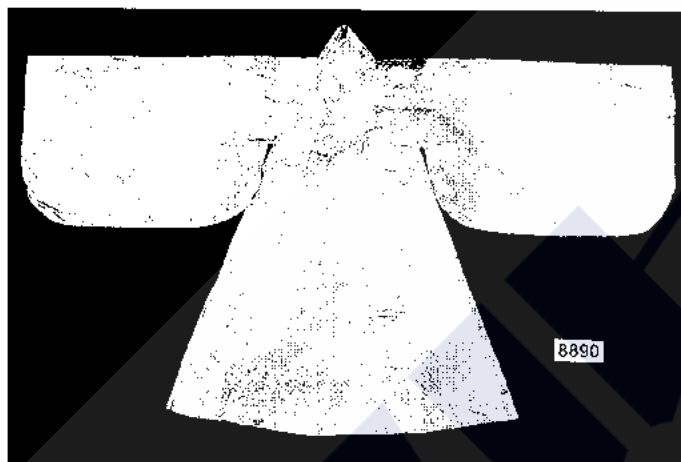
## 22) 단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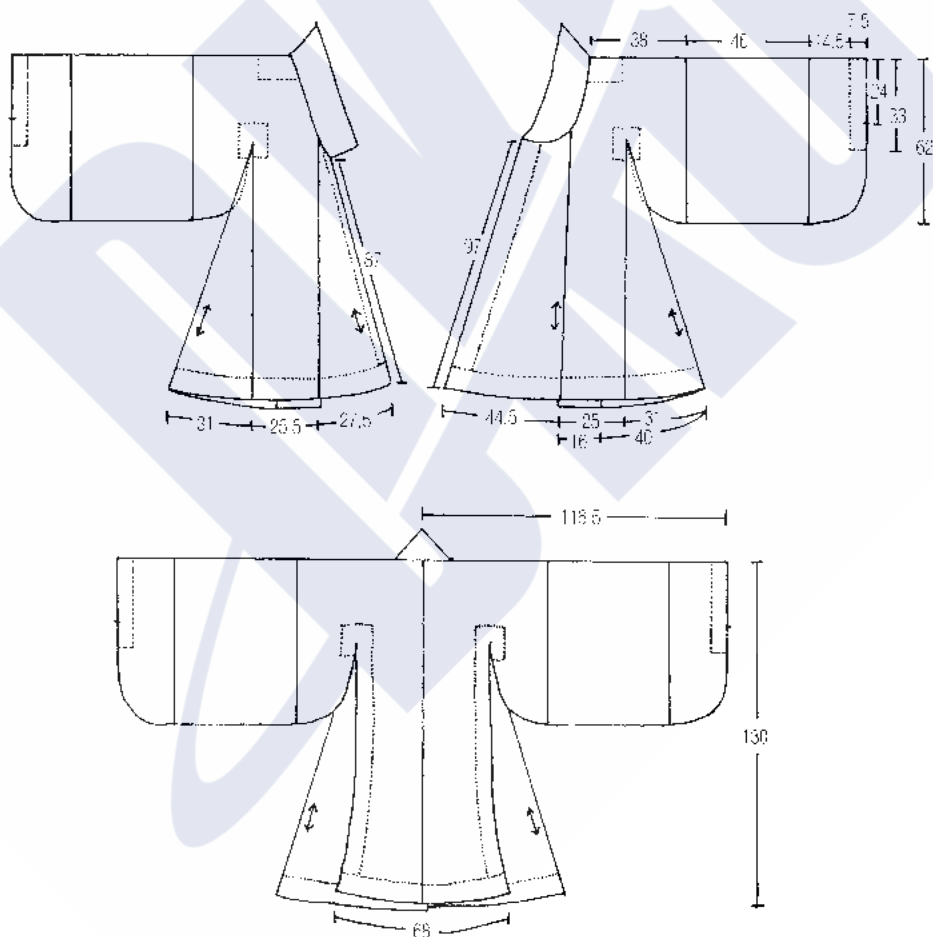
겉 : 雲寶紋緞, 안 : 공단  
 겹에 0.5cm 간격으로 석땀상침  
 겉과 안을 불규칙하게 징거줌  
 두리소매



23) 道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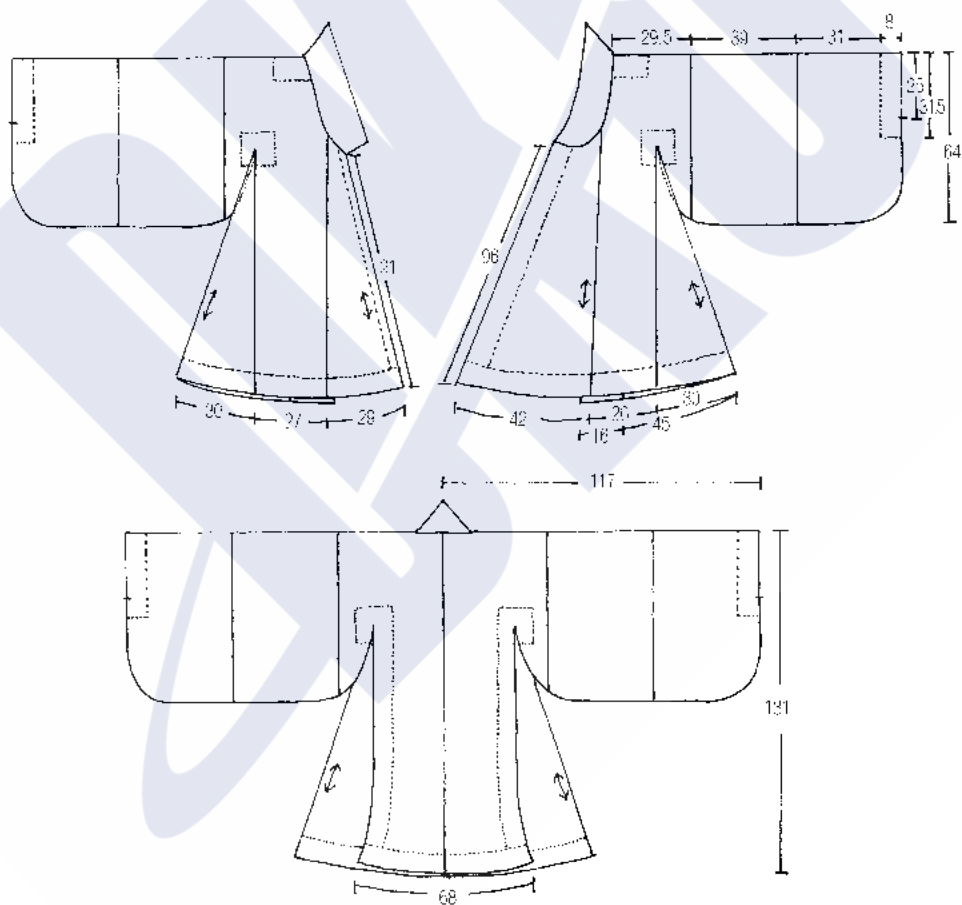
명주  
홀  
뒷길중심이 9.5cm 겹침  
두리소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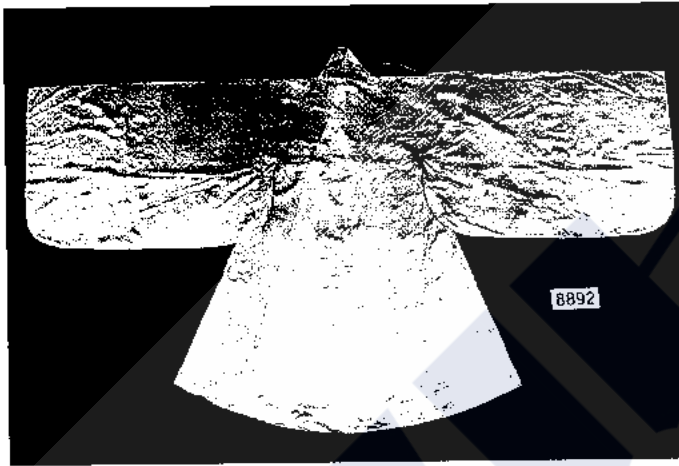
24) 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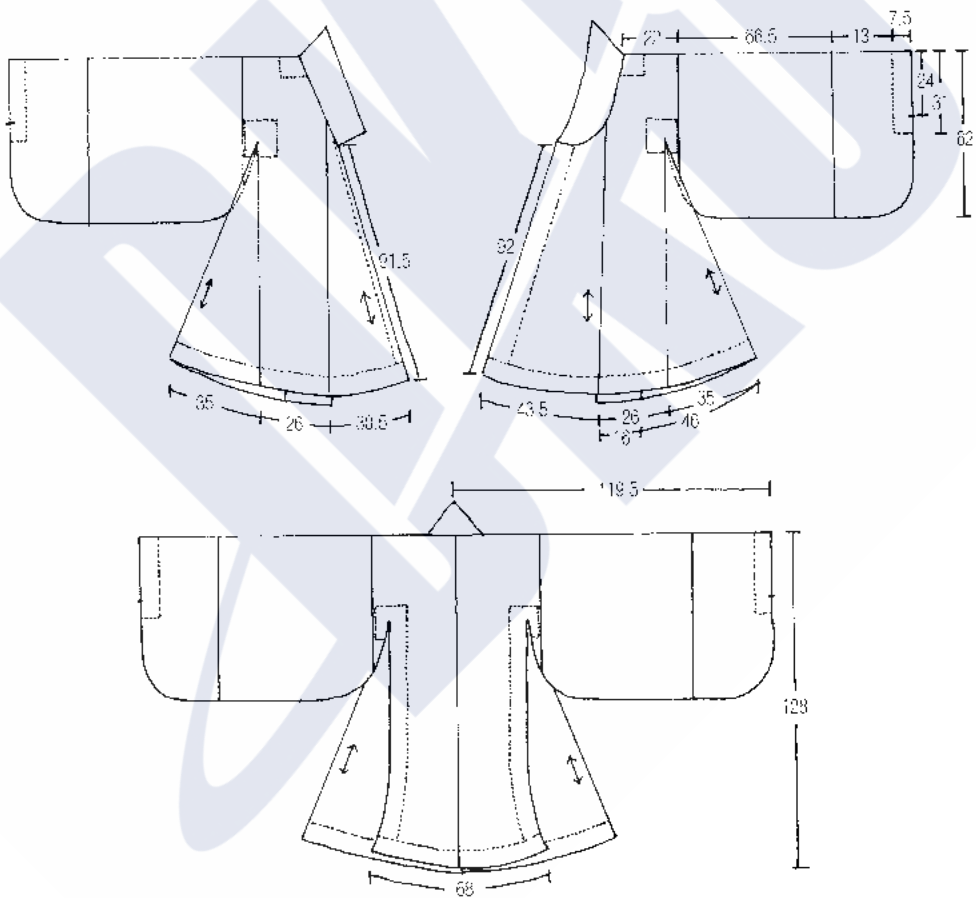
명주  
홀  
뒷길중심이 6cm 겹침  
두리소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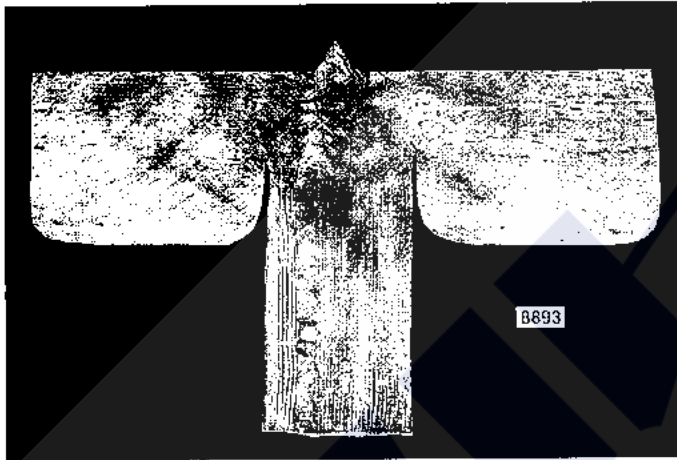
25) 도포



공단  
흔  
뒷길중심이 1cm 겹침  
두리소매



26) 첩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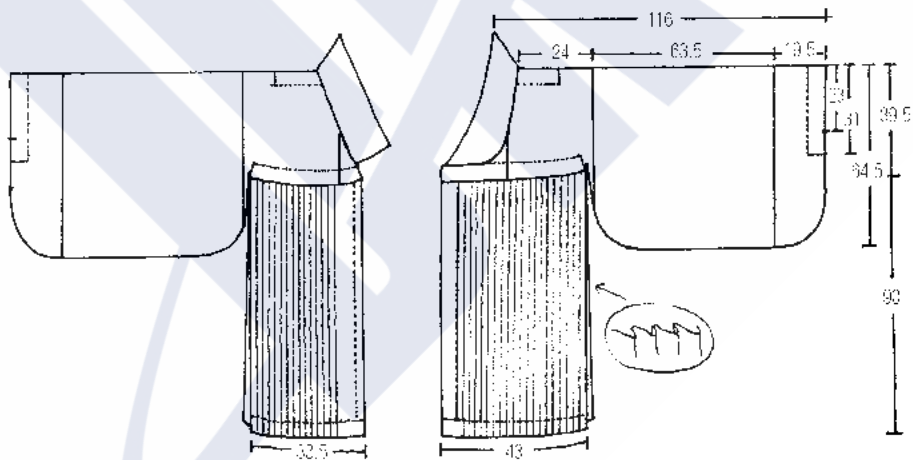
雲寶紋緞

홀

세자락

치마는 도련까지 주름을 잡아줌

주름너비 1.4cm



27) 조복(赤稍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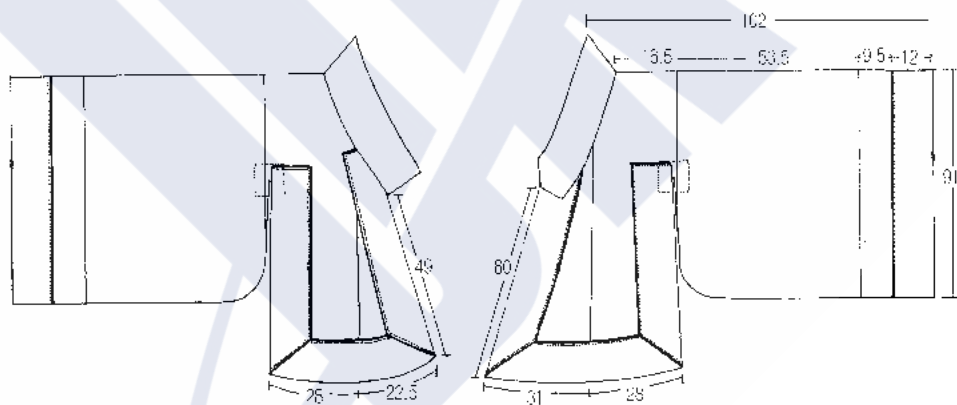


三足瓦羅

홀

덧단 12cm

수구 중심에 사뜨기 해준



28) 조복(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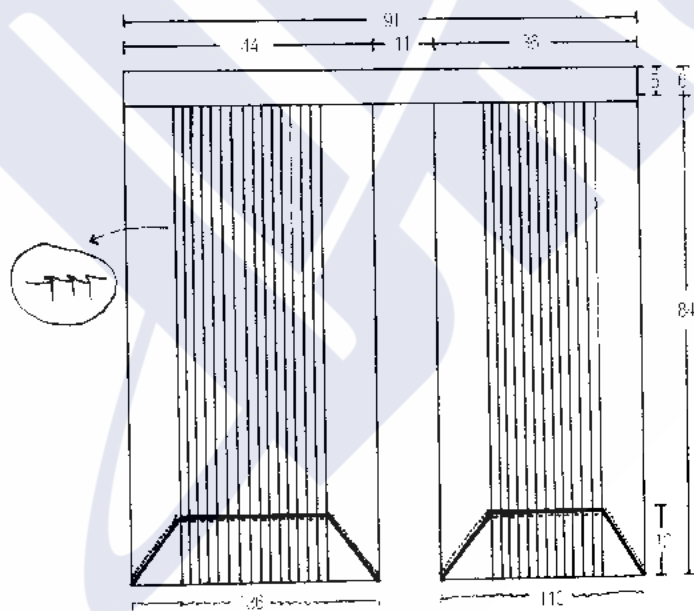
三足九羅

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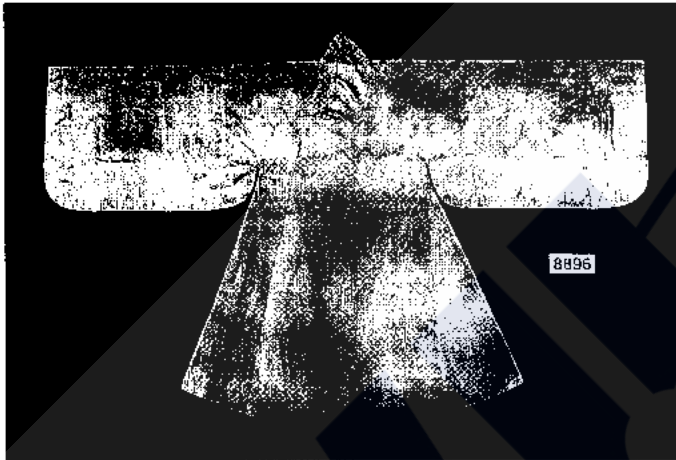
허리부분은 명주 사용

주름너비 1.6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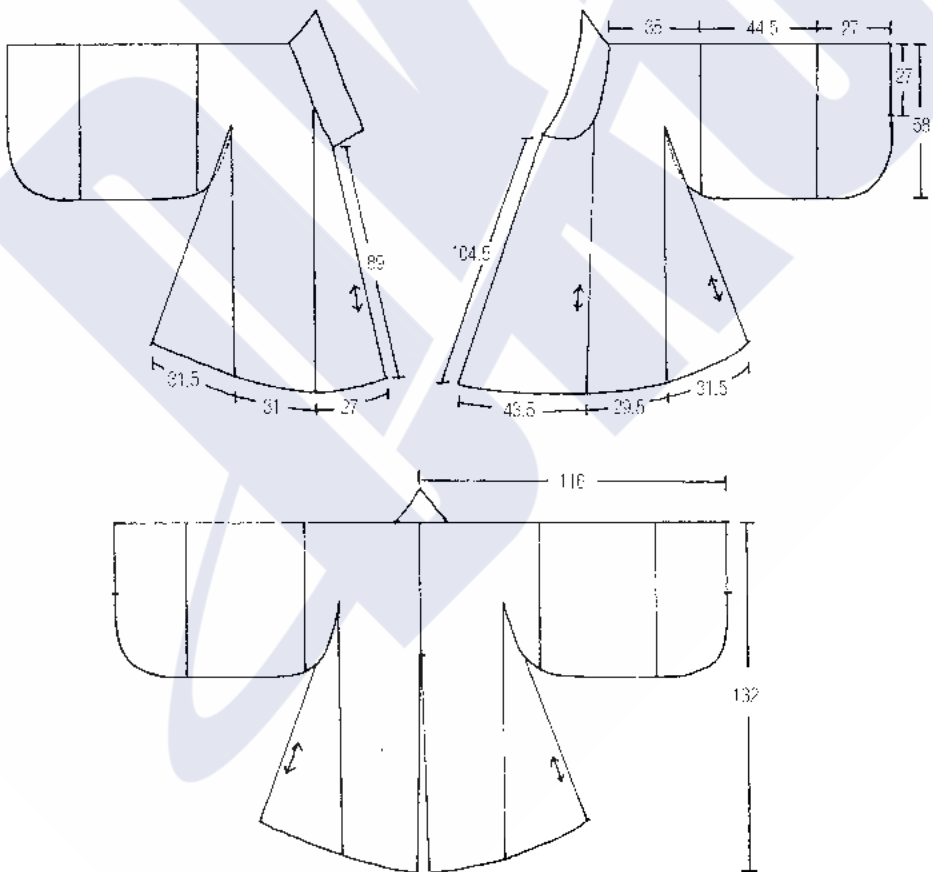
고름 달았던 흔적 보임



29) 대창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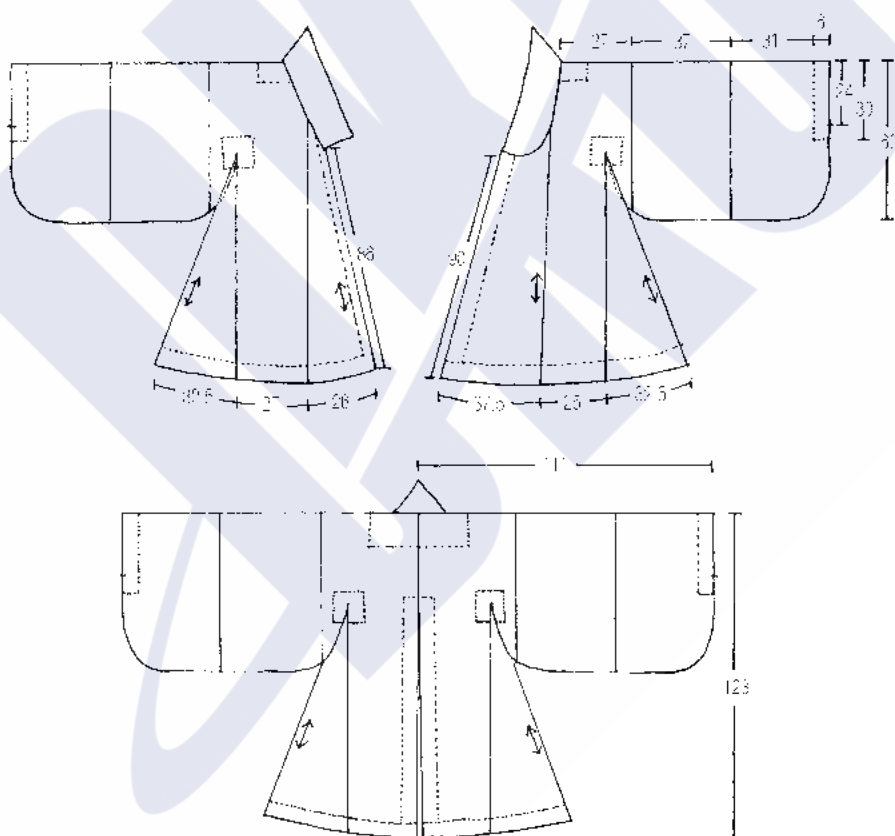
명주  
점  
뒹트임 82cm



30) 대창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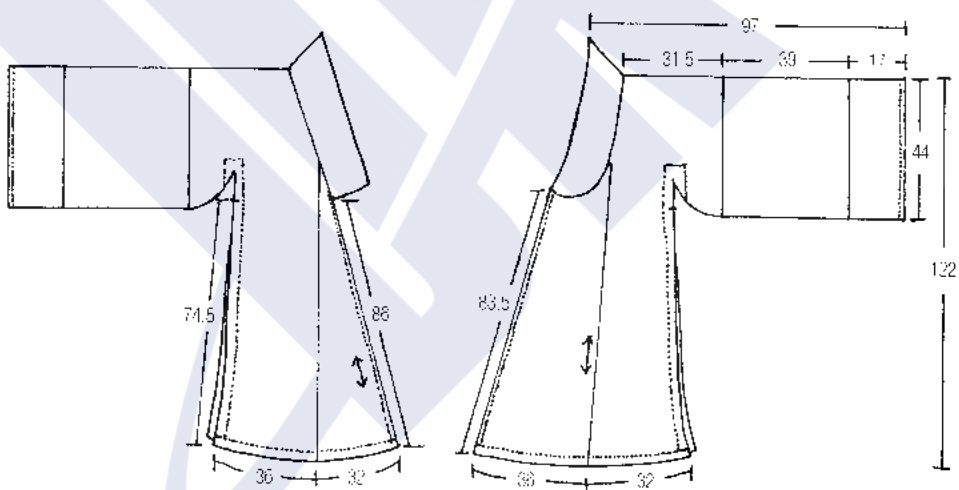
명주  
홀  
뒷트임 85cm



### 31) 중치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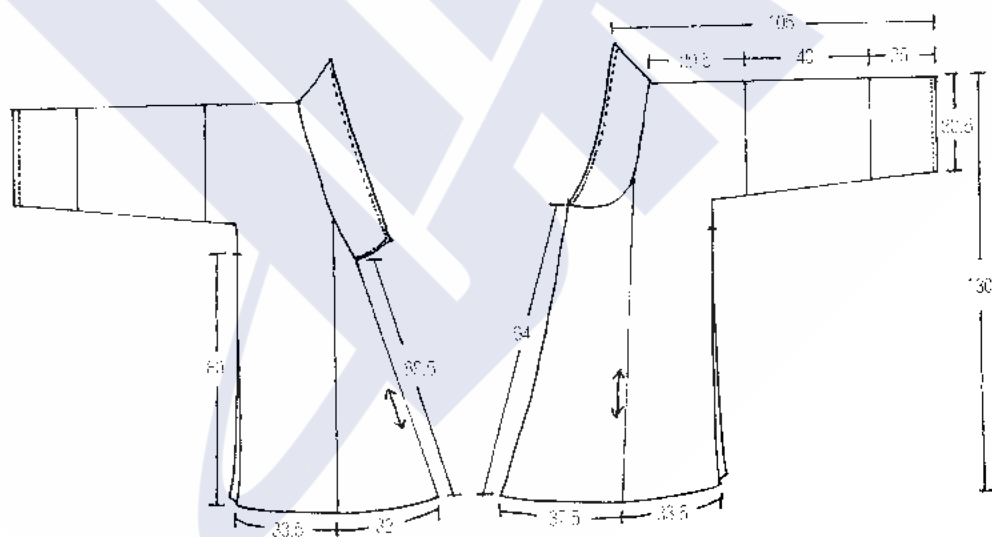
삼팔주  
홀  
세자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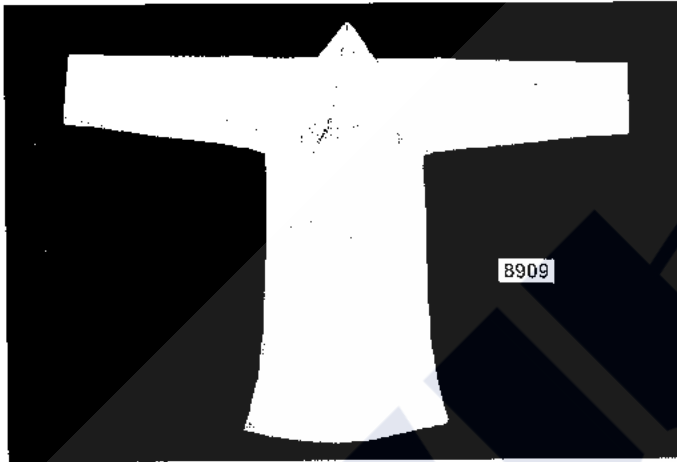
### 32) 소창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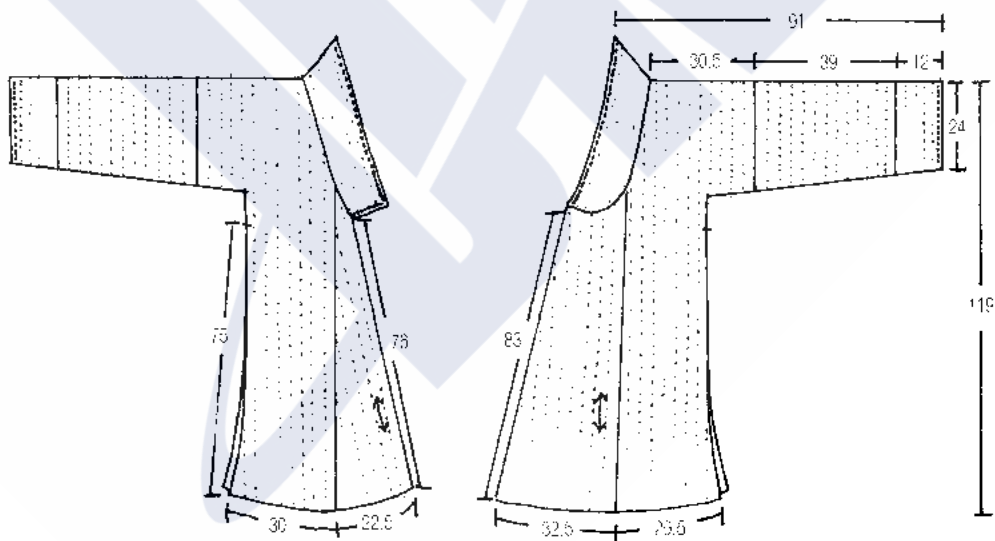
길 : 공단, 안 : 명주  
세자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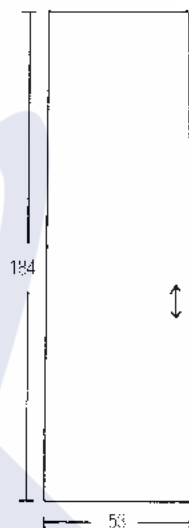
### 33) 누비소창의



질 : 삼팔주, 안 : 명주  
세자락  
숨을 두고 누빔  
누비간격 3.15cm  
수구 안쪽에 때받이 안단 6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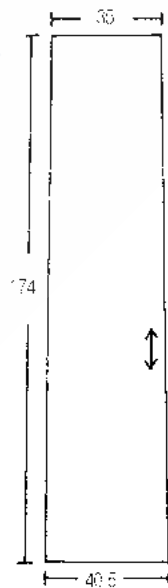


34) 天衾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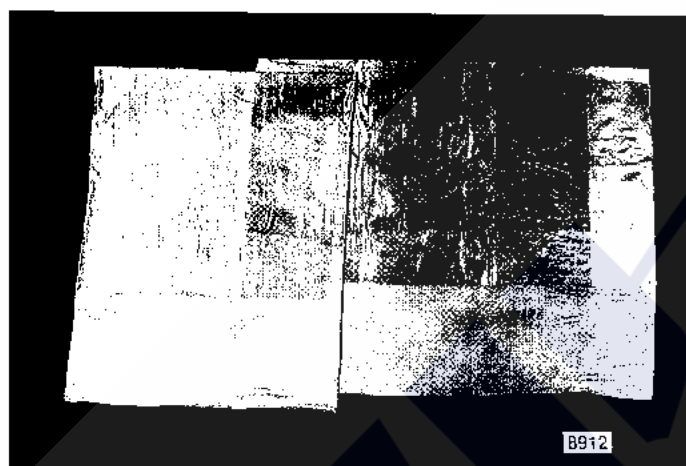
공단  
흔

35) 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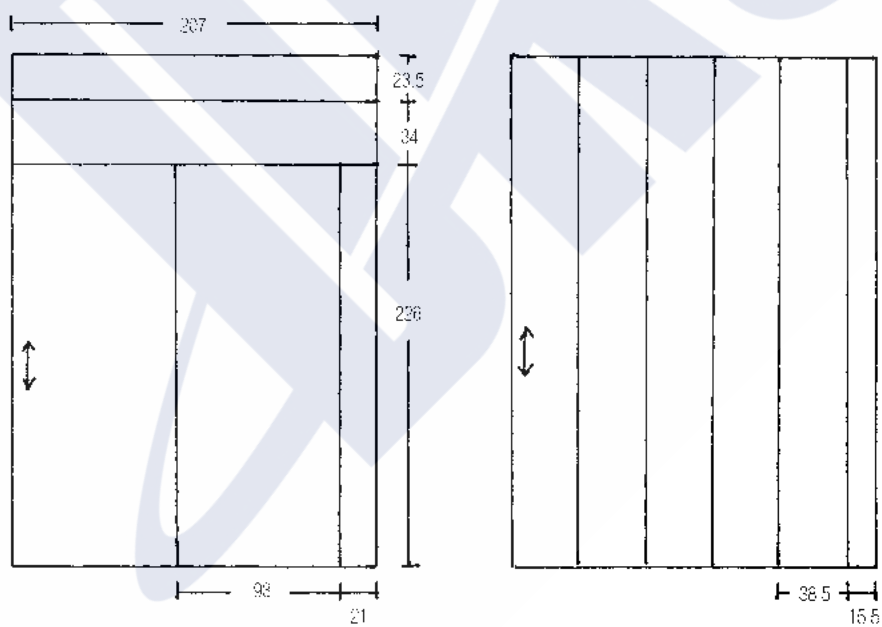


겉, 안 : 공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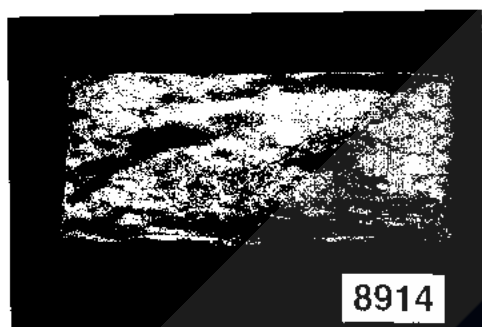
36) 大殮衾



겉 : 공단, 안 : 명주  
겉3폭, 안6폭



37) 베개



공단  
목화솜이 들어있음

38) 장베



삼베

39) 묶음베



삼베

40) 보공솜



명주(목화솜이 들어있음)  
목화솜

41) 柶衣



寶紋紗

42) 幣帛



紗  
絹絲

## 개관기념행사 해적이



## 개관기념행사해적이

開館 1981. 5. 2

1. 開館紀念“慶州李氏”壽衣 特別展

- ・ 日 時 : 1981. 7. 13~7. 19
- ・ 場 所 : 本 博物館 세미나실
- ・ 1979. 3. 京畿道 果川出土. 1580年代
- ・ 1980. 11. 29 重要民俗資料 第114號 指定

2. 開館一周年紀念“第二回 壽衣 特別展”

- ・ 日 時 : 1982. 5. 8~5. 15
- ・ 場 所 : 本 博物館 중앙홀
- ・ 南陽洪氏 壽衣 1980. 京畿道 楊洲 出土 1450年代
- ・ 慶州李氏 壽衣 1979. 3 京畿道 果川 出土 1580年代
- ・ 全州李氏 壽衣 1981. 6 京畿道 龍仁 出土 1730年代

3. 開館二周年紀念“第一回 學術 세미나”

- ・ 日 時 : 1983. 5. 2~5. 3
- ・ 場 所 : 本 博物館 세미나실
- ・ 論題 및 演士

1) 染織品の 保存과 陳列

典實榮子 선생(東京 國立文化財研究所 主任研究官)

2) 朝鮮時代 出土服飾의 實態

석주선 박사(本 博物館長)

4. 開館三周年紀念 “第二回 學術세미나 및 第三回 朝鮮朝 衣裳 復原 特別展”

- 日 時 : 1984. 5. 1~5. 4
- 場 所 : 本 博物館 세미나실 · 중앙홀
- 論題 및 演士

1) 民俗博物館의 課題와 方向

하효길 관장(國立民俗博物館)

2) 고대 우리나라의 機織技術

민길자 교수(國民大學校)

3) 舊韓末 宮中禮服 및 一般婦女服飾 研究

김영숙 원장(東洋服飾研究院)

- 特別展 : 朝鮮朝 衣裳 復原 特別展  
袞龍袍 外 20여점

5. 開館四周年紀念 “第三回 學術세미나 및 第四回 朝鮮朝 女人襪衣類 特別展”

- 日 時 : 1985. 5. 1~5. 7
- 場 所 : 本 博物館 세미나실 · 중앙홀
- 論題 및 演士

1) 텔레비전 사극의 고증과 실제

박정식 교수(培花女專)

2) 우리나라 傳統染色에 관한 考察

소황옥 교수(中央大學校)

3) 翟衣制度의 變遷研究

박성실 연구원(本 博物館)

- 特別展 : 朝鮮朝 女人 襪衣類 特別展  
단속곳 외 40여점

6. 開館五周年紀念“第四回 學術세미나 및 第五回 朝鮮朝 여자 저고리 特別展”

· 日 時 : 1986. 5. 2~5. 10

· 場 所 : 本 博物館 중앙홀  
蘭坡紀念音樂館 소강당

· 論題 및 演士

1) 한국고대의 장신구

김기웅 박사(문화재 전문위원)

2) 高松塚의 복식사적 연구

박경자 교수(성신여대)

3) 濟州島 女人의 속옷에 대한 民俗學的 研究

고부자 연구원(本 博物館)

· 特別展 : 朝鮮朝 여자저고리 特別展

光海君妃 靑衫 외 57點

7. 開館六周年紀念“第五回 學術세미나 및 第六回 朝鮮朝 冠服 特別展”

· 日 時 : 1987. 5. 2~5. 9

· 場 所 : 本 博物館 중앙홀  
蘭坡紀念音樂館 소강당

· 論題 및 演士

1) 우리나라의 甲冑實態

이강칠 선생(前 軍事博物館長)

2) 제주도 갈옷의 實態調査에 대한 應用方案 研究

손경자 교수(世宗大學校)

3) 親蠶禮 및 親蠶服에 관한 研究

박성실 연구원(本 博物館)

· 特別展 : 朝鮮朝 冠服 特別展

興宣大院君 紫의團領(重要民俗資料 第214號) 외 22點

8. 開館七周年紀念“第六回 學術세미나 및 第七回 出土 服飾 特別展”

· 日 時 : 1988. 5. 2~5. 10

· 場 所 : 本 博物館 중앙홀

蘭坡紀念音樂館 소장당

· 論題 및 演士

1) 道教服飾小考

임영자 교수(世宗大學校)

2) 日本의 服裝에 있어서의 韓日關係

山邊知行 관장(遠山紀念館)

· 特別展 : 出土服飾 特別展

1) 金海金氏(涵, 1568~1598, 重要民俗資料 第209號)

2) 楊川許氏(1450년대 추정)

3) 慶州李氏(泰坤, 1672~1763)

9. 開館八周年紀念“第七回 學術세미나 및 第八回 出土 服飾 特別展”

· 日 時 : 1987. 5. 2~5. 11

· 場 所 : 本 博物館 중앙홀

蘭坡紀念音樂館 소장당

· 論題 및 演士

1) 居家雜服攷를 통해본 朴珪壽의 服飾觀

조효순 교수(明知大學校)

2) 韓·中文官胸背樣式 比較小考

배정용 교수(淑明女子大學校)

3) 우리나라 婚禮服의 民俗學的 研究

고부자 연구원(本 博物館)

4) 城南出土 東萊鄭氏 出土遺物에 관한 小考

박성실·고부자 연구원(本 博物館)

· 特別展 : 出土服飾 特別展 및 傳統壽衣一襲 復原展示

1) 城南出土 東萊鄭氏 出土服飾(1529~1604) 30여점

2) 傳統壽衣一襲 復原展示 30여점

10. 開館九周年紀念 “第八回 學術세미나 및 第九回 出土 服飾 特別展”

· 日 時 : 1990. 5. 2~5. 12

· 場 所 : 本 博物館 중앙홀  
蘭坡紀念音樂館 소강당

· 論題 및 演士

1) 佩玉에 關한 研究

홍나영 교수(釜山女大)

2) 深衣構成에 關한 研究

김정자 교수(大田實傳)

3) 驪州出土 東萊鄭氏 出土遺物 小考

고부자·박성실 연구원(本 博物館)

· 特別展 : 出土服飾 特別展

驪州出土 東萊鄭氏 出土服飾(1574~1669) 50여점

11. 開館十周年紀念 “第九回 學術세미나 및 第十回 出土 服飾 特別展”

· 日 時 : 1991. 5. 2~5. 10

· 場 所 : 本 博物館 중앙홀  
蘭坡紀念音樂館 소강당

· 論題 및 演士

1) 日本 文化女子大學 服飾博物館 所藏 德惠翁主 遺物 小考

석주선 박사(本 博物館長)

2) 우리나라 古代 喪制 속에 반영된 宗教觀

전혜숙 교수(東亞大學校)

3) 高陽 陵谷 茂院 出土 羅州丁氏 月軒共派 出土遺物 小考

박성실 · 고부자 연구원(本 博物館)

· 원고 게재

1) 中國 古代服飾 文物的 發掘 · 整理和 研究

周 訊(上海藝術研究所 中國服飾史研究室 主任)

2) 中國服飾常用文樣考釋

高春明(上海藝術研究所 中國服飾史研究室)

· 特別展 : 出土服飾 特別展

高陽 陵谷 茂院 出土 羅州丁氏 出土服飾(1508~1572) 30여점

12. 開館十一周年紀念 “第十回 學術세미나 및 第十一回 出土 服飾 特別展”

· 日 時 : 1992. 5. 2~5. 12

· 場 所 : 本 博物館 중앙홀

蘭坡紀念音樂館 소강당

· 論題 및 演士

1) 15世紀 服飾의 樣式과 特性

유희경 박사(服飾文化研究院長)

2) 朝天錄과 燕行錄의 服飾

임기중 교수(東國大學校)

3) 서울 下溪洞 出土 文化柳氏 遺物 小考

고부자 · 박성실 연구원(本 博物館)

· 特別展 : 出土服飾 特別展

서울 下溪洞 出土 文化柳氏 出土服飾(1615~1685) 20여점

13. 開館十二周年紀念 “第十一回 學術세미나 및 第十二回 出土 服飾 特別展”

· 日 時 : 1992. 5. 2~5. 11

· 場 所 : 本 博物館 중앙홀  
蘭坡紀念音樂館 소강당

· 論題 및 演士

1) 韓國服飾과 西域服飾의 共通要素

부함마드 간수 교수(檀國大學校)

2) 5·6세기 敦煌壁畫를 통해 본 服飾의 東西交涉史

유혜영 박사(弘益大學校)

3) 慶州郡 突馬面 朽栗理 出土 全州李氏 義安大君 襄昭公派 遺物小考

박성실 연구원(本 博物館)

4) 高陽市 幸信洞 出土 陽川許氏 遺物 小考

고부자 연구원(本 博物館)

· 特別展 : 出土服飾 特別展

1) 廣州郡 出土 全州李氏 義安大君(1431~1489年) 襄昭公派遣物 20여점

2) 高陽市 幸信洞 出土 陽川許氏(1660年代 추정)遺物 20여점

14. 開館十三周年紀念 “第十二回 學術세미나 및 第十三回 出土 服飾 特別展”

· 日 時 : 1994. 5. 2~5. 12

· 場 所 : 本 博物館 중앙홀  
蘭坡紀念音樂館 소강당

· 論題 및 演士

1) 쪽염료의 제조과정 소고

이병찬 선생(식물염색 연구가)

2) 中央아시아 - 宗教傳播의 諸樣相 -

민병훈 박사(中央大學校)

3) 中央아시아 修髮樣式과 頭衣

김용문 교수(성신여자대학교)

4) 「豊公遺實圖略」에 나타난 宣祖朝 王室服飾

박성실 연구원(本 博物館)

5) 天安 雙龍洞 出土 豊山洪氏 遺物 小考

박성실 연구원(本 博物館)

・ 特別展 : 出土服飾 特別展

天安 雙龍洞 出土 豊山洪氏(1761~1841)遺物 30여점

15. 開館十四周年紀念 “第十三回 學術세미나 및 第十四回 出土 服飾 特別展”

・ 日 時 : 1995. 5. 2~5. 15

・ 場 所 : 本 博物館 중앙홀

蘭坡紀念音樂館 소강당

・ 論題 및 演士

1) 7~9세기 신라인의 해외무역 활동

김문경 교수(숭실대학교)

2) 正倉院의 服飾과 染織

이춘계 교수(동국대학교)

3) 충북 충주시 목계동 출토 풍산홍씨 유물 소고

고부자 연구원(本 博物館)

・ 特別展 : 出土服飾 特別展

忠北 忠州市 牧溪洞 出土 豊山洪氏(1699~1763)遺物 30여점

16. 開館十五周年紀念 “第十四回 學術세미나 및 第十五回 出土 服飾 特別展”

・ 日 時 : 1996. 5. 2~5. 13

・ 場 所 : 本 博物館 중앙홀

蘭坡紀念音樂館 소강당

・ 論題 및 演士

1) 구포리 최숙 무덤의 구조와 출토유물

한창균 교수(단국대학교)

2) 화성 구포리 출토복식의 섬유 외물질 분석에 관한 소고

안춘순·조한국·김정완 교수(인천대학교)

3) 화성 구포리 출토복식 소고

박성실 연구원(本 博物館)

・特別展 : 出土服飾 特別展

華城 鳩浦里 出土 隨城崔氏(1636~1698)遺物 30여점

17. 開館十六周年紀念 “第十五回 學術세미나 및 第十六回 出土 服飾 特別展”

・日 時 : 1994. 5. 2~5. 16

・場 所 : 本 博物館 중앙홀

蘭坡紀念音樂館 소강당

・論題 및 演士

1) 조선 전기 출토 직물의 종류와 그 제작 기구에 대한 고찰

- 천안시 풍세면 출토 제주고씨 유물을 중심으로 -

심연옥·민길자 교수(국민대학교)

2) 「儀軌」에 나타나는 借字表記 研究(1)

- 조선후기 服飾 어휘를 중심으로(1) -

오창명 박사(제주대학교)

3) 천안시 풍세면 출토 제주고씨 유물 연구

고부자 소장(단국대학교 민속학연구소)

・特別展 : 出土服飾 特別展

天安 豐歲面 出土 濟州高氏(임진왜란 전후) 遺物 40여점

18. 開館十七周年紀念 “第十六回 學術세미나 및 第十七回 出土 服飾 特別展”

・日 時 : 1998. 5. 2~5. 15

・場 所 : 本 博物館 중앙홀·제1전시실

蘭坡紀念音樂館 소강당

· 論題 및 演士

- 1) 파주 금릉리 慶州鄭氏 墳墓에서 出土된 服飾에 찍힌 陀羅尼와 佛教 符籙

박상국 실장(국립문화재연구소)

- 2) 파주 금릉리 출토 경주정씨 유물의 섬유와 성분 에 관한 분석  
안춘순·조한국 교수(인천대학교)

- 3) 파주 금릉리 출토 경주정씨 유물 소고  
박성실 관장서리(本 博物館)

· 特別展 : 出土服飾 特別展

坡州 金陵里 出土 慶州鄭氏(1481~1538)遺物 40여점

19. 開館十八周年紀念 “第十七回 學術세미나 및 第十八回 出土 服飾 特別展”

· 日 時 : 1999. 5. 2~5. 14

· 場 所 : 本 博物館 중앙홀

蘭坡紀念音樂館 소강당

· 論題 및 演士

- 1) 조선시대 묘비문을 통해서 본 합장 문제  
김우림 학예연구사(고려대학교 박물관)

- 2) 일영 출토 고령신씨 유물 소고  
고부자 소장(단국대학교 전통복식연구소)

· 特別展 : 出土服飾 特別展

경기도 일영 출토 高靈申氏(조선전기)遺物 50여점

20. 開館十九周年紀念 “第十八回 學術세미나 및 第十九回 전통 어린이 옷 특별전

어린이 날 우리 옷 잔치(패션쇼)”

· 日 時 : 2000. 5. 2~5. 31

· 場 所 : 섬유센터 3층 이벤트홀

석주선기념박물관 전시실

· 論題 및 演士

1) 한국의 전통적인 아동 양육과 상징

유안진 교수(서울대 아동가정학과)

2) 아동 놀이의 의미와 기능

임동권 명예교수(중앙대학교)

3) 전통 아기 옷에 관한 실증적 고찰

박성실 연구원(본 박물관)

· 特別展 : 전통 어린이 옷 특별전

박물관 소장품 150여점, 외부 박물관 대여품 20여점

· 어린이 날 우리 옷 잔치(패션쇼) : 1900년대 어린이옷(50여벌)을 복원,

모델(남·여, 4~12세)을 선정하여 패션쇼



# 慶 祝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민속·복식학 분야) 개관 20주년

제19회 학술(韓·中)대회

제20회 특별전(출토복식)

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단국대학교 대학원

전통의상학과 1,2,3기생 일동

祝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민속·복식학분야)

개관 2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무궁한 발전을 빕니다.

단국대학교 사회교육원

전통복식과정 1,2,3기 졸업생 일동

## **박제관** 이용안내

관람기간 : 매주 화, 목 2일간

시 간 : 오전 10시 ~ 오후 4시

휴 관 : 1. 국경일과 공휴일

## 2. 본교의 여름 및 겨울방학기간

3. 기타 본 박물관에 특수한 사정이 있을 때

TEL.(02)709-2107, 2188. FAX : (02)792-4162, 4258

## 證 領 受

韓國服飾 第19號를 受領하였습니다

수령일 :           년         월         일  
싱명 :                                 인  
주소 :

보 낼 곳 : 석주선기념박물관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 산 8 단국대학교  
☎ 140-714

\* 다음 간행물을 보내드릴 때 명단작성의 근거가 되오니 꼭 수령증을 반송해 주십시오.



## 韓國服飾

## 第十九號

작은날 2001年 4月 15日 印刷

펴낸날 2001年 4月 25日 發行

編輯制作 檀國大學校 **石室善紀念博物館**

전 화 : (02) 709-2107 · 2188

할전화 : (02) 792-4162 · 4258

發 行 **石室善紀念博物館**

서울 特別市 龍山區 漢南洞 118

140 - 7114

登 錄 1968年 2月 27日 NO. 가 제3-95

印 刷 호 분 사

전 화 : (02) 2267-3401

할전화 : (02) 2267-3401

